더케이프

THE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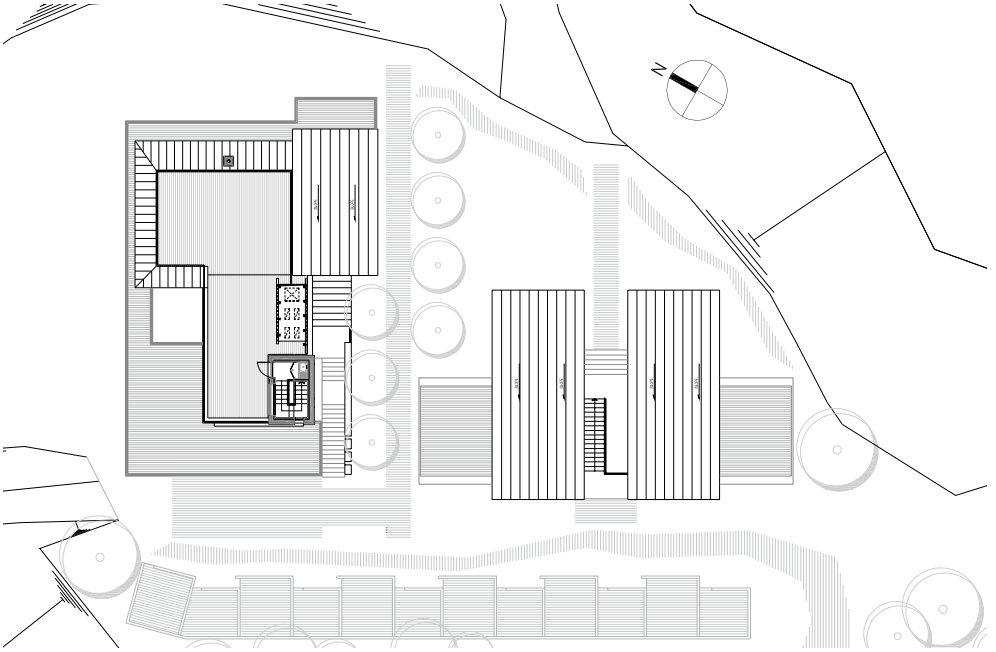
설계자 | **이옥정**_KIRA | 마로안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주)대한동방
감리자 | 마로안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대명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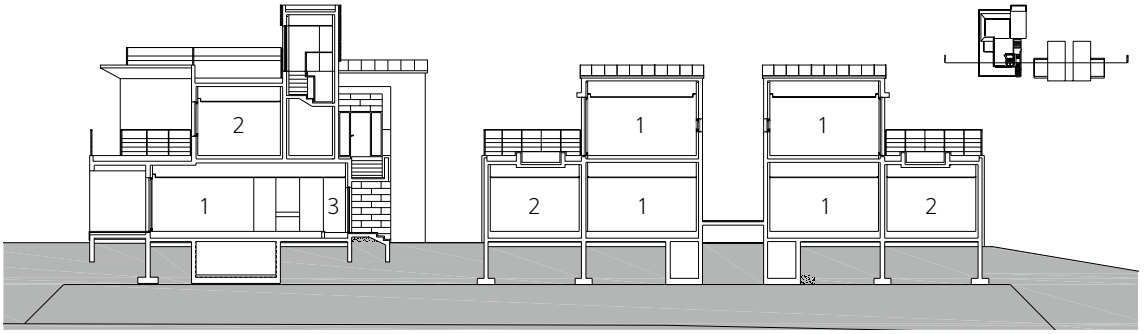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봉화길 297
주요용도 | 숙박시설(펜션)
대지면적(Site Area) | 1,764㎡
건축면적(Building Area) | 507.46㎡
연면적(Gross Floor Area) | 657.2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8.76%
용적률(Floor Area Ratio) | 37.26%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현무암, 징크, 화이트 스터코
- 내부 : 현무암, 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5~2010. 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1~2012. 01

• 설계팀 : 황병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바른구조
- 기계설비분야 : 서원엠이씨
- 전기분야 : 천일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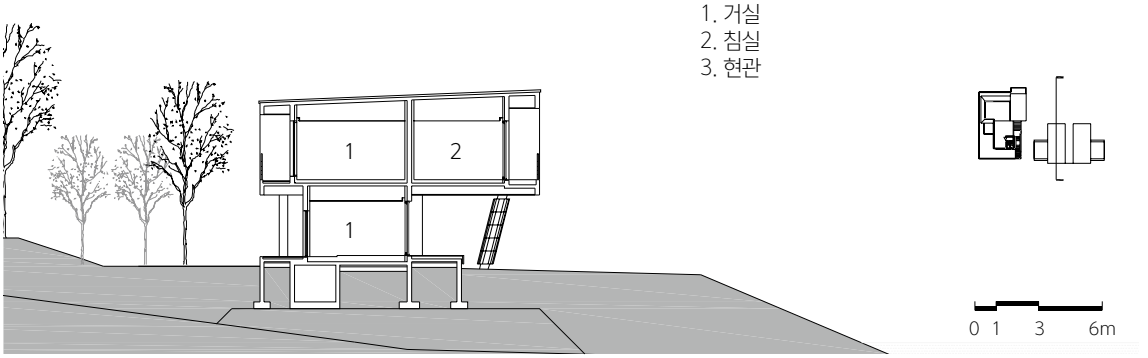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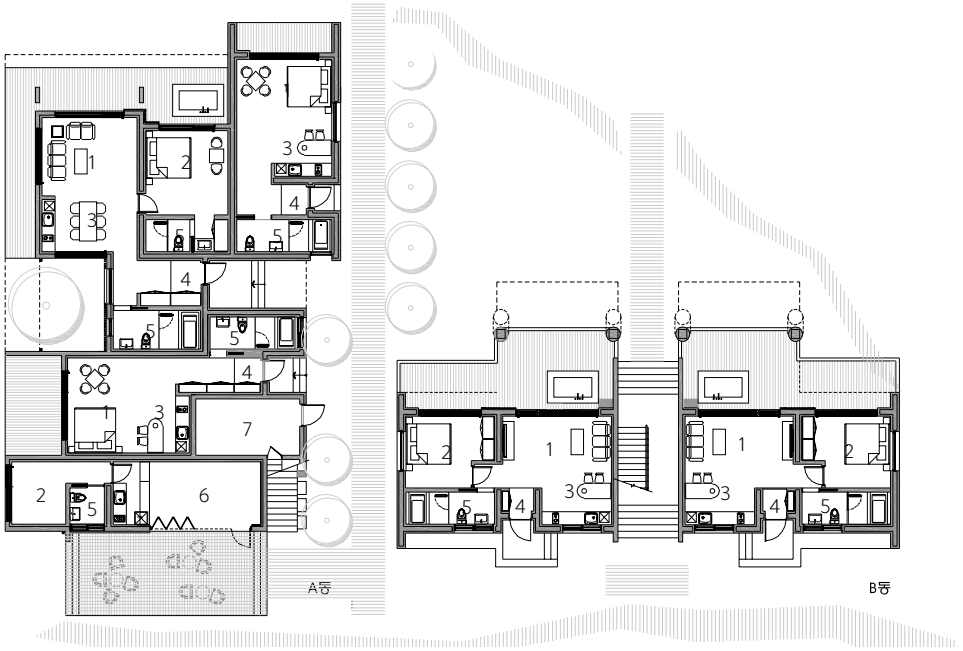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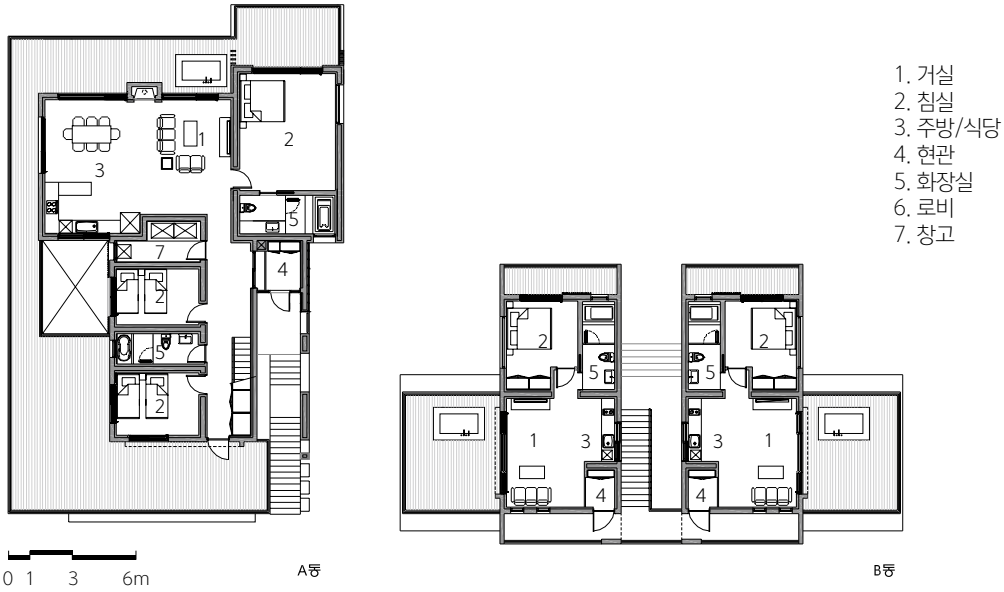
1. 거실
2. 침실
3. 현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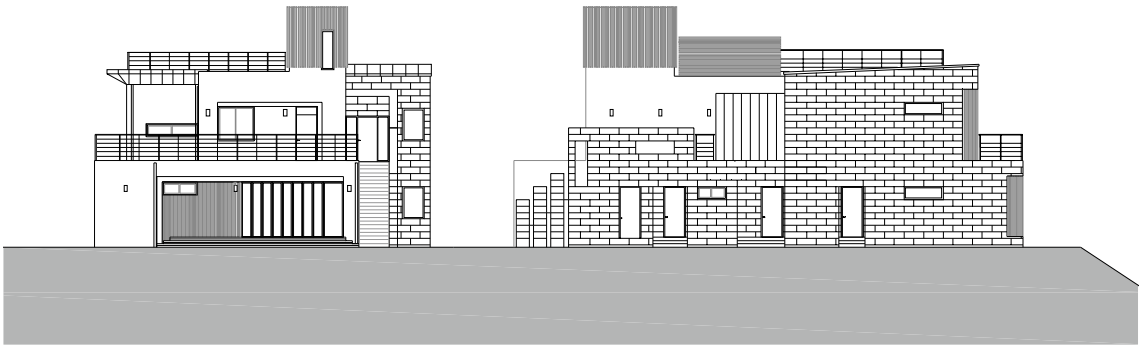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거실
2. 침실
3. 주방/식당
4. 현관
5. 화장실
6. 로비
7. 창고

2층 평면도



A동 남측면도, 동측면도

A동 서측면도, 북측면도

B동 북측면도, 동측면도

B동 서측면도, 남측면도

포항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고즈넉하고 정감 있는 어촌마을의 해안가를 따라 자동차로 얼마쯤 달리다 보니, 바다를 향해 머리를 불쑥 내민 대지가 보인다.
건축주는 이 땅에 별장 겸 기업의 게스트하우스를 구상하고 있었다.
바다를 향해 돌출된 대지의 형상 때문일까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대지였다. 이렇듯 바다가 주는 압도적인 느낌과 동시에 바다와 육지와의 연결선상에 놓인 대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본 프로젝트의 관건이었다.
대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잠재력은 대단하였으나,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이 땅은 황량하게 버려진 외로운 땅일 뿐이었다. 대지가 가진 고유의 지형학적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어루만짐으로 어촌마을에 공간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대지가 가진 매력을 십분 발휘하게 하는 것 또한 숙제였다.
대지에 녹아있는 바다와 육지 간의 자연축과 바다를 향해 3면으로 열려있는 대지의 형상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잡기 시작했다. 또한 바다를 향한 북동향의 주된 조망과 동시에 육지 쪽의 남향 채광도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3면 조망과 남측채광 모두를 충족시키는 배치 및 평면계획이 필요하였다.
건물은 두 동으로 나누어 최대한 자연을 향해 열려있도록 배치하였다. 특히 대지가 가진 성격을 활용하여, 건물의 매스와 매스 사이를 통과하면서 바다가 극적으로 연출되도록 구상하였다.
건물의 입면은 단순하지만 절제된 형태를 도입하여 대지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고자 하였다.
건물 매스의 효과적인 조합은 조망과 채광을 최대한 도입하면서, 건물의 내부공간을 자연스럽게 외부로 확장시키고 있다. 내부공간이지만 자연이 함께하는, 외부이지만 내부공간의 연장선상에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8개의 객실은 외부 정원을 물리적으로는 공유하고 있지만, 각 객실의 내부에서는 개인정원이 주는 심리적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외부마감은 화이트 스터코와 화산석, 징크를 사용하였다. 건물 전체에 흐르는 화이트, 그레이의 모노톤은 사계절의 변화와 바다가 주는 다양한 표정들…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과 물결, 새벽 일출시간대의 장엄하고 힘찬 느낌, 일몰 시간대의 세상을 온통 빨갛게 물들여 버리는 노을, 때로는 무서우리만치 거센 물살과 비바람… 이 모든 표정들을 건물에 가감 없이 솔직히 담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사용된 목재 루버, 목재 데크는 지붕에 사용된 징크와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세월만큼의 나이를 갖게 되어 시간의 흔적을 더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바다와 육지, 하늘과 땅, 내부와 외부를 각각 연결하는 통로이자 자연스러운 매개체가 되어 지역 주민의 풍요로운 휴게공간, 도시인의 자연 속 휴식처가 되길 기대해 본다.

THE CAPE
Lobby & Café

라온재

Raon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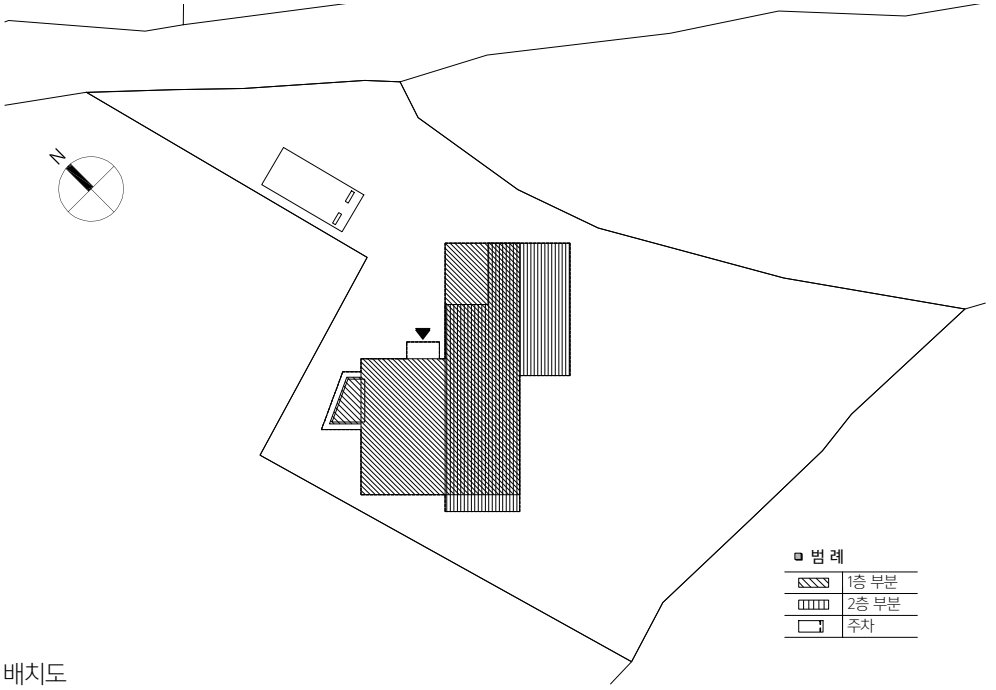
설계자 | **김동희**_KIRA |
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건축주 | 심한섭, 전미경
감리자 | 건축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시공사 | 하우징 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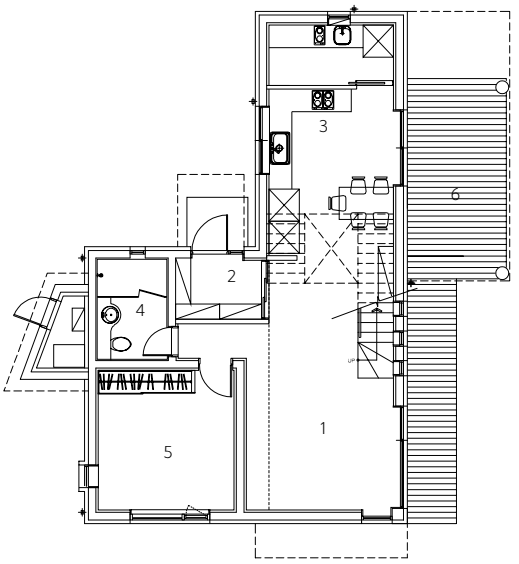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622㎡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4.52㎡
연면적(Gross Floor Area) | 157.5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6.80%
용적률(Floor Area Ratio) | 25.33%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외단열시스템, 스타코
- 내부 : 고급벽지, 강마루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10~2013. 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3~2013. 11
프로젝트 코디네이트 | 하우스스타일 김주원
사진(Photographer) | 김용순(Kim, Yong-soon)

- 설계팀 : 강신열소장, 박진영, 이경선
- 전문기술협력
- 기계설비분야 : 대림엠이씨
- 전기분야 : 대림엠이씨
- 소방분야 : 대림엠이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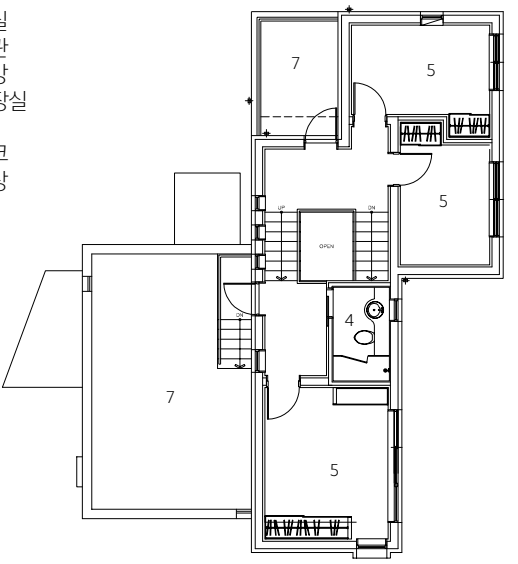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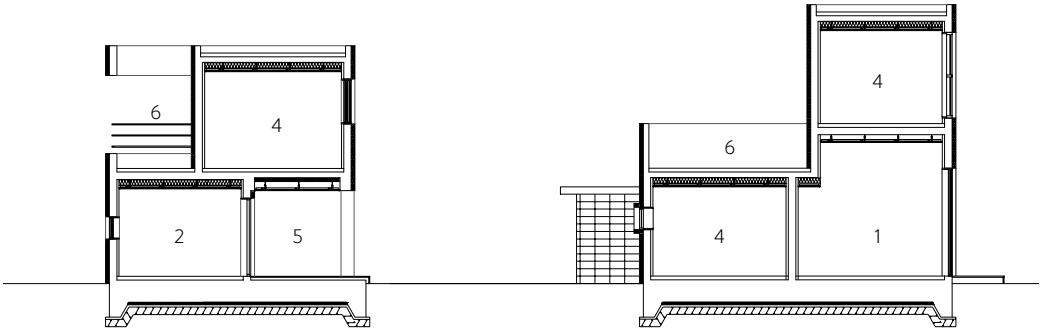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거실
2. 현관
3. 주방
4. 화장실
5. 방
6. 데크
7.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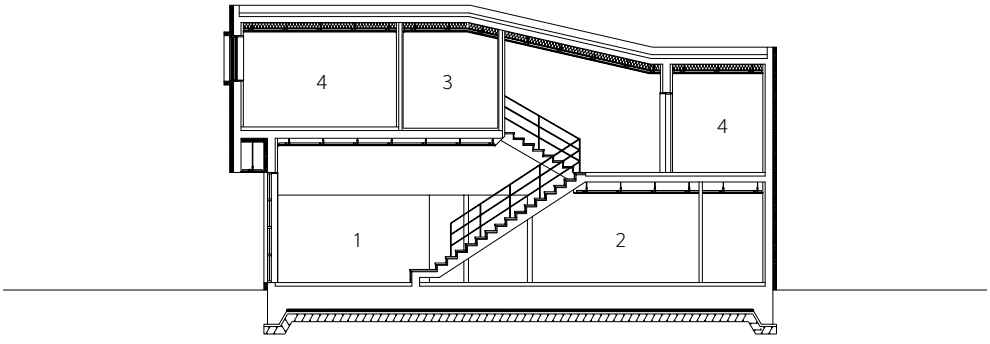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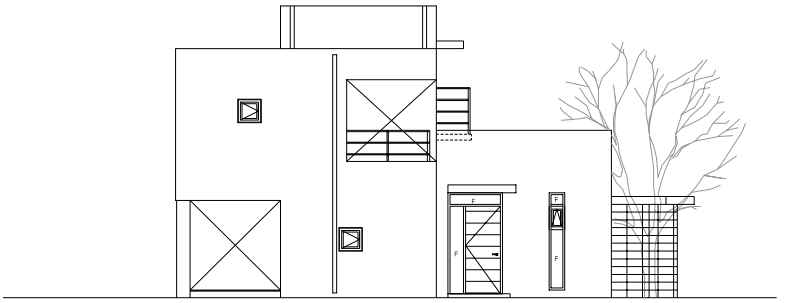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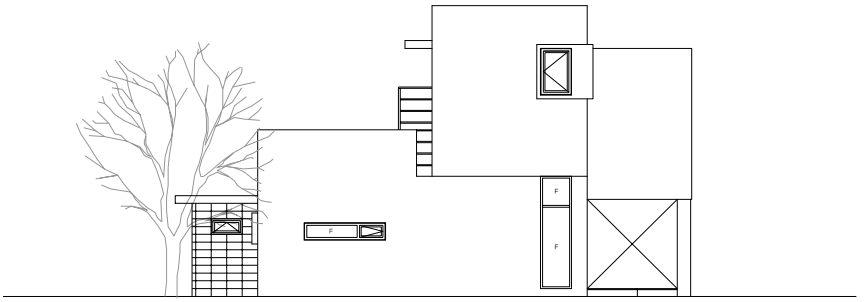
1. 거실
2. 주방
3. 화장실
4. 방
5. 데크
6.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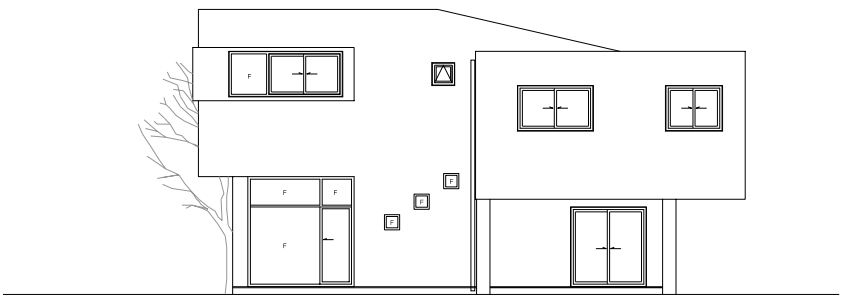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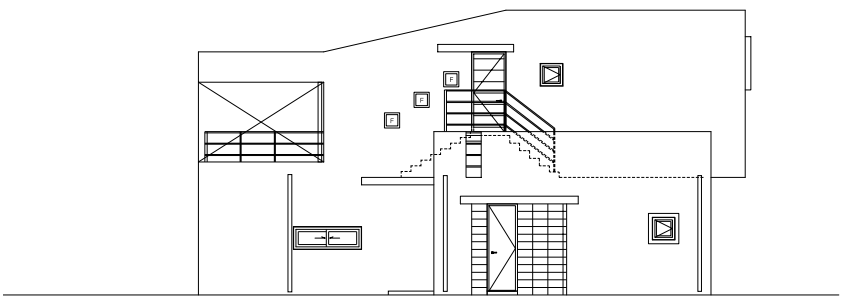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

50대 중반의 건축주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골 마을의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어머니, 부부, 두 아들, 총 5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짓고 싶어 했다. 핵가족이 흔해진 요즘 시대에 3세대가 한 공간에, 더군다나 주변에는 산과 논, 밭이 둘러싸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가족구성이다.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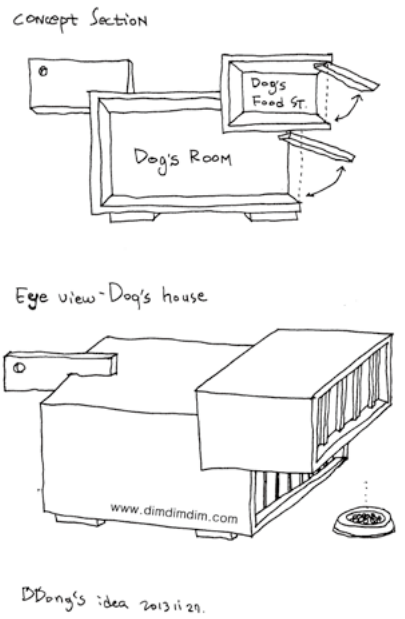
대지는 흘러가는 산의 능선과 4계절 푸름과 황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논의 풍경이 감싸고 있다. 대지를 둘러싼 어느 한 방향도 놓치기 아쉬운 풍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스의 형태는 모든 풍경을 담기 위해서 4방향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하지만 라온재에는 어느 하나 풍경을 억지로 담기 위한 과도한 크기의 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좋은 집이란 어느 한 구석, 기둥을 부여잡고 울만한 어두운 구석이 있는 집"이라는 건축주의 생각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조형적인 효과나 기술적인 장식을 배제하고 적절한 빛과 침묵의 공간이 존재하는 집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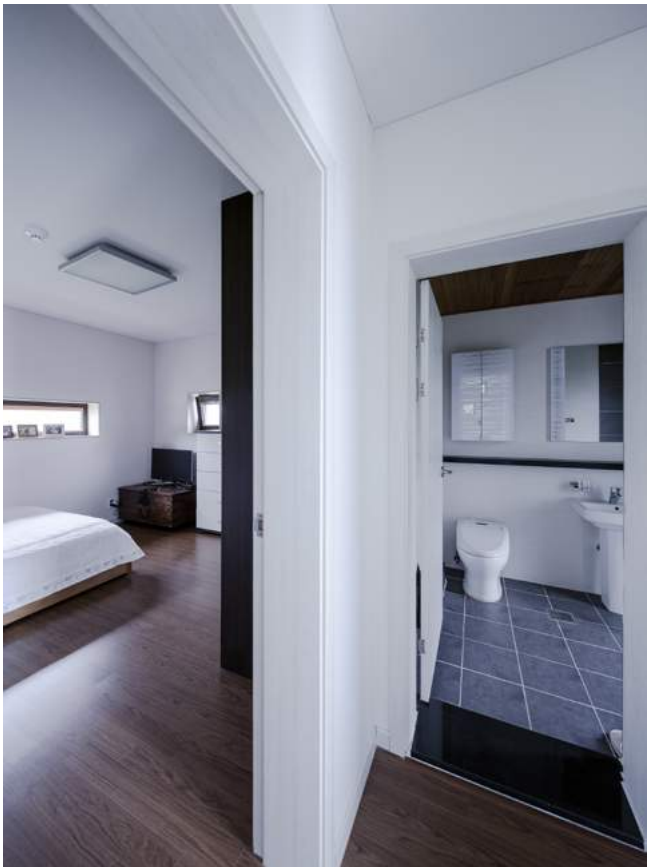
라온재의 외벽은 회색콘크리트 위에 백색으로 마감이 되어있다. 우리는 백색을 작은 시골 마을의 소박함을 지닌 모습이라 생각하며 외관을 디자인하였다. 아무런 색도 없는 무채색인 백색은 느리게 가는 농촌 마을의 풍경을 해치지 않고 주변환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속삭임이다.

공간

3세대의 욕망을 하나의 주택에, 그리고 각 세대의 공간에 담기 위해 공간을 구획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과거의 수평적인 공간구획과 위계에서 벗어나 이를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두개층에 명쾌한 3개의 공간을 만들었으며 3개의 공간이 서로 방해받지 않는(모호한) 관계를 가지게 하고자 하였다. 각 세대의 개별적 공간을 스킵플로어의 형태로 공간의 위계를 주고 풍성한 공간의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라온이란? '즐거운'이란 말로 순수 우리말입니다.





마로인 사옥

Maroin Office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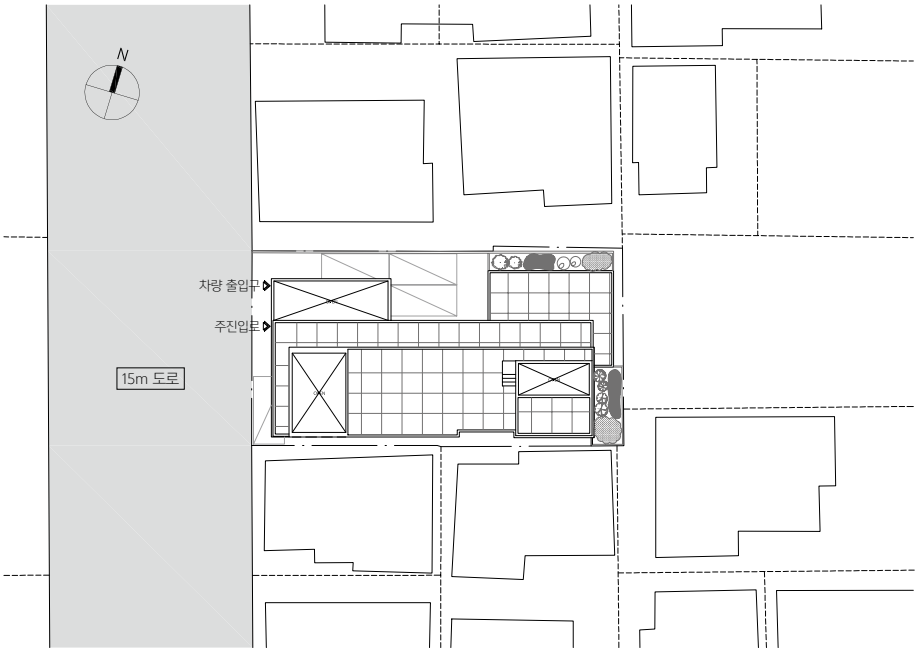
설계자 | **오신욱**_KIRA | 라움 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주)제이에스온
감리자 | 라움 건축사사무소 오신욱
시공사 | 김태홍 / 대정종합건설 / 이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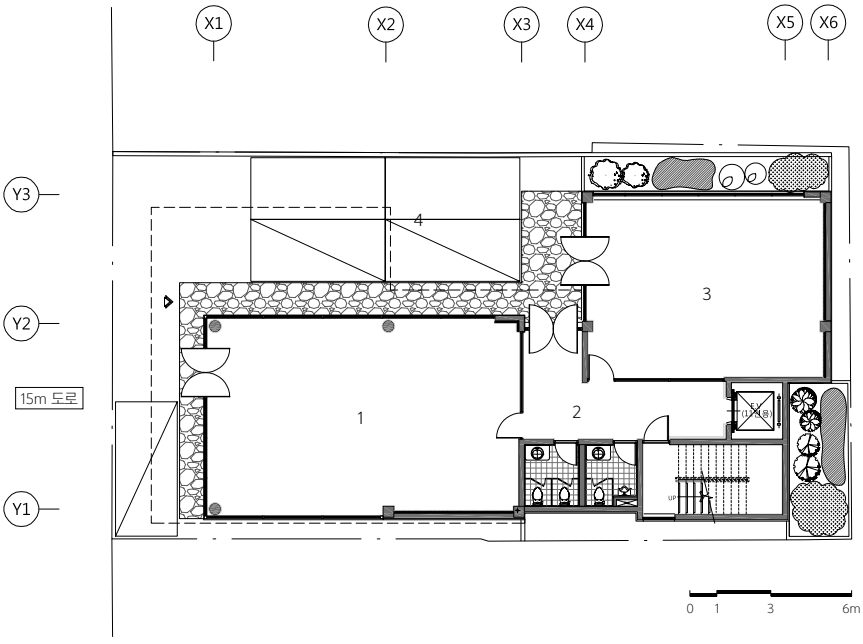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46-9번지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33.29㎡
연면적(Gross Floor Area) | 734.0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8.32%
용적률(Floor Area Ratio) | 183.51%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테라코트슈퍼화인, 노출콘크리트
- 내부 : 수성페인트, 인테리어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3~2013. 06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6~2014. 01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 설계팀 : 노정민, 하정운, 김대원, 안신, 유성철, 박규현, 윤정옥/(現)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인구조
  - 기계설비분야 : 신흥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영신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 신흥엔지니어링, 영신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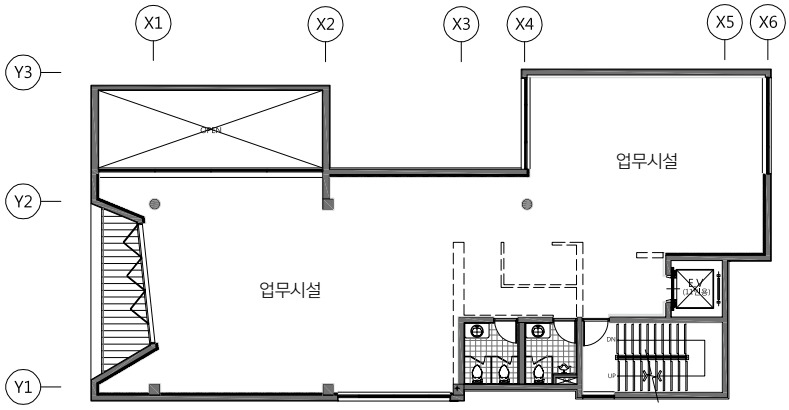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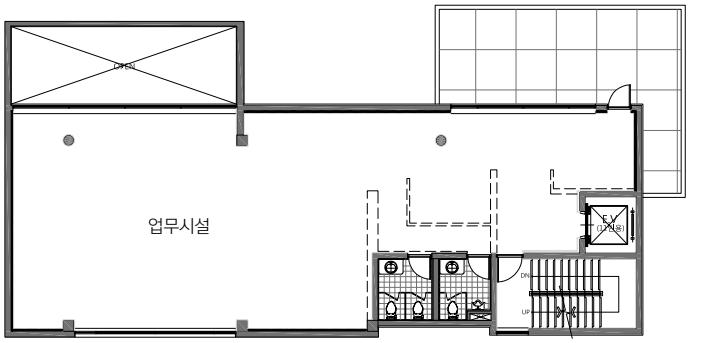


1. 전시 및 휴게실
2. 로비
3. 제품창고
4.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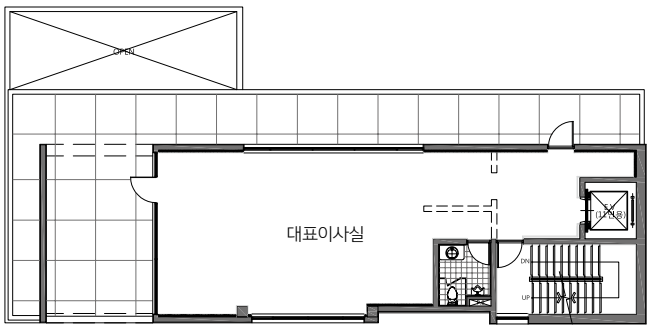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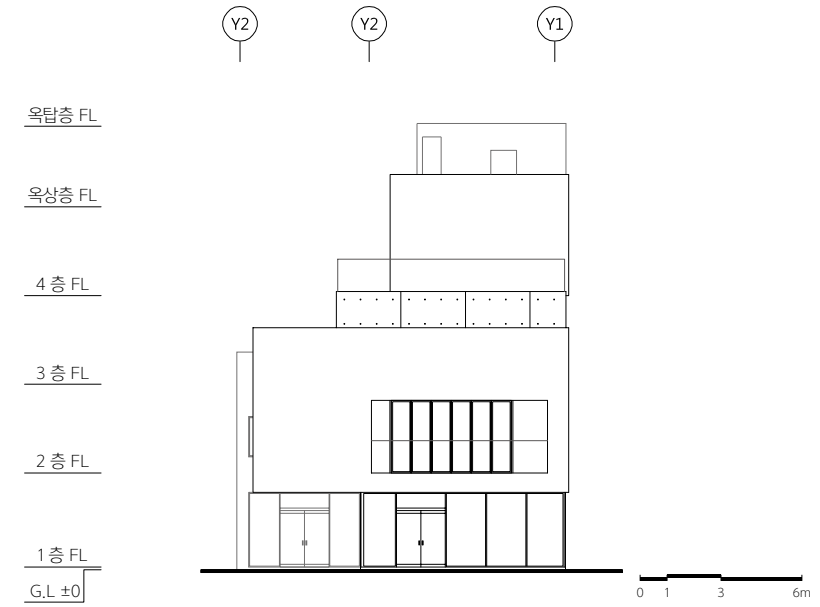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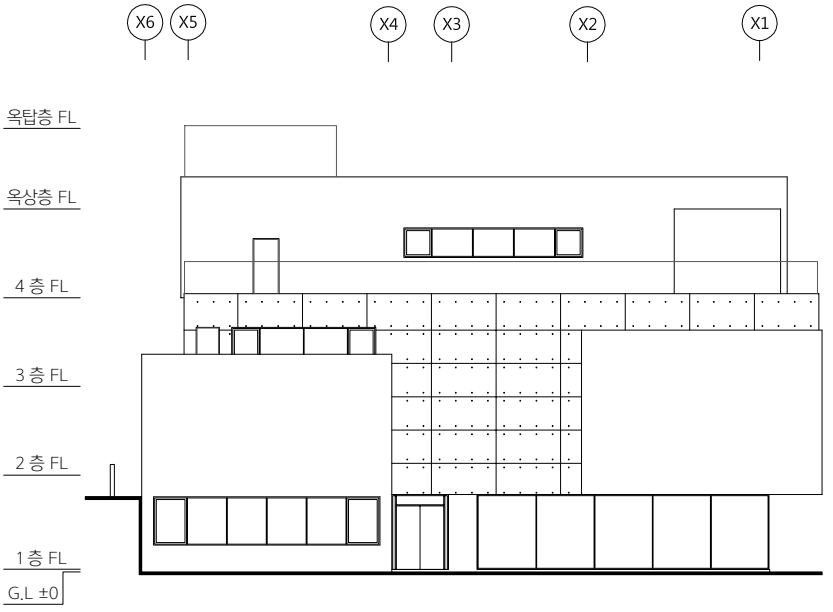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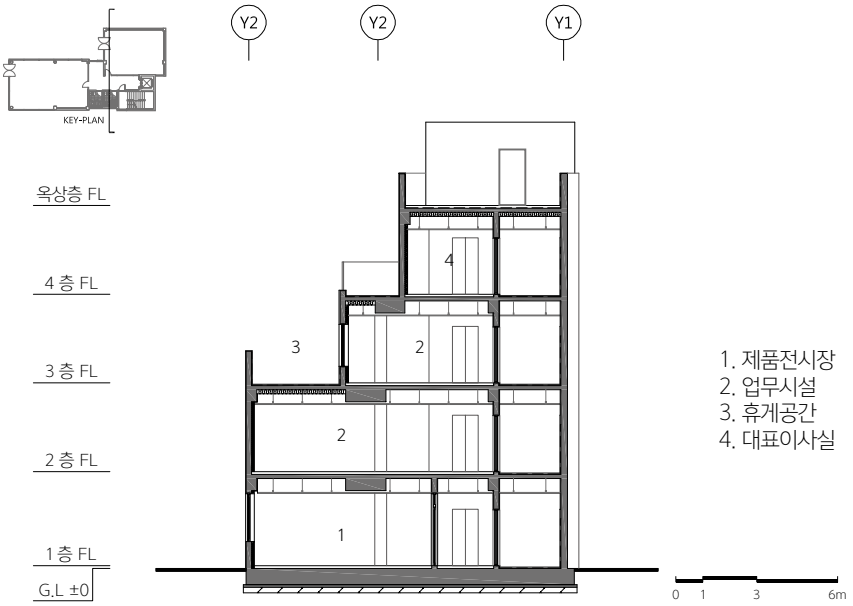
4층 평면도


Y2
Y2
Y1
옥탑층 FL
옥상층 FL
4 층 FL
3 층 FL
2 층 FL
1 층 FL
G.L ±0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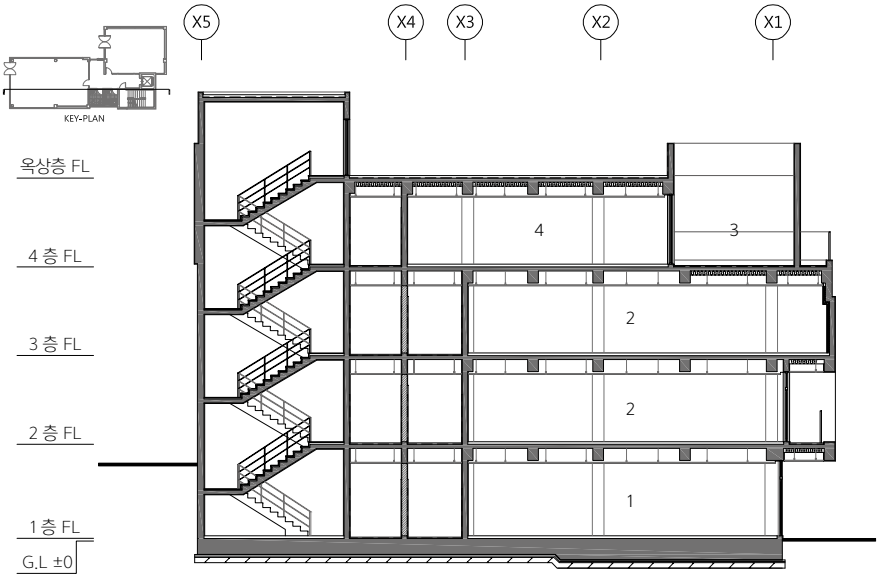
정면도


X6
X5
X4
X3
X2
X1
옥탑층 FL
옥상층 FL
4 층 FL
3 층 FL
2 층 FL
1 층 FL
G.L ±0

좌측면도


KEY-PLAN
Y2
Y2
Y1
옥상층 FL
4 층 FL
3 층 FL
2 층 FL
1 층 FL
G.L ±0
4
3
2
2
1
1. 제품전시장
2. 업무시설
3. 휴게공간
4. 대표이사실
0 1 3 6m

횡단면도


KEY-PLAN
X5
X4
X3
X2
X1
옥상층 FL
4 층 FL
3 층 FL
2 층 FL
1 층 FL
G.L ±0
4
3
2
2
1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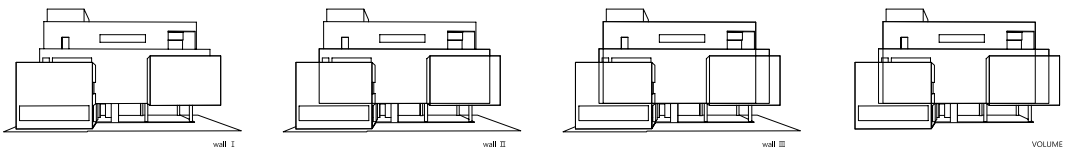
마로인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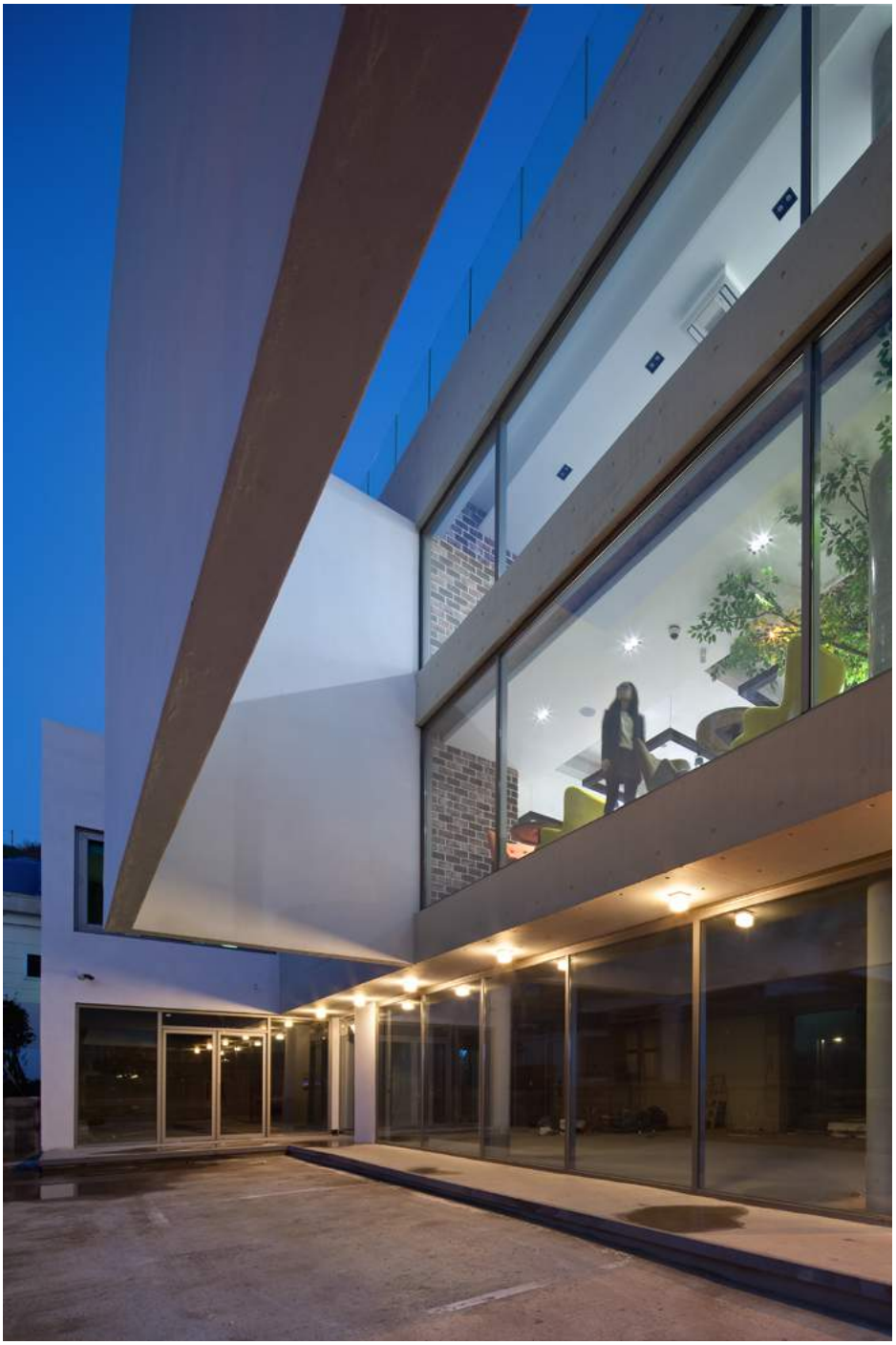
세계적 명성과 자본이 투입되는 해운대와 광안리의 급성장하에 이 땅은 주변부로서 한동안 개발로부터 소외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다. 도시에서 잊혀지고 성장이 멈춰진 가로변의 중심에 위치한 장소이다. 특히 이 가로변은 광안리라는 목적을 위해 달려가면서 스쳐지나가던 의미 없는 취급을 받던 장소이다. 센텀시티라는 거대한 업무지구의 아파트형 공장 틈바구니에서 시작한 벤처기업이 경제적 형편에 맞춰 소외된 땅을 찾았고, 그곳으로 사옥을 옮기는 프로젝트이다. 이 땅은 주변으로부터 소외된 것이 이 기업과 많이 닮아있었고, 이곳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주변이 침체되어 있는 가로변과 벤처기업으로써 도전적 기업 이미지를 위해 띄워져있는 볼륨과 매끈한 표면을 이용하여 주변과 차별되는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를 시작으로 이 가로가 변화될 수 있는 조그만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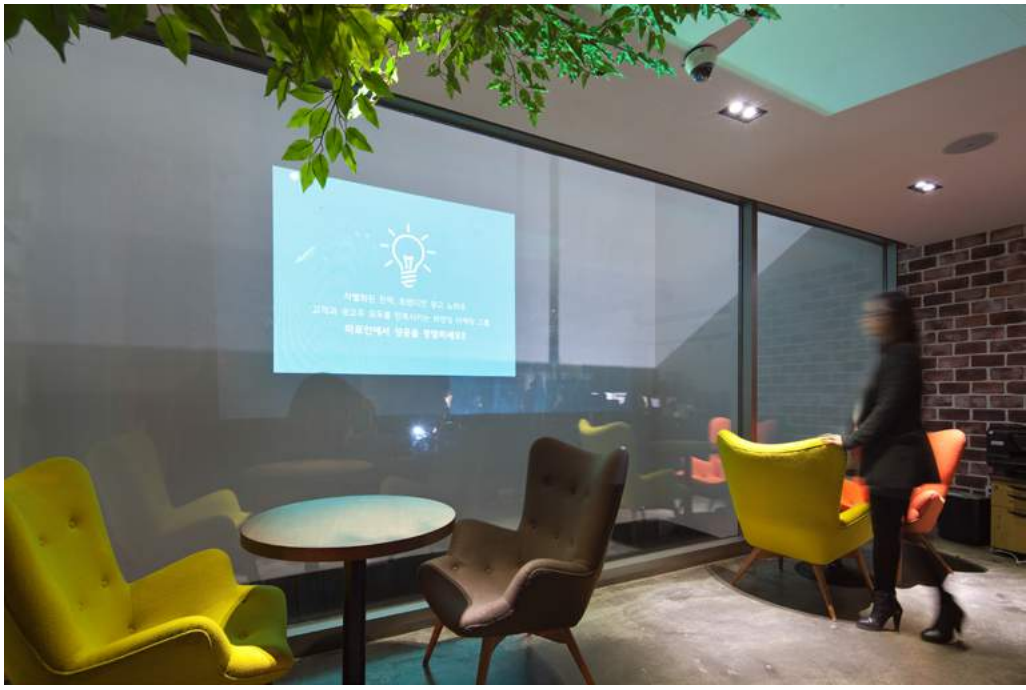
모순된 벽

다양한 건축적 제한 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면을 만들고, 그 면들을 조작하면서 볼륨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볼륨의 공간에서 다른 볼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공간과 건축물을 경험한 이용자들이 시각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촉감, 그리고 빛 등이 함께 만들어내는 장면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시각적인 외피와 지각적인 표면, 그리고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공간과 빛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경험은 이미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며 주변부의 표면들과 유리면에 비치는 또 다른 반사와 투영 이미지는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개방시켜 공간을 극적으로 확장한다.

이 건축물의 중요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요소는 2, 3층에 띄워져서 매달려 있는 벽체와 순백색의 표면이다.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 요소는 건축물 전체를 가볍고도 육중한 볼륨감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 벽체와 표면은 의도적으로 만질 수 없게 하여 모순된 벽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모순된 벽과 표면은 1층에서 진입부임을 암시하고 하늘로 열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 2층에서는 만질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지켜보는 은은한 빛우물을 감싸는 표면으로 존재하면서 다양한 영상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3층에서는 2층과는 달리 하늘과 벽의 표면이 오브랩되어 내부, 외부공간과 함께 모순된 벽임을 인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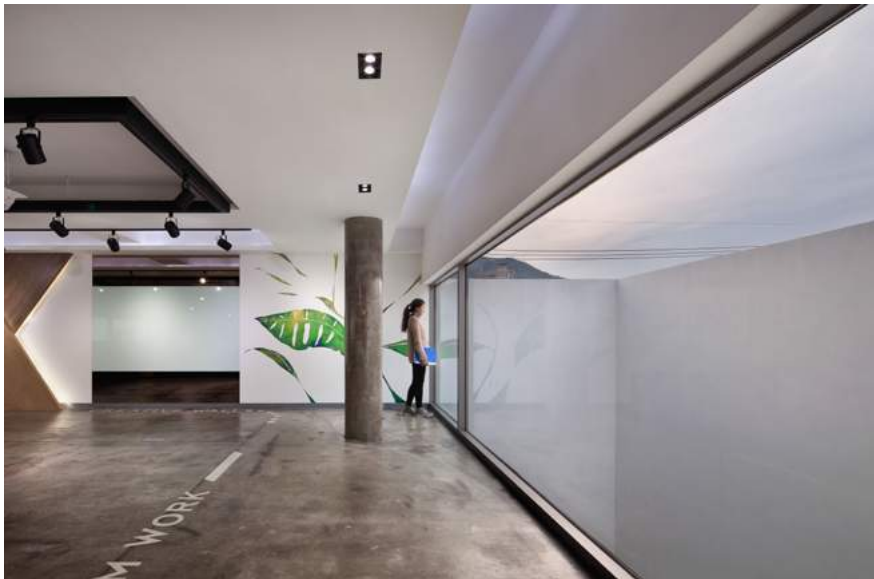






TEAM WORK

TEAM WORK


TEAM WORK

화목맨
TEAM WORK

금강 스마트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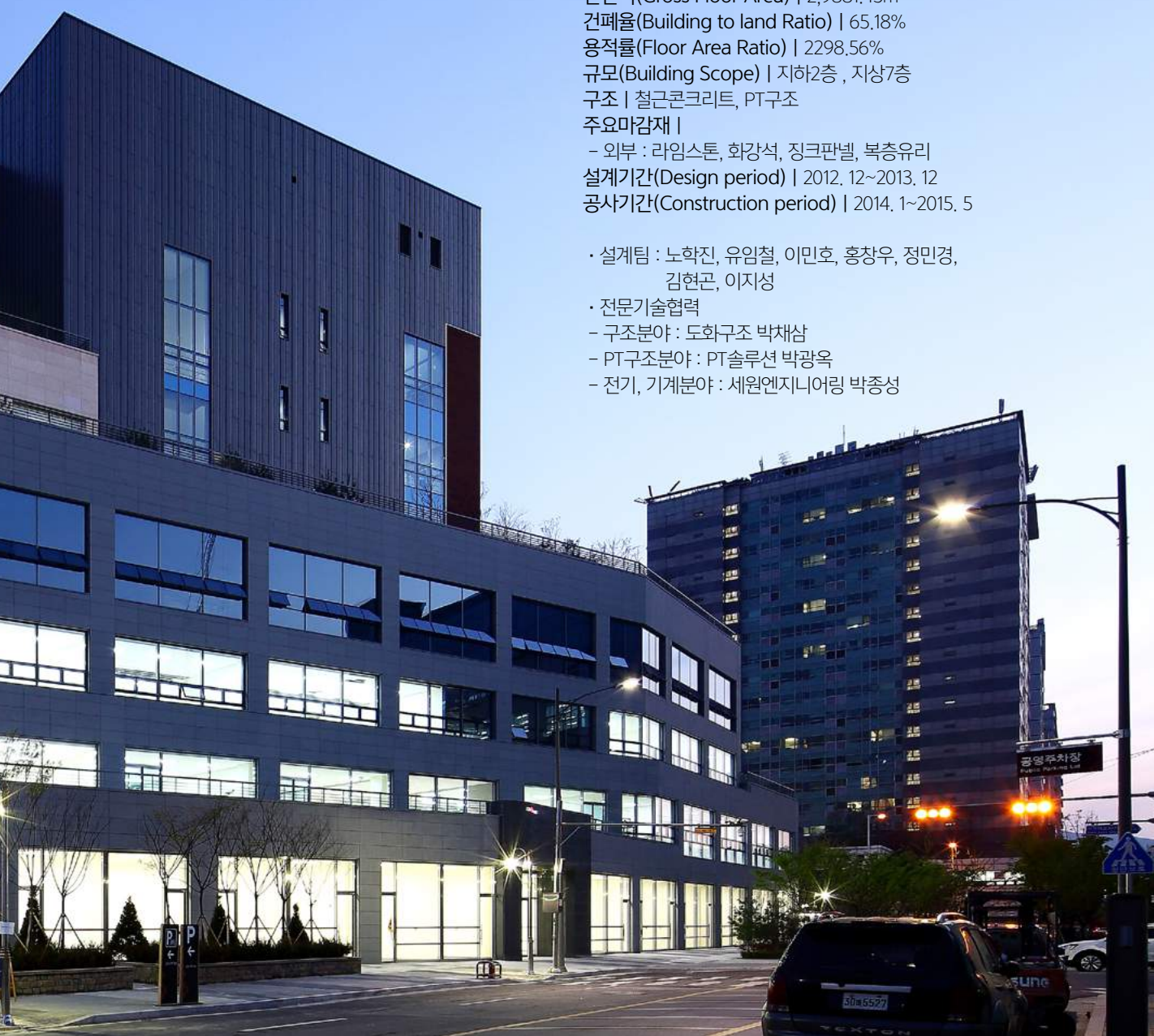
Kumkang Smart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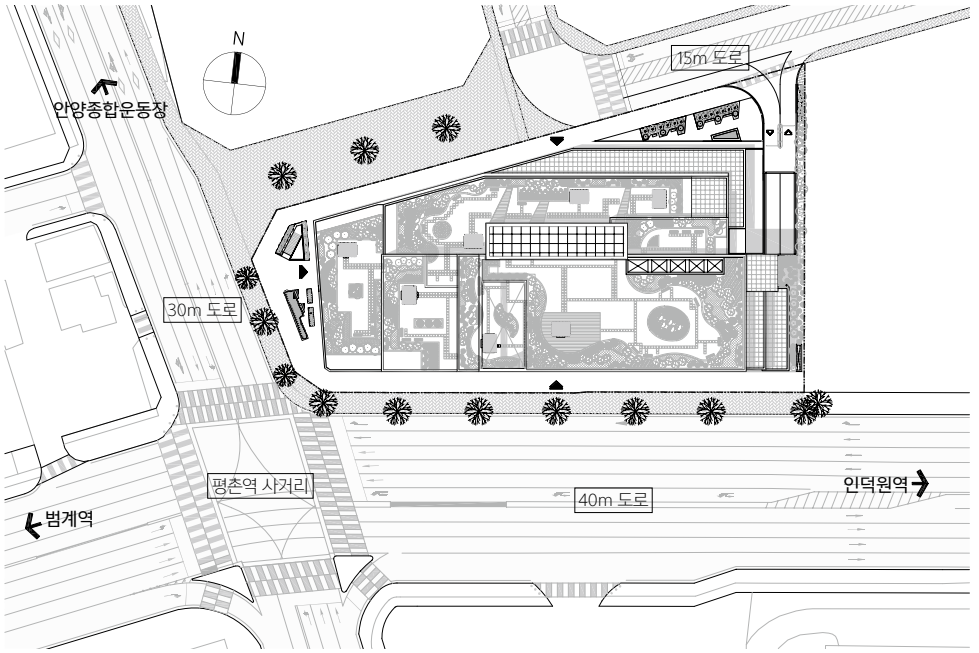
설계자 | **이동현**_KIRA |
건축사사무소 아원

건축주 | 아크로산업개발(주)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아원
시공사 | 금강종합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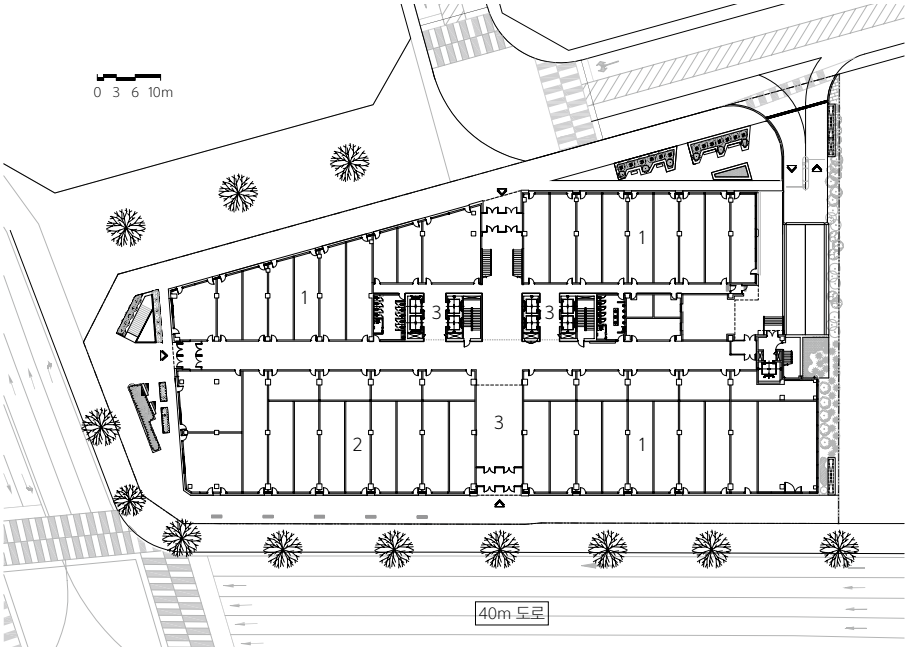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웨딩홀)
대지면적(Site Area) | 6,280.50㎡
건축면적(Building Area) | 4,093.33㎡
연면적(Gross Floor Area) | 2,9881.4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5.18%
용적률(Floor Area Ratio) | 2298.56%
규모(Building Scope) | 지하2층 , 지상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PT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라임스톤, 화강석, 징크판넬, 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12~2013.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1~2015. 5

- 설계팀 : 노학진, 유임철, 이민호, 홍창우, 정민경, 김현곤, 이지성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도화구조 박채삼
- PT구조분야 : PT솔루션 박광옥
- 전기, 기계분야 : 세원엔지니어링 박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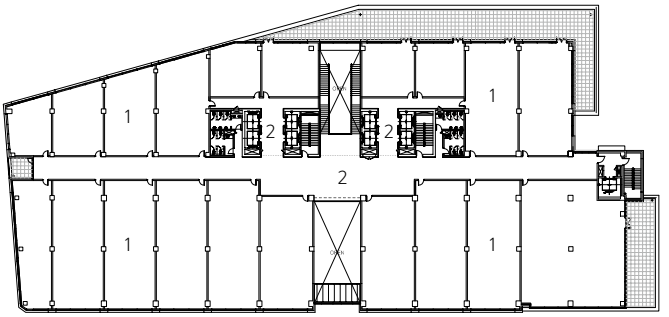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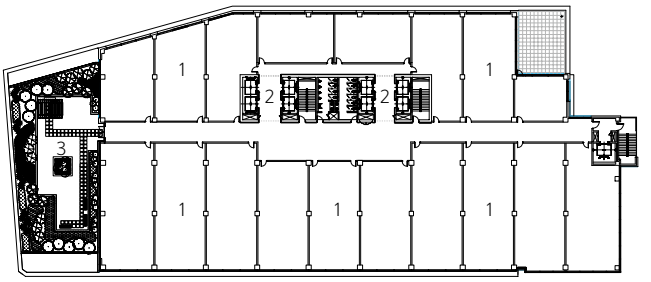
1. 상업시설
2. 업무시설
3. 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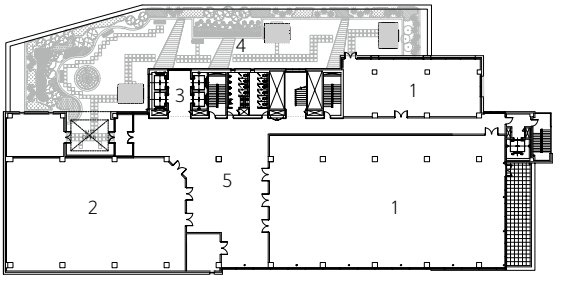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상업시설
2. 홀
3.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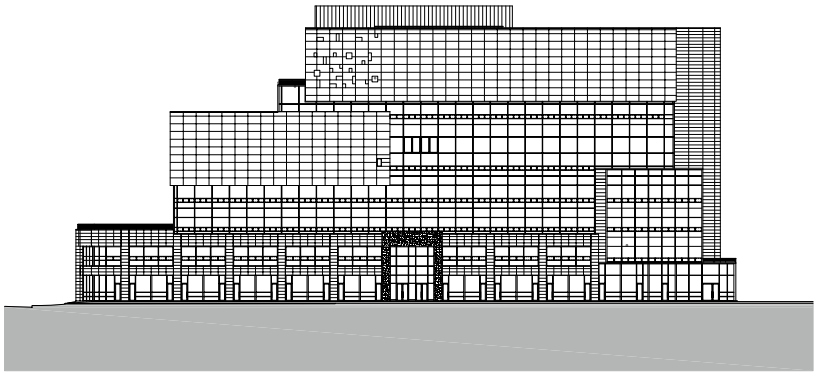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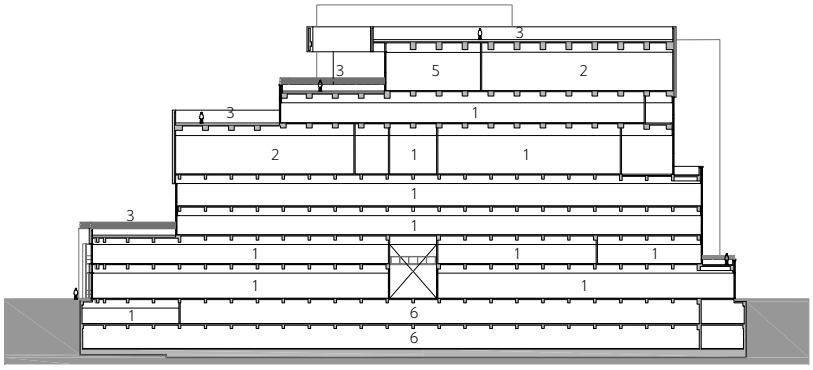
1. 상업시설
2. 문화시설
3. 홀
4. 옥상정원
5. 로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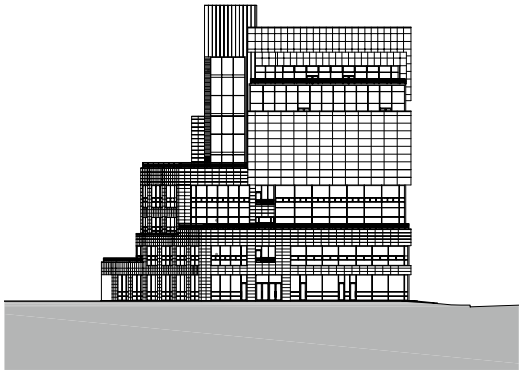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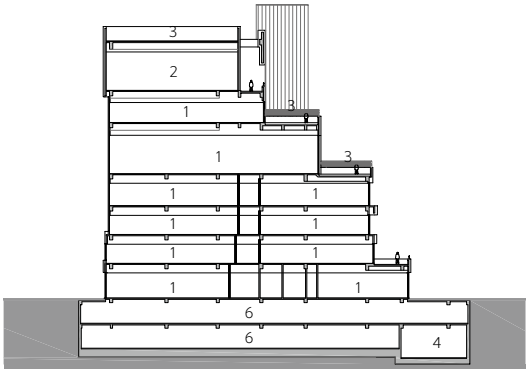


횡단면도

1. 상업시설
2. 문화시설
3. 옥상정원
4. 기계실
5. 로비
6. 주차장



우측면도



종단면도

421-4088

■ CONNECTION(연결)

건축물의 위치는 1980년대 말 국가정책의 하나로 수도권 기능 분담을 목적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평촌신도시의 스마트스퀘어 단지이다.
기존 공장의 이전으로 침체되어 있던 도시의 기능을 살리고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여러 용지의 분류로 기능을 세분화 하여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서 연구, 업무도시로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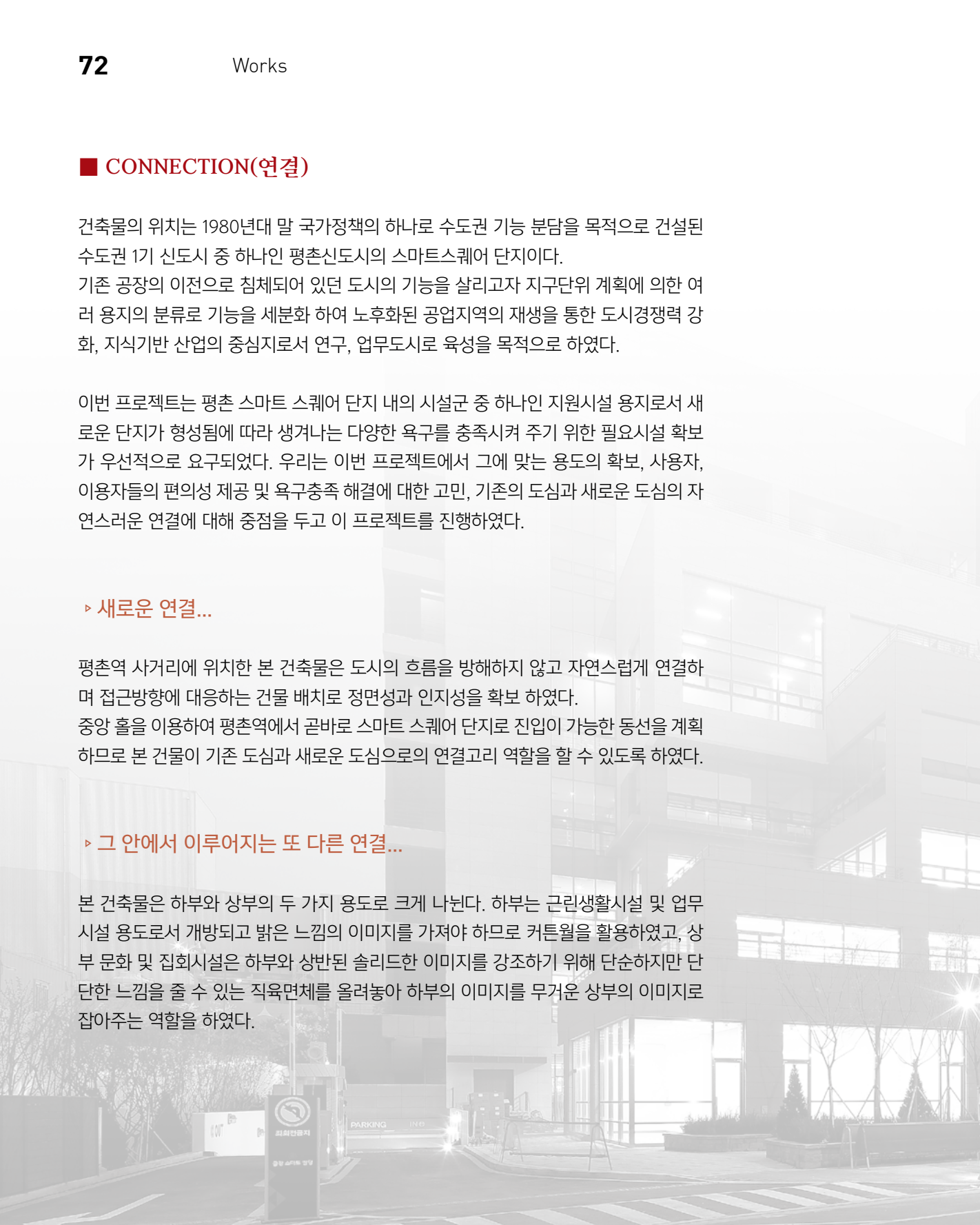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는 평촌 스마트 스퀘어 단지 내의 시설군 중 하나인 지원시설 용지로서 새로운 단지가 형성됨에 따라 생겨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필요시설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에 맞는 용도의 확보, 사용자,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공 및 욕구충족 해결에 대한 고민, 기존의 도심과 새로운 도심의 자연스러운 연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새로운 연결...

평촌역 사거리에 위치한 본 건축물은 도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접근방향에 대응하는 건물 배치로 정면성과 인지성을 확보 하였다.
중앙 홀을 이용하여 평촌역에서 곧바로 스마트 스퀘어 단지로 진입이 가능한 동선을 계획하므로 본 건물이 기존 도심과 새로운 도심으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연결...

본 건축물은 하부와 상부의 두 가지 용도로 크게 나뉜다. 하부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서 개방되고 밝은 느낌의 이미지를 가져야 하므로 커튼월을 활용하였고, 상부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하부와 상반된 솔리드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단순하지만 단단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직육면체를 올려놓아 하부의 이미지를 무거운 상부의 이미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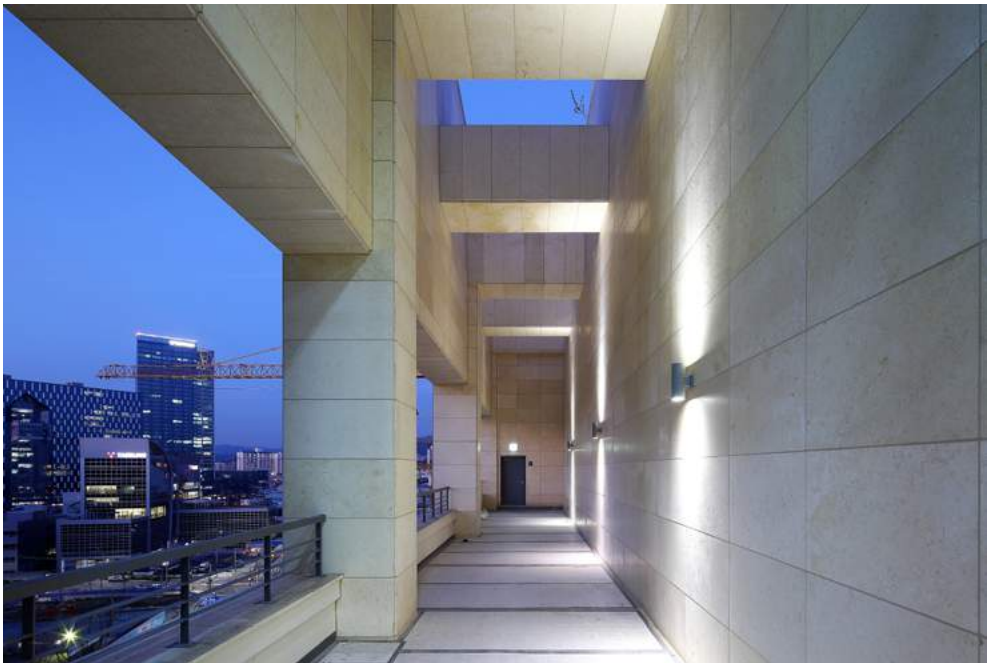
– 매번 건축물을 설계 감리 하면서 느끼는 점은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물음에 작품을 통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남겼다.

"기억하시오.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이오.
또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善)을 행하는 것이오."

– 지금 이 지원시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
이것을 사용 및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건축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건축사로서의 고민보다 한 자연인으로서의 고민이 더 큰 프로젝트였다.



경원선 철도복원 월정리역사 신축설계

Woljeong-ri Railroad Station Design Plan

발 주 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설 계 자 김종문·정승덕_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설 계 팀 김동진, 장문수, 장우진, 김배성, 나호왕, 전재오, 고지원

대지위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2489번지 일원

대지면적 37,500㎡

건축면적 3,100㎡

연 면 적 4,022㎡

건 폐 율 8.27%

용 적 률 10.72%

규 모 지상 2층

마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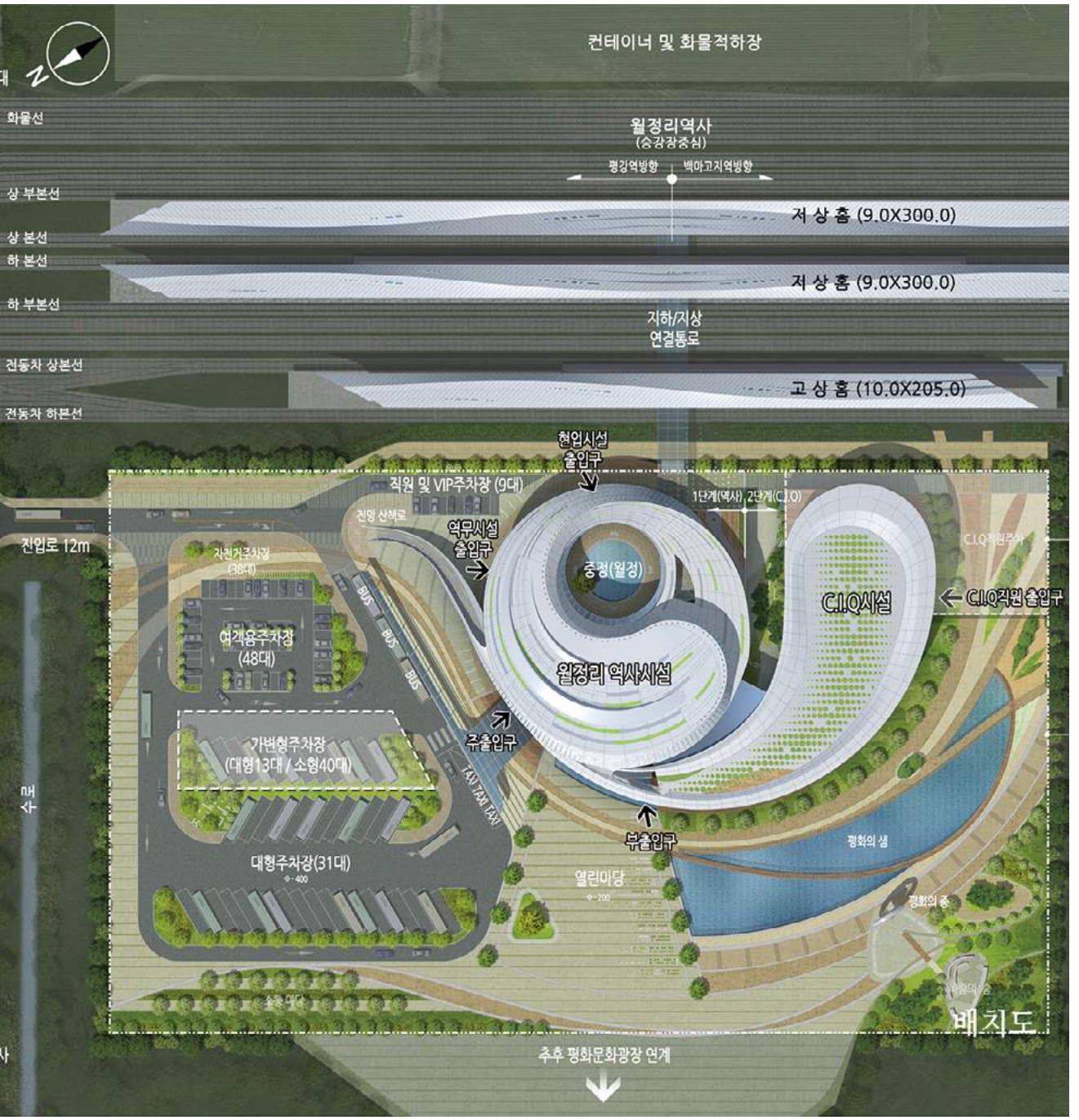
- 외부 : 로이삼중유리, 칼라강판
- 내부 : 친환경페인트, 현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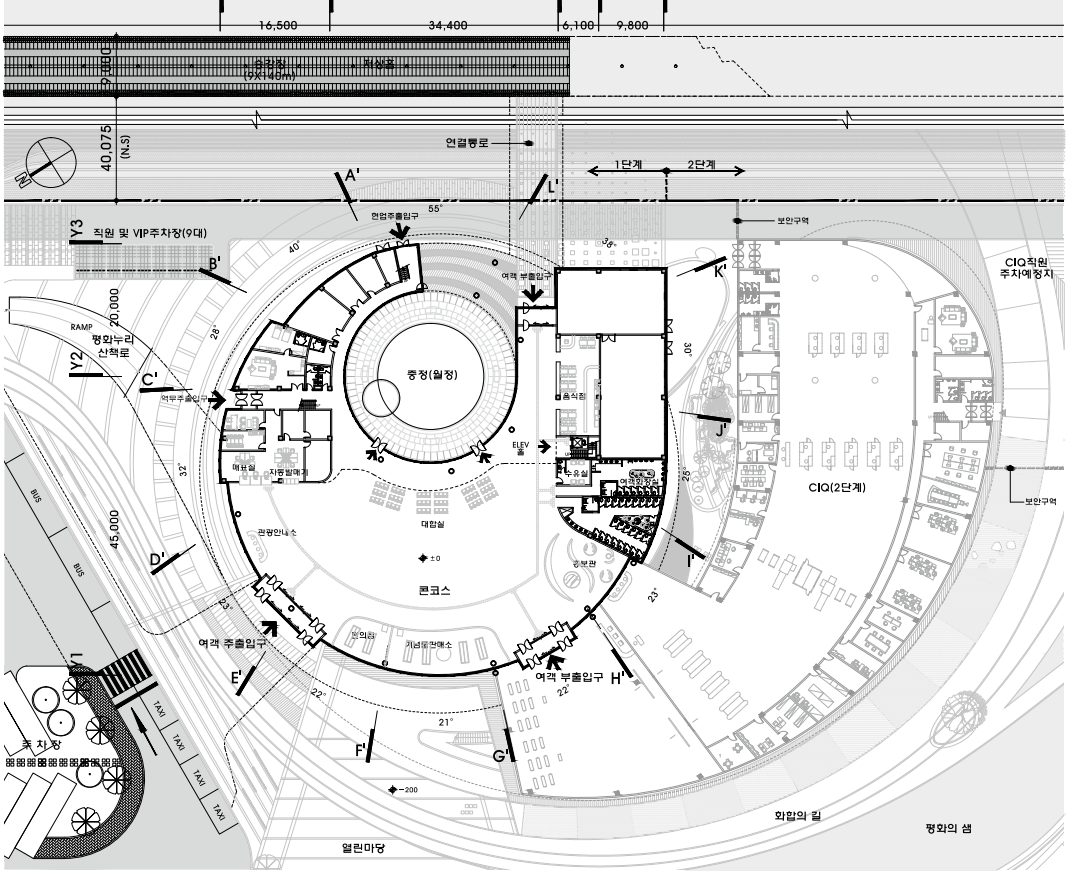
월정리역사 설계공모는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화통일 기반구축 및 DMZ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강원북부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역사건설이 주요 배경이 된 사업이다.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통일염원의 상징성이 강하게 담긴 역사를 필요로 한다.

월정리역사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철원군에서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는 남북철도 남측구간의 시종착역으로서 남북을 연결하는 단초역할을 담당할 철도역이다. 향후 대륙철도가 연결되고 통일이 되는 미래를 대비하여 무엇보다 확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정이 있는 원형의 역사형태는 확장이 용이하고, 1단계의 역사기능과 2단계의 CIQ기능과의 연계성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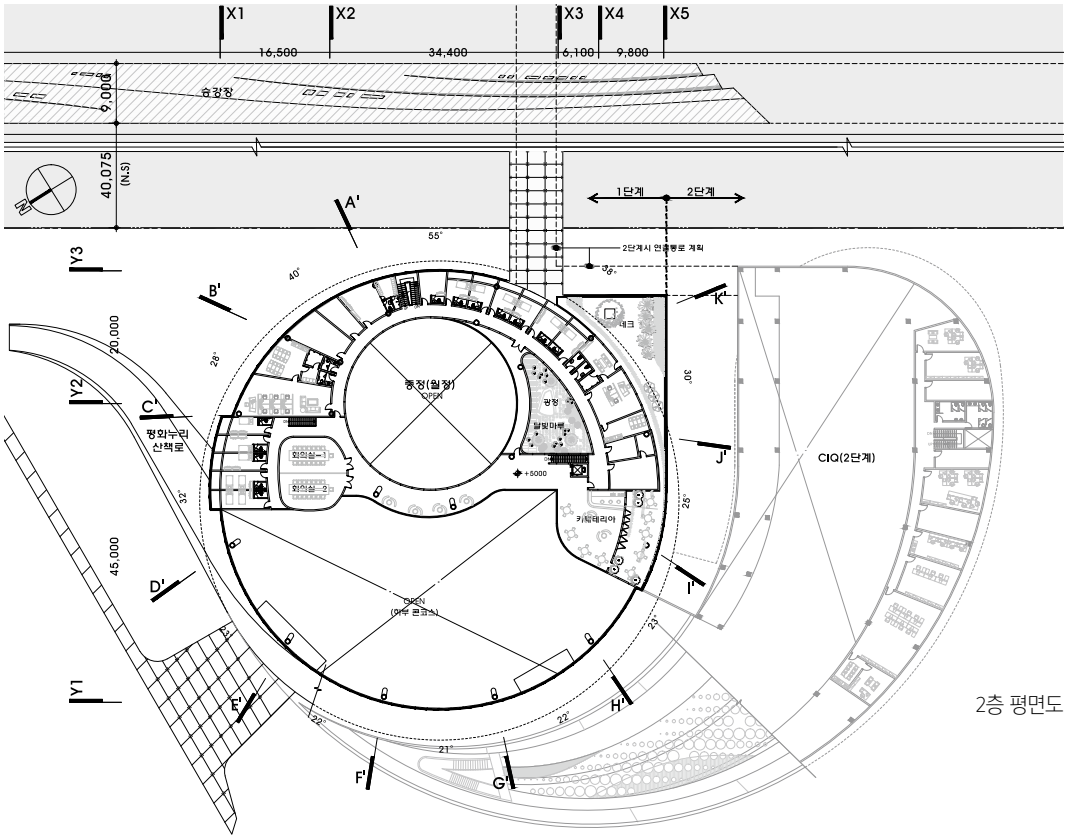
민족의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구심점 즉, "중심원"이라는 통일의 상징성을 태극의 형태로 반영한 월정리 역사는 그 안에 "월정(月井)"이라는 지역 설화의 우물과 달의 형상도 담는다. 역사의 중심에 위치한 중정인 "월정"은 월정리 설화를 모티브로 한 수공간으로 자연을 적극적으로 내부로 끌어들인 공간이자 지역홍보 공간이며, 추후 넓은 대합실로 확장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이다.

국내에서 CIQ업무를 담당하는 경의선 도라산역사, 동해선 제진역사에 이어 경원선 월정리 역사까지 설계공모에 당선됨으로서 국내 CIQ기능을 가진 역사를 모두 설계하는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만큼 민족의 의미 있는 역사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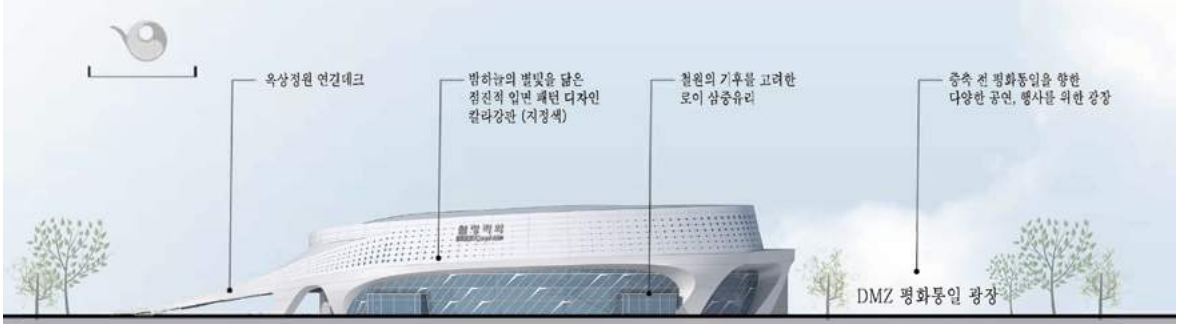

컨테이너 및 화물적하장
화물선
월정리역사
(승강장중심)
평강역방향
백마고지역방향
상 부본선
상 본선
하 본선
하 부본선
저 상 홈 (9.0X300.0)
저 상 홈 (9.0X300.0)
지하/지상
연결통로
전동차 상본선
전동차 하본선
고 상 홈 (10.0X205.0)
현업시설
출입구
직원 및 VIP주차장 (9대)
1단계(역사), 2단계(C.I.Q)
진입로 12m
진입 산책로
역무시설
출입구
중정(월정)
C.I.Q시설
C.I.Q직원 출입구
자전거주차장
(38대)
여객용주차장
(48대)
BUS
BUS
BUS
월정리 역사시설
가변형주차장
(대형13대 / 소형40대)
주출입구
TAXI TAXI TAXI
부출입구
평화의 생
대형주차장(31대)
열린마당
평화의 중
배치도
추후 평화문화광장 연계


16,500
34,400
6,100
9,800
9,000
40,075
(N.S)
연결통로
1단계
2단계
A'
L'
Y3
직원 및 VIP주차장(9대)
B'
K'
CIQ직원
주차예정지
20,000
RAMP
평화누리
산책로
Y2
C'
중정(월정)
J'
CIQ(2단계)
45,000
D'
I'
콘코스
여객 주출입구
E'
여객 부출입구
H'
F'
G'
주 차 장
TAXI
화합의 길
평화의 샘
열린마당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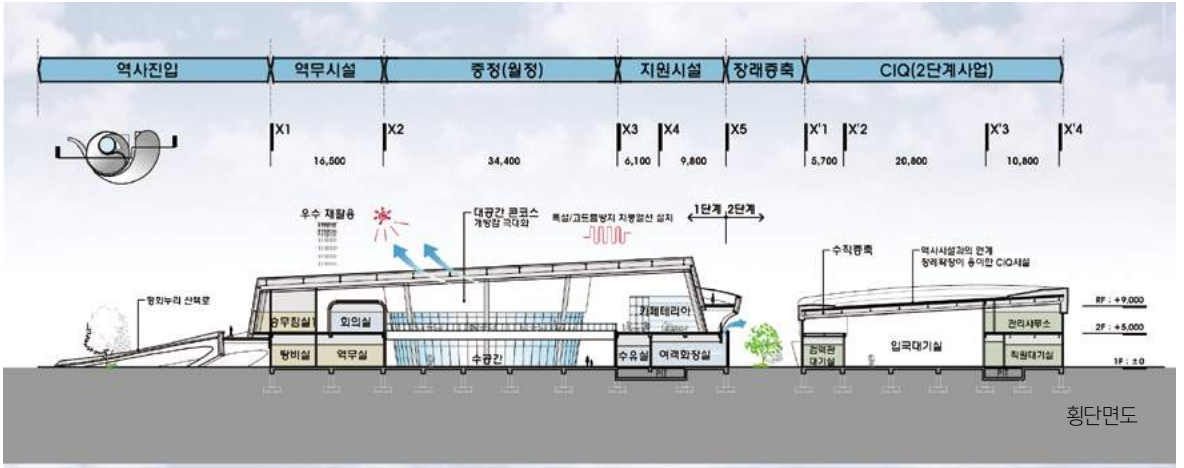

X1
X2
X3
X4
X5
16,500
34,400
6,100
9,800
9,000
40,075
(N.S)
1단계
2단계
A'
Y3
B'
K'
20,000
Y2
C'
평화누리
산책로
중정(월정)
OPEN
J'
CIQ(2단계)
45,000
D'
I'
Y1
E'
H'
F'
G'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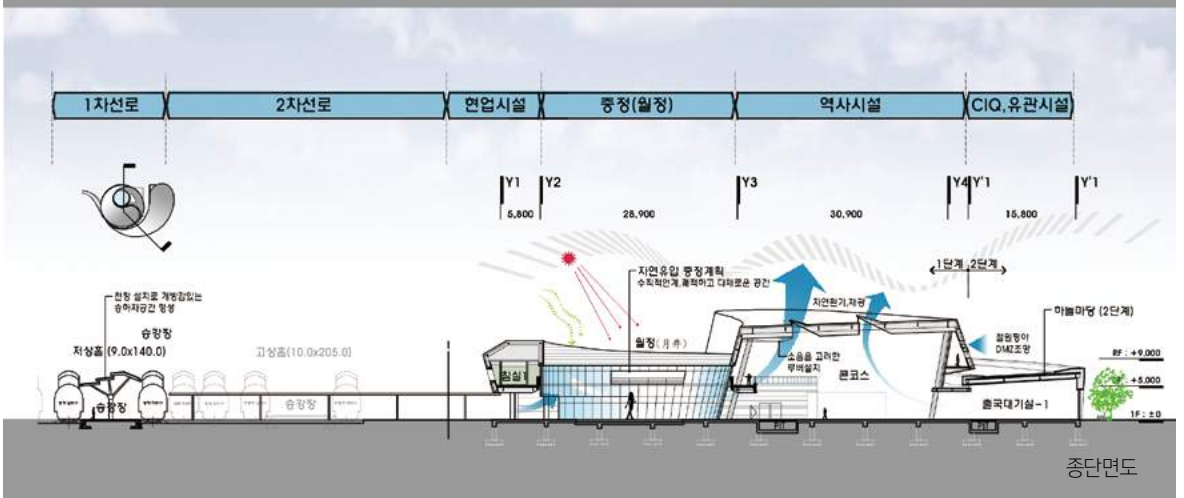


정면도 1단계시

정면도 2단계시



횡단면도



종단면도

경원선 철도복원 월정리역사 신축설계

Woljeong-ri Railroad Station Design Plan

발 주 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설 계 자 김종문·정승덕_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설 계 팀 김동진, 장문수, 장우진, 김배성, 나호왕, 전재오, 고지원

대지위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2489번지 일원

대지면적 37,500㎡

건축면적 3,100㎡

연 면 적 4,022㎡

건 폐 율 8.27%

용 적 률 10.72%

규 모 지상 2층

마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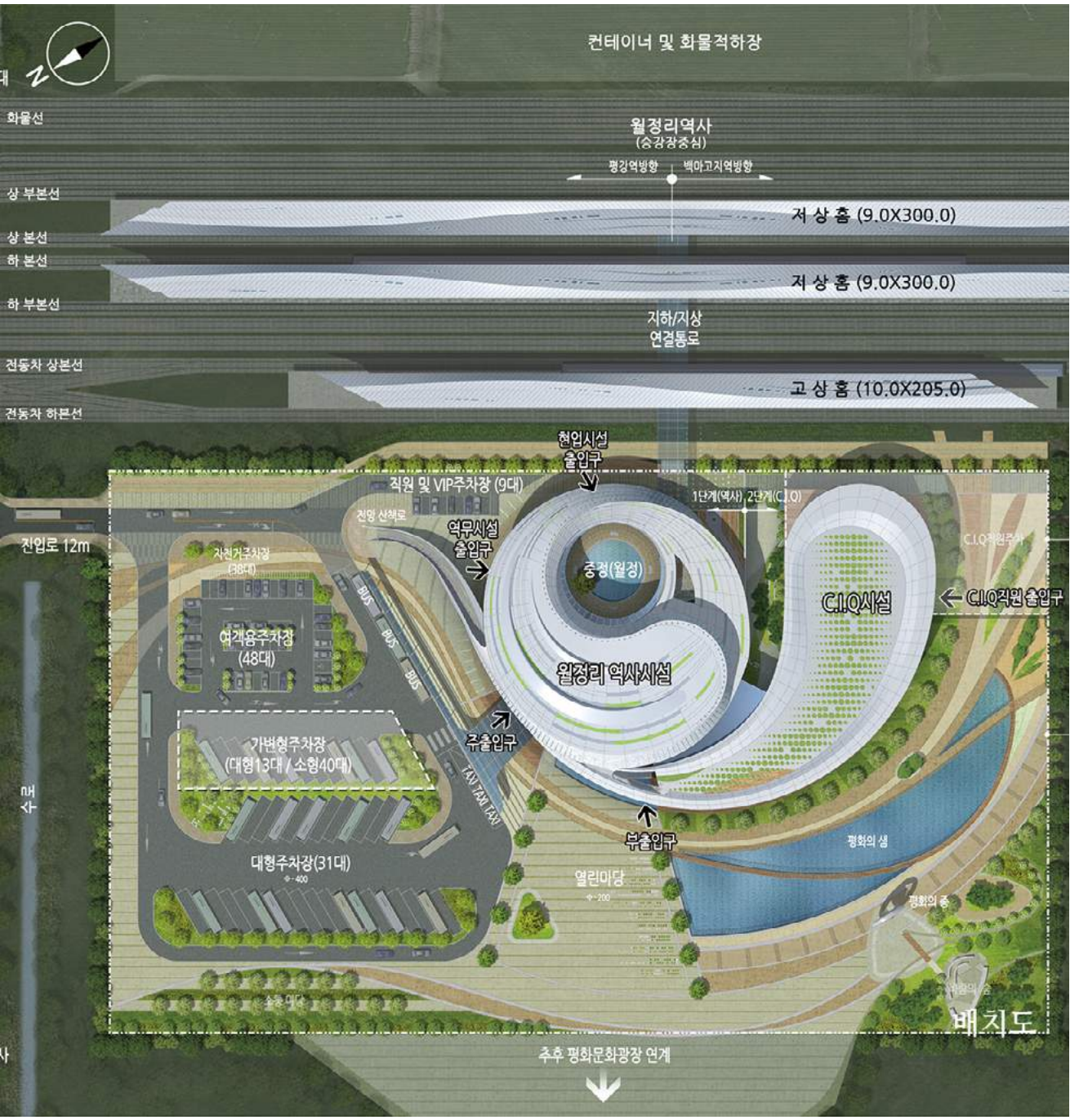
- 외부 : 로이삼중유리, 칼라강판
- 내부 : 친환경페인트, 현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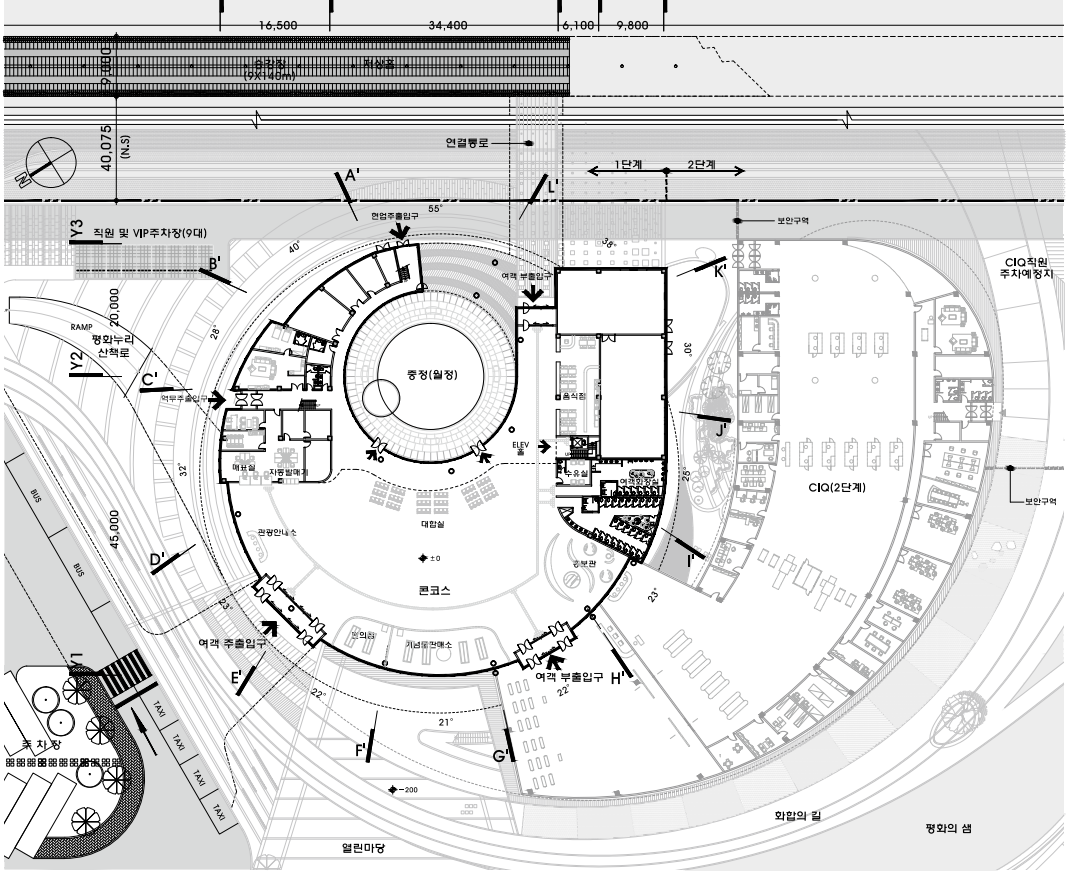
월정리역사 설계공모는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화통일 기반구축 및 DMZ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강원북부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역사건설이 주요 배경이 된 사업이다.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통일염원의 상징성이 강하게 담긴 역사를 필요로 한다.

월정리역사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철원군에서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는 남북철도 남측구간의 시종착역으로서 남북을 연결하는 단초역할을 담당할 철도역이다. 향후 대륙철도가 연결되고 통일이 되는 미래를 대비하여 무엇보다 확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정이 있는 원형의 역사형태는 확장이 용이하고, 1단계의 역사기능과 2단계의 CIQ기능과의 연계성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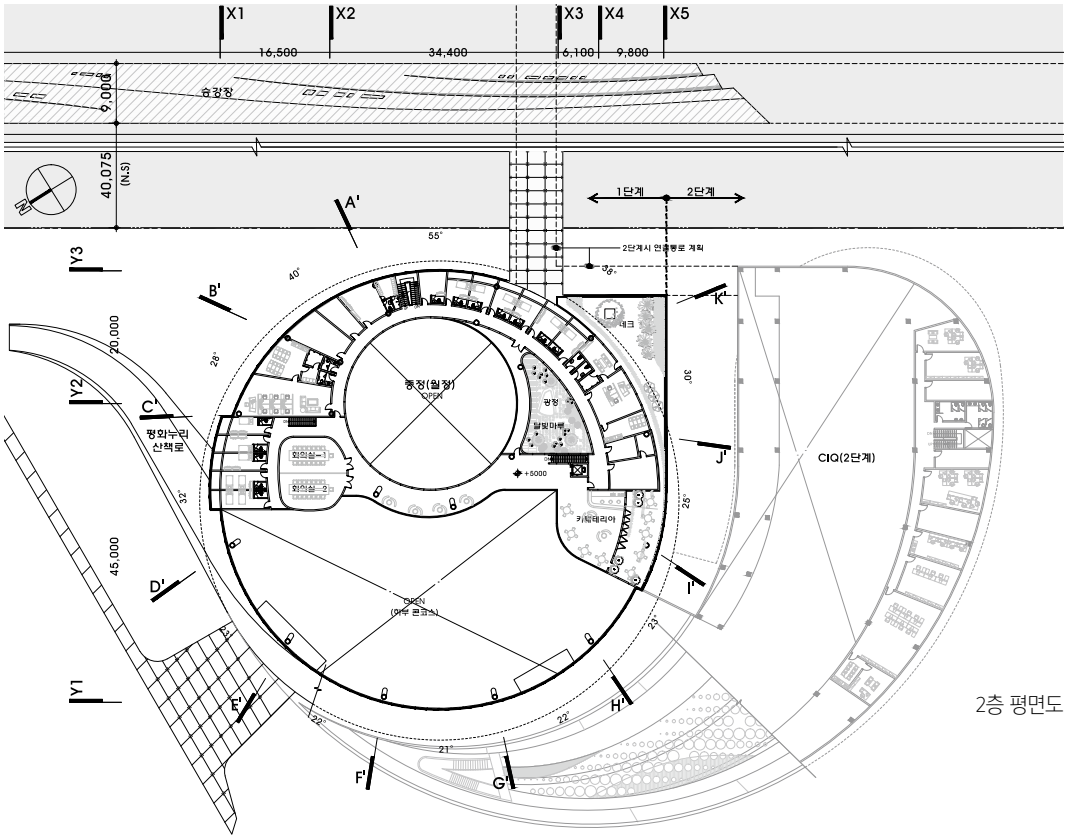
민족의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구심점 즉, "중심원"이라는 통일의 상징성을 태극의 형태로 반영한 월정리 역사는 그 안에 "월정(月井)"이라는 지역 설화의 우물과 달의 형상도 담는다. 역사의 중심에 위치한 중정인 "월정"은 월정리 설화를 모티브로 한 수공간으로 자연을 적극적으로 내부로 끌어들인 공간이자 지역홍보 공간이며, 추후 넓은 대합실로 확장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이다.

국내에서 CIQ업무를 담당하는 경의선 도라산역사, 동해선 제진역사에 이어 경원선 월정리 역사까지 설계공모에 당선됨으로서 국내 CIQ기능을 가진 역사를 모두 설계하는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만큼 민족의 의미 있는 역사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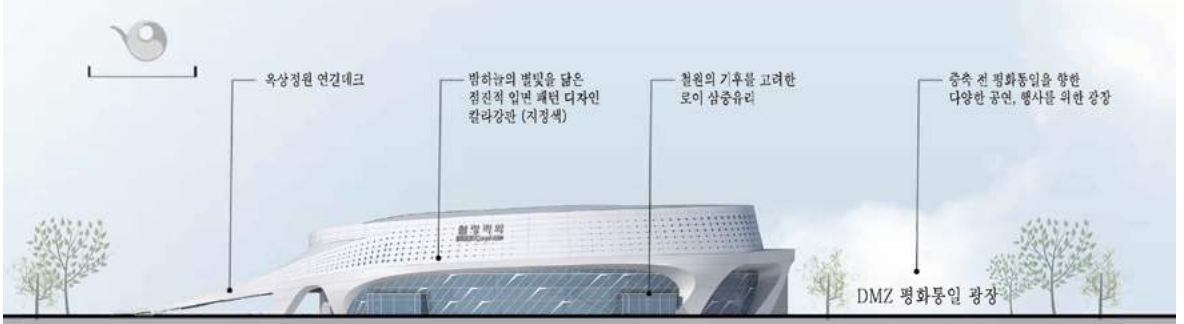

컨테이너 및 화물적하장
화물선
월정리역사
(승강장중심)
평강역방향
백마고지역방향
상 부본선
상 본선
하 본선
하 부본선
저 상 홈 (9.0X300.0)
저 상 홈 (9.0X300.0)
지하/지상
연결통로
전동차 상본선
전동차 하본선
고 상 홈 (10.0X205.0)
현업시설
출입구
직원 및 VIP주차장 (9대)
1단계(역사), 2단계(C.I.Q)
진입로 12m
진입 산책로
역무시설
출입구
중정(월정)
C.I.Q시설
C.I.Q직원 출입구
자전거주차장
(38대)
여객용주차장
(48대)
BUS
BUS
BUS
월정리 역사시설
가변형주차장
(대형13대 / 소형40대)
주출입구
TAXI TAXI TAXI
부출입구
평화의 생
대형주차장(31대)
열린마당
평화의 중
배치도
추후 평화문화광장 연계


16,500
34,400
6,100
9,800
9,000
40,075
(N.S)
연결통로
1단계
2단계
A'
L'
Y3
직원 및 VIP주차장(9대)
B'
K'
CIQ직원
주차예정지
20,000
RAMP
평화누리
산책로
Y2
C'
중정(월정)
J'
CIQ(2단계)
45,000
D'
I'
콘코스
여객 주출입구
E'
여객 부출입구
H'
F'
G'
주 차 장
TAXI
화합의 길
평화의 샘
열린마당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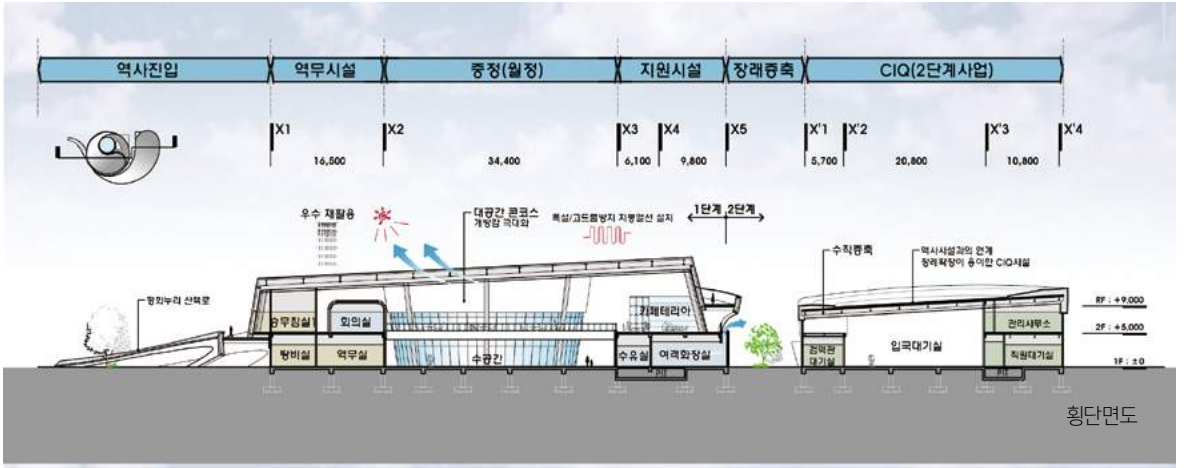

X1
X2
X3
X4
X5
16,500
34,400
6,100
9,800
9,000
40,075
(N.S)
1단계
2단계
A'
Y3
B'
K'
20,000
Y2
C'
평화누리
산책로
중정(월정)
OPEN
J'
CIQ(2단계)
45,000
D'
I'
Y1
E'
H'
F'
G'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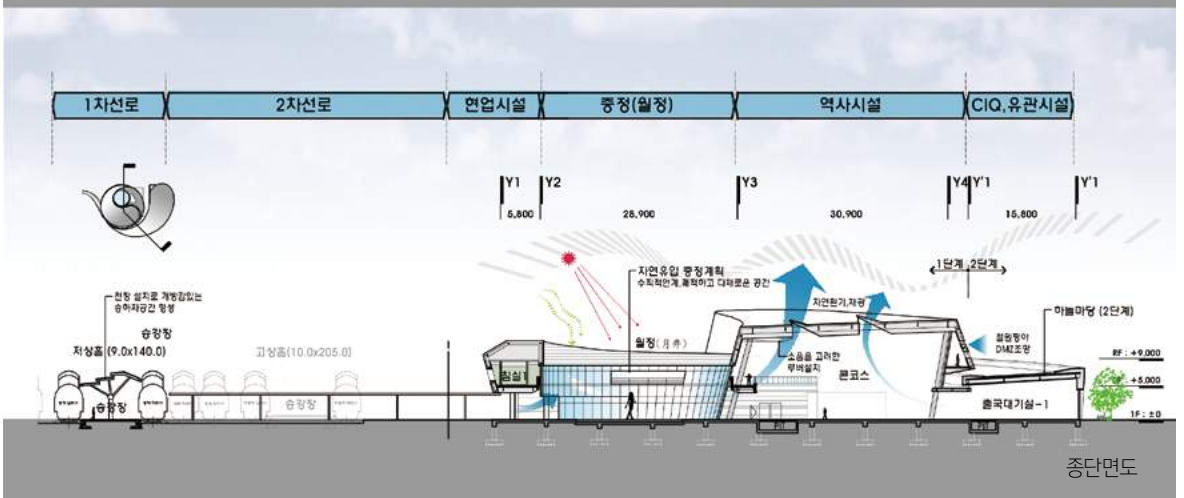


정면도 1단계시

정면도 2단계시



횡단면도



종단면도

파라메트릭 디자인 VI

Parametric Design VI

글. 성우제_ Sung, Woo-jae
Grimshaw Architects / Associate
www.woojsung.com, www.selective-amplification.net

지난 두 회 동안 살펴보았던 예들은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진 상이한 프로젝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오메트리의 특성 및 특정 상황에서의 거동을 미시적인 층위에서 이해한 뒤 이를 파라메트릭 모델로 변환하고 거시적인 층위에서의 설계 최적화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념적 특성상의 공통점으로 인해 사용하였던 기술적인 방법 또한 미분방정식의 개념을 차용하는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부참조를 통한 recursive process를 이용한 설계 최적화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몇 회에 걸쳐서 이야기 드렸던 '파라메터 및 파라메트릭 툴'의 개념을 명확히 전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몇 회에 걸쳐서 살펴볼 내용들은 좀 더 실용적이고 때로는 즉물적인 층위에서의 파라메트릭 툴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프로젝트는 Miami에 위치한 luxury residential tower로 local architect에 의해 zoning과 법규 검토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저층부의 podium에는 리테일과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주차장이 계획되었고 타워부분은 저층부의 one bed unit들과 중층부의 two bed unit들 그리고 고층부의 three bed unit들 및 penthouse들로 계획되었습니다(fig.1).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지역 zoning에 의해 건물의 massing이 확정되고 층별 및 위치별 실들이 계획된 후 였으므로 design architect인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어떠한 외피를 설계할 것인 가였습니다. Miami의 기후적인 특성 (tropical monsoon climate zone), water fr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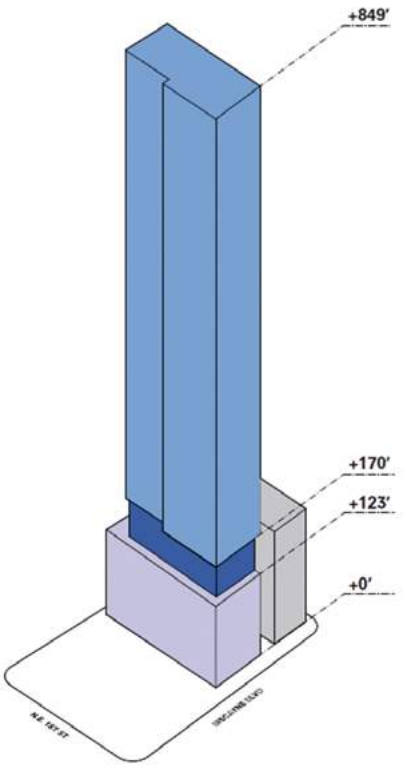


Figure 1

area인 대지의 지리적인 특성 및 기존 주변 건물의 배치를 고려하여 중층 및 고층부의 주거 유닛에서는 water front area및 주변 도시를 향해 가능한 많이 열려 있어 조망과 환기를 확보하고자 했고 저층부의 커뮤니티 시설에서는 적정레벨의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염두에 두었으며, 주차장에는 지역 법규에 지정되어 있는 차단 screen을 제공하여 환기와 street level로부터의 시각적인 차단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적인 면 이외에 luxury residential tower의 특성상 건물자체가 가지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독창성이 추후 건물의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했습니다.

바다 물결의 부드럽고 미묘한 표면의 움직임과 texture, 그물의 강하지만 유연한 구조, 그리고 연중 강렬한 태양아래 시시각각 변화하는 섬세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나뭇잎의 잔 줄기(leaf vein pattern)를 큰 그림 삼아 적층되어지는 layer들로 구성된 건물의 외피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indoor/outdoor living을 위해 주거 유닛 최 외측에 계획된 loggia를 감싸게 됩니다(fig.2/3).

이제 남은 문제는 적층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외피의 투명도/불투명도가 외피 이면에 존재하는 실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정의하고 이를 파라메트릭 모델로 풀어내는 것

Figure 2

Figure 3

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피의 투명도/불투명도는 서로 다른 형상의 패턴을 가진 레이어의 적층을 통해 만들어지며 어느 정도의 투명도/불투명도가 요구되는지는 위치하고 있는 실의 수직적인 위치의 함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건물의 슬래브와 칼럼에 직접 연결이 되어 전체적인 외피를 지지하는 구조체로 작동하게 됩니다. 건물의 아래 부분에서는 대각선 형상을 띠어서 구조적인 안전성 및 시각적인 차폐요소가 되며 위로 올라갈수록 시각적인 개방감을 가지는 육각형으로 변화하다가 최상층에 접근할수록 구조체인 칼럼과 슬래브에 정렬하는 사각형으로 변화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slab cover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층부에서는 시각적인 차폐를 위해 대각선형태로 slab에 부착되며 위로 올라갈수록 slab에 정렬되어 시각적인 개방감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레이어

는 column cover로 고안되었고 마찬가지로 저층부에서는 대각선 형태로 시각적 차폐를 하게 되며, 고층부에서는 column에 정렬되어 시각적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마지막 레이어는 주차장의 스크린 규정을 맞추기 위한 좀 더 섬세한 레벨의 wire mesh screen이 계획되었으며 이는 커뮤니티 시설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개방감 및 투명성을 주는 mesh screen으로 바뀌게 됩니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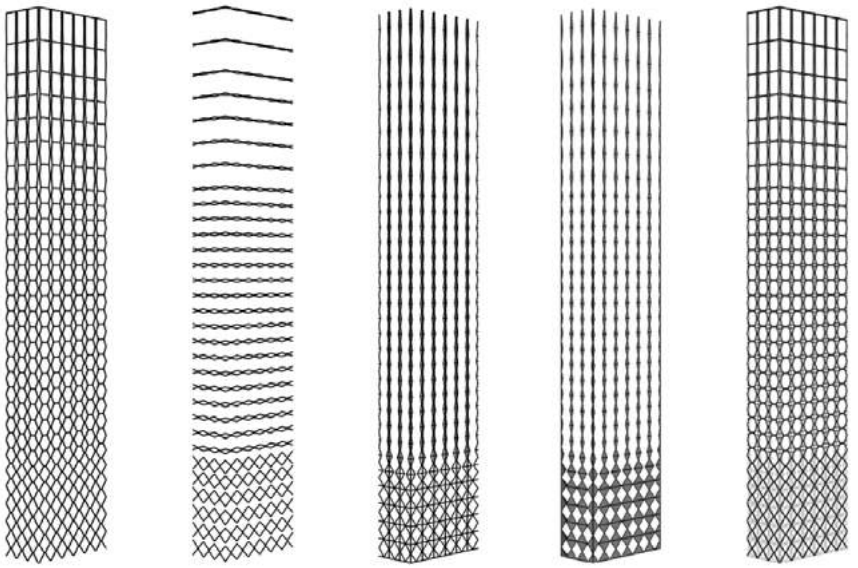


Figure 4

이제 글을 시작하며 잠시 언급했던 parameter와 디자인의 관계로 잠시 돌아가 보면 외피의 디자인은 투명도/불투명도의 함수로 정의될 수 있으며, 투명도/불투명도는 외피 이면의 프로그램이 가진 특성(주거, 커뮤니티, 주차장)의 함수가 되며, 또다시 프로그램이 가진 특성은 높이의 함수(프로그램은 높이에 의해 배치되었음으로)로 정의됩니다. 결국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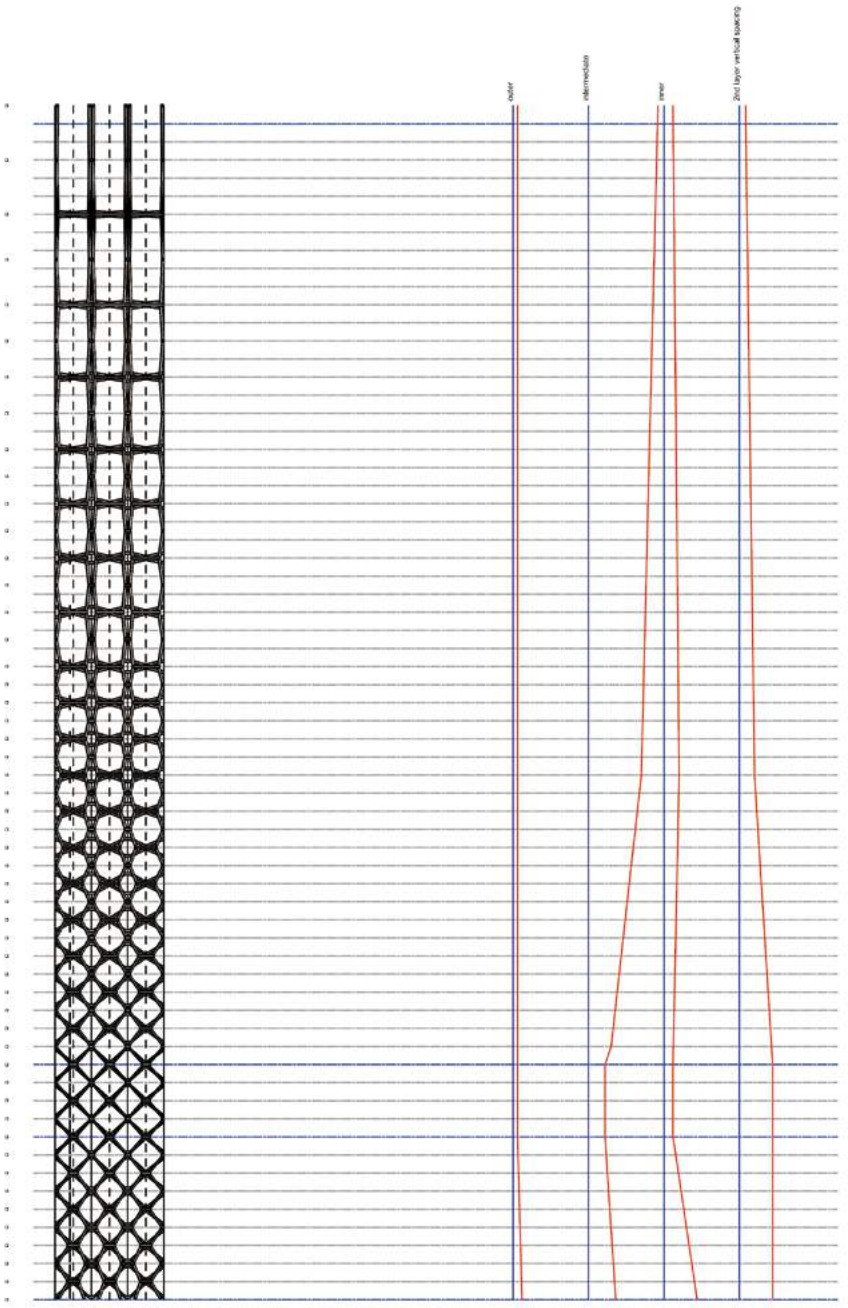


Figure 5

수 속의 함수를 통해 얻어지는 외피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parameter는 결국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레이어 별로 높이에 의한 변화의 정도를 조절하고자 각 레이어 별로 높이를 변수로 하는 그래프들을 설정하였고, 이는 모든 layer가 적층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layer 및 높이라는 변수가 전체적인 디자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디자인을 다듬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fig. 5).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패턴의 이면에는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아주 단순한 하나의 parameter만이 존재하고 이러한 parameter를 가공하고 함수화 및 이를 통한 추가적인 변수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디자인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단순한 논리'라는 미학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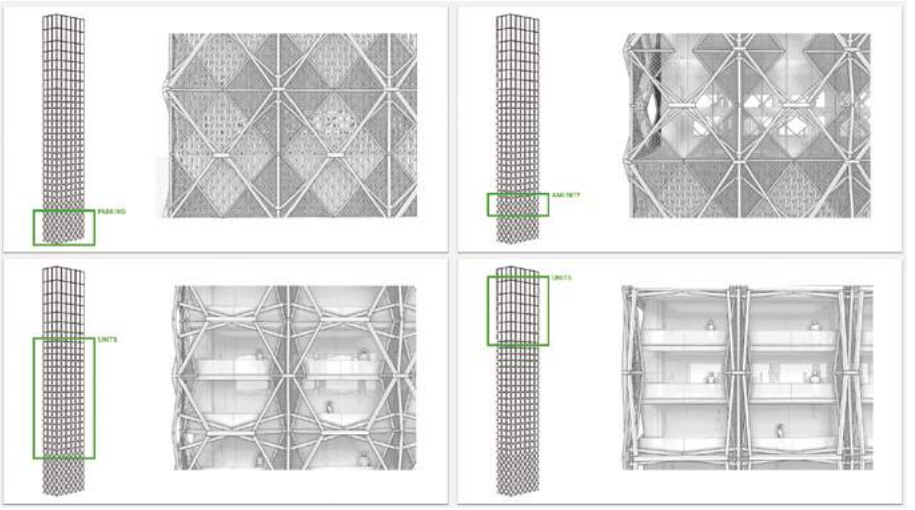


Figure 6

건축 유형의 새로운 해석

_ Neri & Hu Design and Research Office

New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al styles
_ Neri & Hu Design and Research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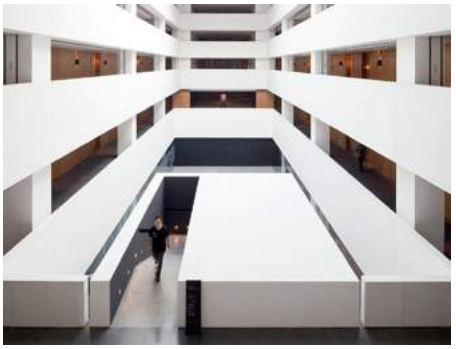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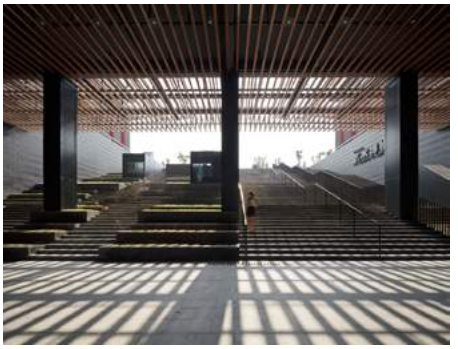
글. 이지현_ Lee, Ji-hyun
jihyun.lee815@gmail.com

이번 호에 소개할 그룹은 상해에 베이스를 둔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 Neri & Hu Design and Research Office이다. 이들의 작업은 주로 중국의 전통과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한다. 많은 경우 기존에 있던 건물을 개조(renovation)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독특한 현대성을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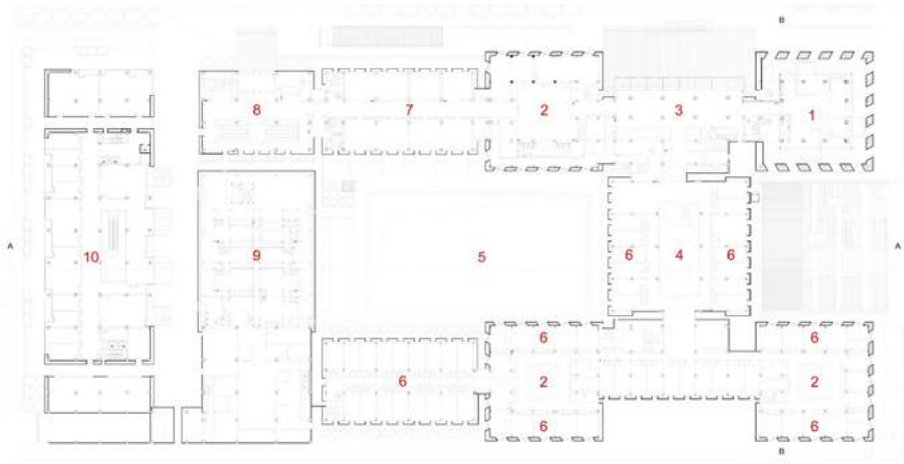
01 Westin 호텔/박물관, 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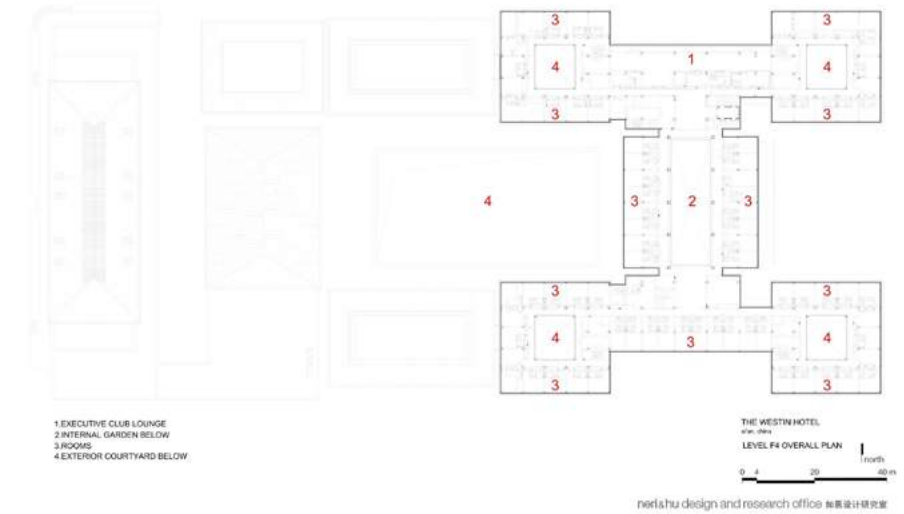
3000년의 역사를 뒤로 한 시안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써 진시황의 병마용 뿐 아니라 여러 건축적・문화적 유물의 집약지로 유명하고, 이 도시가 간직하고 있는 각기 다른 시대적 건축적 양식만 해도 7가지나 된다. Westin 호텔이 이곳에 들어오고자 했을 때 그들이 착안한 것은 박물관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즉 호텔에 머물면서 유물을 관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들이 서로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원한 것이다.

이들은 이 도시에 오랜 시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어진 건축적 원형/유형(prototype/typology)인 직사각형 형태의 중정을 핵으로 두고 연결된 매스들이 기능을 가지고 위계

westin hotel _ 1





nerl&hu design and research office 加筑设计研究室

westin hotel _ 2

1.LOBBY LOUNGE
2.INTERNAL GARDEN
3.MUSEUM
4.INTERNAL COURTYARD
5.EXTERIOR COURTYARD
6.ROOMS
7.MUSEUM ENTRY
8.BALLROOM
9.CHINESE RESTAURNT
10.RETAIL

SECTION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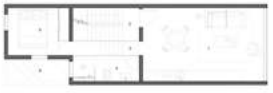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관찰하고 Westin 호텔+박물관에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천창으로 비춰진 게스트를 맞이하는 중심 공간을 둘러싸면서 300여개의 객실이 배치되고 각각의 개별적 공간으로 이동할 때마다 프로그램이나 공간의 분위기, 성격이 달라지도록 설계하였다. 도시 전체가 육중한 돌과 푸른색, 붉은색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유로써 어두운 석고와 돌로 전체적인 벽 및 지붕을 마감하였다. 필연적으로 방문자는 호텔까지 다다르는 건축적 경험이 도시의 성곽의 연속으로써, 즉 전체에서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건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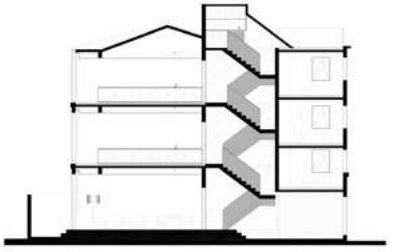
한 중정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무거움과 가벼움의 대비되는 인식은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하는데, 이는 마감재료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건물의 외벽에서 중국 성곽의 육중함을 느꼈다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됨에 다라, 물의 반사와 반투명한 유리로 비치는 대변되는 공간이나, 대나무로 윤곽을 잡고 절제 있게 루버로 마감되어 있는 곳곳의 공간은 대조에 의해서 그 가벼움이 더 강조된다. 이는 건물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장난기 있게 살짝 올라가져 있는 지붕선의 역사적 은유와는 다르게 현대적이고 미니멀리스트적인 인테리어 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다. 검고 붉은 건물의 외부 색감과는 달리 무채색을 간결히 처리하는 내부공간의 또 다른 대비는 이들이 관람객들에게 유도하는 과거-현재 사이를 시각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무거운 과거의 역사를 떠안은 Westin 호텔의 두께는 재치 있게 가벼워진다.

02 Laneway House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상해

Laneway House란 좁은 길을 끼고 일렬로 빽빽하게 나열된 주거유형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주거유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밀도를 유지하면서 프라이버시를 가진 안뜰이나 중정 등 공용공간을 사이사이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서양의 현대건축에서도 흔히 되풀이된다.
Laneway House는 상해에서 1930년대에 도시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지어졌으나 조금씩 현대 도시 정책 상의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

을 점차 감추었다. 최근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해 Tianzifang 지역에 현재 껍질만 남아있는 Laneway House 한 유닛을 세 개의 아파트로 리노베이션하는 임무를 받게 된 이 건축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집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도시를 밀집하게 하는 병렬적 배열)을 건축주의 요구에 맞추어 개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laneway house

이 주거유형은 좁은 길에 일렬로 주거유닛들을 배열해야 했고 한 가족이 한 유닛을 다 점유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길 양쪽으로 방과 거실 등이 계단을 중심으로 어긋나게 배치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방의 위치를 유지한 채 세 유닛이 한 열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이 집의 유형적 특징을 최대한 살리면서 삽입, 분할의 작업을 거치고 채광이나 privacy의 간섭 없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제안한다.

기존의 계단을 세 가구를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요소로 두고 기존의 나무구조를 유지한 채 매스감을 강조하기 위해 짙은 색으로 도장한 철판으로 외장Cladding하였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가장 은밀한 위치에 있어야 할 것 같은 화장실을 계단의 사이사이 남는 공간을 이용하여 추가하였다. 화장실 마감은 Sanding Glass로 처리하였고 이처럼 메탈과 글래스라는 재료가 자아내는 중량은 계단 위쪽으로 난 큰 채광창을 통해 빛 아래 "순수하게" 빛나면서 강조된다.
뒤뜰을 향해있는 거실 등의 방은 최대한 투명하게 창틀/frame도 없이 전체 파사드에 홀연히 끼워져 있지만 이를 받치고 있는 벽 Cladding의 어두운 검은색으로 건축사들은 이 건물이 길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1930년대의 상해는 각 열강들의 세력이 중국 자신들의 것과 혼재하는 정치・경제적 급변기였다. 이 주거유닛이 연상케 하는 밀집성, 이 주거유형을 통해 경험하는 "도시성"은 이들이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건축재료나 분위기에 그치지 않고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기억, 더 나아가서 현재 삶이 경험되는 방식까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건축사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What to do in the case of architects notified of disciplinary action

글. 김주덕_ Kim, Choo-deok ·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Ⅰ.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건축사가 이런 것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들을 정리해서 몇 회에 걸쳐서 연재한 바 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대개의 경우 딱딱한 주제일 수밖에 없고, 법률문제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말로 되어 있고,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우선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운 주제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실무적으로 필요하고 긴요한 분야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어려운 건축사징계를 주제로 골랐다.

건축사라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주할 공간이다. 인간에게 집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이고, 자연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집을 설계해서 건축하게 함으로써 주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건축사다.

현대 사회에서 건축물은 단순한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예술적 표현을 하는 문화공간의 장이 되었다. 건축물의 설계를 평생 하는 직업이란 매우 보람 있고,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대부분의 건축사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건축사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업인은 고도의 직업적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과 규정, 윤리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사책임, 형사책임, 징계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업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건축주, 시공업자뿐 아니라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까지 구속되는 뉴스가 보도되어도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이며, 그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 당하는 우발적인 사건·사고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업무대행건축사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되고, 징계처분을 받아도 남의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이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 건축사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는 다른 민사나 형사책임은 제외하고 건축사에게 행해질 수 있는 징계처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보기로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가? 징계사유는 무엇인가?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가? 징계절차에서 건축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소송은 어떻게 하는가? 등을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징계를 받으면 대단히 고통스럽다

최근에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다. <OO시는 불법을 조장한 건축사 9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OO시는 2015년 공사장 35곳의 상주감리자 실태조사와 건축사 위탁건축물 사후점검을 펼친 결과, 상주감리 미이행과 불법건축물 조장행위를 한 건축사 9명을 적발해 업무정지 1개월에서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를 보면, OO시에서는 한 달에 걸쳐 공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상주감리자가 제대로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불법건축물 공사에 대한 묵인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이는 건축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도청이나 시청에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건축사들을 무더기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건축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몇 달 동안 업무정지처분이 되면,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고, 직원들을 놀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징계처분을 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절차나 행정심판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밟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건축사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어 장기적으로 영업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행정청을 속이고 위장하여 사실상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면, 또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을 행정청으로 받는 건축사는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Ⅲ. 어떠한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를 할까?

건축사는 왜 징계를 받게 되는가? 원래 징계라 함은 특별한 조직사회에서 구성원에게 내부적으로 가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고등학교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처분을 생각해 보자. 그가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같은 또래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퇴교, 정학, 근신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내부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 직위해제, 파면 등의 징계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조직,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이 법령이나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조직에서 추방하는 이른바 파면, 퇴교조치 등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그런데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 산하 각 시도건축사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특수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내부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건축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건축사는 법률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자격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축사에 대해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

축사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으면,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내부의 징계처분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접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Ⅳ.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건축사는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징계처분은 건축사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징계사유는 건축사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다. 건축사는 자격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등록하고 갱신해야 한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건축사 자격등록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축사는 거의 없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건축사는 윤리선언문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같은 8개항으로 되어 있다. ⓐ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 건축사는 인종 · 종교 · 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건축사는 윤리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에 의해 윤리선언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건축사가 이러한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③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는 그 이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건축사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④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건축사가 거짓으로 업무 실적 등을 제출하게 되면 징계대상이 된다.

⑤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⑥ 건축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⑦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⑨ 건축사가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Ⅴ.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징계가 되는가?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서울 같으면, 관할 구청에서 청문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고, 징계처분결정을 한다. 그러면 해당 건축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징계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면, 건축사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도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누가 하는가? 다시 말하면 징계처분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관하여는 건축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일차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장관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3년이라는 기간은 이른바 징계시효에 해당한다. 아무리 중한 사유라 해도 일단 행위시, 위반시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징계처분과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시효는 지났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건축사 징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에서는 건축사 행정처분 통보서를 보낸다. 통보서에는 처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사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 등의 사유를 적고, 업무정지기간을 정해서 통고를 한다. 통고서에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한다. 행정청에서는 청문통지 및 의견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에서 건축사에게 행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건축사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을 하는 것이다.

VI. 부당한 징계처분, 이렇게 대응하라

건축사가 행정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기관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 달라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아닌, 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시 심판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건축사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90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대부분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는 징계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각하라는 제도는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기 전 단계에서 청구를 각하해버리는 것이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되거나 기각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가운데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취소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다.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Ⅶ. 대한건축사협회 내부의 징계는 무엇인가?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및 시도건축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직 내에서의 내부 징계대상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는 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4조 제1항). 제명을 받은 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제54조 제2항). 제명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처분보다 중하지 아니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Ⅷ. 맺는 말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면서, 건설회사와 건축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설계와 감리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다. 이 때문에 건축사에 대한 징계도 날이 갈수록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건축사는 행정청에 대한 관계는 언제나 '을'의 입장에서 약자가 된다. 그것은 행정청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계처분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행정청과 싸우기는 쉽지 않다. 웬만해서는 징계처분을 당해도 불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고, 더 이상 다투어보았자 시간과 비용 낭비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하는 수 없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는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건축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자세히 읽어보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면,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위법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Architectural Odyssey : **The Abys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글. 김홍기_ Kim, Hong-ki ·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재 목차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 성미술 운동의 본질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4. 롤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 현대건축의 실험실
5. 루이스 칸과 킴벨미술관 / 건축의 본질을 찾아서
6.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 테크롤로지 미학의 배후
7.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 디아스포라의 유산
8. 물성과 표층의 미학 / 샤우라거와 헤르조그 앤 드 뫼롱
9. 마리오 보타와 장 팅겔리 미술관 /호모 루덴스의 미학
10. 호세 루이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낭만적 건축의 배후
11.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공감각 예술과 건축
12. 안도 다다오와 랑엔파운데이션/ 폐허 속의 예술공동체
13. 요셉 호프만과 스토클레저택 / 총체예술의 원류

10

낭만적 건축의 배후
호세 루이스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Josep Luis Sert and Maeght Foundation

그림 1) 매그 파운데이션, 호세 루이스 세르트 설계, 1964, 생폴 드 방스

호세 루이스 세르트(Josep Luis Sert, 1902–1983)의 이름은 다소 낯설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들추면 범상치 않은 건축사임을 알 수 있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근대건축의 이론을 공급한 CIAM(근대건축국제회의)의 의장직을 맡았고,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학장을 맡아 퇴임하는 1969년까지 건축교육에 힘썼다. 필립 존슨이 그를 두고 '현대건축을 리딩한 주역 가운데 한사람'이라고 평한 것은 거장들의 시대와 3세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생애 두 개의 명품 미술관을 남겼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미로재단 미

술관(Miro Foundation)과 프랑스 남부 생폴 드 방스에 위치한 매그재단 미술관(Maeght Foundation). 둘 모두 독특한 낭만적 조형을 보여준다.

매그재단 미술관은 세 명의 서로 다른 캐릭터에 의해 건설된다. 화상이자 컬렉터인 건축주 에매 매그(Aime Maeght), 건축사 호세 루이스 세르트, 이들과 친구 사이였던 화가 호안 미로(Hoan Miro) 세 사람이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을 탄생시키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프랑스에서 민간자본으로 지어진 최초의 미술관. 마티스와 브라크, 샤갈, 보나르, 미로, 레제, 자코메티 등 20세기 현대 미술을 이끈 작가들의 7천여 작품을 소장한 매그 재단 미술관을 통해 건축사와 화가, 컬렉터가 호흡을 같이한 밀월의 순간들을 추적해 보자.

그림 2) 매그 파운데이션이 위치한 생폴 드 방스의 전경

생폴 드 방스, 현대미술의 산실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칸으로 이어지는 감청색 꼬다쥐르(Cote d'Azur) 해안 인근에 화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신인상파 화가 폴 시냑이 이 지역에서 빛을 발견한 이후 조르주 세라와 피에르 보나르, 라울 뒤피, 앙리 마티스 등 수많은 화가들이 풍광이 아름다운 남프랑스 일대를 찾았다.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면 단연 생폴 드 방스(Saint Paul de Vence). 니스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숲길을 50여분 달리면 고색창연한 언덕 정상에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중세 성곽 마을이 시야에 들어온다.

16세기 무렵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에 의해 로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귀족들이 살던 요새였던 생폴 드 방스는 알프스의 끝자락이 바다로 이어지는 구릉 정상에 위치에 있어 빼어난 전망을 갖고 있다. 60여개의 작은 화랑과 공예품점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좁은 골목길을 오르다 보면 우리네 산비탈 달동네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하면 좋을 텐데 하는 부러움과 시기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마을과 가장 인연이 깊은 화가는 마르크 샤갈이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전쟁 중 유태인 박해를 피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1950년 생폴 드 방스에 자리를 잡았고, 98세로 숨을 거둘 때까지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마티스도 인근 방스에 살았고 브라크와 자코메티는 생폴 드 방스에서 수시로 여름과 겨울을 보냈다. 당대 문화를 주도하던 철학가와 시인, 소설가들의 발걸음도 잦았다. 샤르트르와 시몬느 보바르가 즐겨 찾았고 이브 몽탕과 시몬 시뇨레는 이곳에서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그레타 가르보와 소피아 로렌, 그레이스 케리 같은 영화배우들도 찬사를 보낸 이곳은 화가들의 고향이자 예술인들의 순례지 같은 곳이었다.

이처럼 이곳이 '현대미술의 산실'이자 문화의 순례코스로 확고히 자리 잡은 데는 1964년에 완공된 매그 재단 미술관이 큰 역할을 했다. 하늘로 치켜 올라간 미술관의 지붕선은 미로의 조각을 빼닮았고, 광장에 설치된 뼈대만 남은 자코메티의 조각에서 육신은 죽었지만 정신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실존의 느낌을 강하게 전달받는다. 연간 20만 명이 찾는 매그 미술관이야말로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이라는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림 3) 매그 파운데이션 진입로

프랑스 최초의 사립 미술관, 위대한 탄생

1964년 7월 28일, 4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매그 재단 미술관 낙성식이 성대하게 열린다. 문화부장관 앙드레 말로의 기념 연설이 행해지자 박수 소리가 구릉 아래로 메아리쳤다. 호안 미로, 알베르토 자코메티, 마르크 샤갈. 훗날 미술사에서 거목으로 불리는 예술가들의 모습도 여럿 보이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설립자 에매 매그였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대부분의 미술관 설립자들이 거대한 기업을 소유하거나 막대한 부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데 비해 그는 난민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자수성가형 인물이었다.

에매 매그는 1906년 4월 47일 프랑스 북부 철도산업의 요충지 아제브루(Hazebrouk)에서 4남매의 맏이로 태어난다. 여덟 살 되던 해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부친 알프레드 매그는 징집되어 군용열차에 몸을 실은 뒤 불귀의 객이 된다. 어머니는 자식 넷을 이끌고 적십자 구호 단체의 주선으로 중립국인 네덜란드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며 갖은 고생을 겪은 후 남프랑스의 님(Nime)으로 이주하여 난민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다져나갔다. 님 공과대학에서 판화를 전공해 채색기술을 배운 그는 칸에 있는 인쇄업체에 입사하여 석판공으로 사회 첫발을 내디뎠다. 1928년에는 화상의 딸 마르게리트 드베이와 결혼했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칸의 벨주가에 'ARTE'라는 상호로 가구소품과 라디오를 파는 상점을 열었다. 가게 한켠 여유 공간에 인쇄실을 차리고 벽면 여백에 지방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남프랑스의 색채에 매료된 화가 피에르 보나르(Bonnard Pierre)를 처음 만났고, 그를 통해 화가와 조각가들을 하나 둘씩 알게 된다.

그림 4) 매그 미술관 개막식에 참석한 앙드레 말로(왼쪽)와 설립자 에매 매그 (중앙)

1943년 에매 매그는 니스로 삶터를 옮겨 화랑을 열었다. 화랑에는 전쟁을 피해 파리에서 피난 온 화가들과 화상들의 발걸음이 잦았다. 에매 매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함으로 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그들이 파리에 남겨두고 온 미술품들을 무사히 니스로 옮길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파리를 오가면서 성심껏 도와주었다. 화가들과 신뢰가 저절로 쌓였고 그림을 보는 안목도 늘어났다.

전쟁이 끝난 1945년 마침내 파리로 진출한다. 파리 테헤란가 13번지에 '매그 화랑'(Galerie Maeght)을 개관, 첫 전시회로 야수파의 거장 마티스의 작품을 내걸었다. 마티스에 이어 조르주 브라크와 페르낭 레제의 전시회를 잇달아 열면서 외연을 확대해 나갔다. 제법 굵직한 화가들을 영입하지만 매그가 처음부터 화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레제의 작품은 터무니없는 싼 가격에도 사는 사람이 없었고, 마티스 그림 역시 거의 팔리지 않았다. 호안 미로와 마르크 샤갈이 전속 화가로 합류하지만 그들 또한 나을 것이 없었다. 전쟁 기간 미술 시장이 붕괴된 탓이었으나, 1947년 6월 매그 화랑에서 개최된 앙드레 브르통과 호안 미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이 초대된 초현실주의 전시회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상황은 반전된다. 파리 테헤란가 매그 화랑 주변에는 전시회를 보기위한 사람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루었고, 2년 후 열린 추상화전 또한 버금가는 성황을 거두면서 에매 매그의 명성은 파리 화단에 널리 알려졌다. 성공 신화는 1950년대 초반에도 계속됐고 화가들과의 교분은 깊이를 더했다.
피카소가 독일 출신의 화상 칸바일러와 친밀하게 지냈듯이, 페기 구겐하임이 초현주의 화가들과 동지적 입장을 지녔듯이, 에매 매그 역시 피에르 보나르와 호안 미로, 마르크 샤갈, 조루주 브라크, 알베르토 자코메티 같은 예술가들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었다. 보나르는 매그를 양아들처럼 사랑했고, 브라크는 마치 가족의 일원이 된 것 마냥 매그의 가족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냈으며, 아홉 살이나 연상인 미로는 그를 친구처럼 대해 주었다.
미술관을 세우게 된 동기 역시 브라크의 입에서 나왔다. 매그 부부에게는 베르나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1953년 열두 살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죽었다. 상심한 매그 부부는 삶의 욕망을 상실한 채,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고, 종국에는 파리를 벗어나 생폴 드 방스 구릉에 칩거한다. 브라크는 슬픔에 젖어있는 매그 부부에게 생폴 드 방스에 소유하고 있는 6헥타르의 땅에 미술관을 세우도록 권유했고, 레제는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미국 여행을 권했다. 레제의 권유대로 매그 부부는 미국여행을 떠난다. 필라델피아의 반스 파운데이션(Barnes Foundation)과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등을 둘러본 매그는 단순히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파는 화상의 역할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음을 직시한다. 아들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해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결심한 그는 미국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건축사를 찾

는 일에 골몰했다. 몇몇 유명하다는 미술관을 둘러보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몇 달 후 미로를 만나기 위해 스페인 마요르카 섬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자신이 찾는 건축사를 발견했다. 카탈로니아 출신의 건축사 호세 루이스 세르트였다.

마요르카 섬 호안 미로 스튜디오

쇼팽이 빗방울 전주곡을 작곡했던 곳, 그의 연인 조르주 상드가 감성적인 글을 쓰던 곳, 안익태 선생의 아내 롤리타 부인이 태어난 곳, 호안 미로가 여생을 살다가 숨을 거둔 곳. 지중해에 고요히 떠있는 마요로카 섬의 흔적은 예술 지향적이다. 스페인 본토에서 약 96킬로미터 떨어진 마요르카 섬에는 초현실주의 화가 호안 미로의 아름다운 스튜디오가 자연 속에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동심어린 지붕 모습은 콘크리트로 어쩌면 저리도 낭만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자못 감탄에 젖게 만든다. 갈매기가 날개짓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마요르카 섬에 영원히 정박하고 있는 흰 배 같기도 하다. 순백색의 지붕에 부딪혀 산란하는 빛의 환희에 에매 매그는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자연과 건축이 만들어낸 총체화된 화음과도 같았다.

그림 5)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 위치한 호안 미로 스튜디오,
호세 루이스 세르트 설계, 195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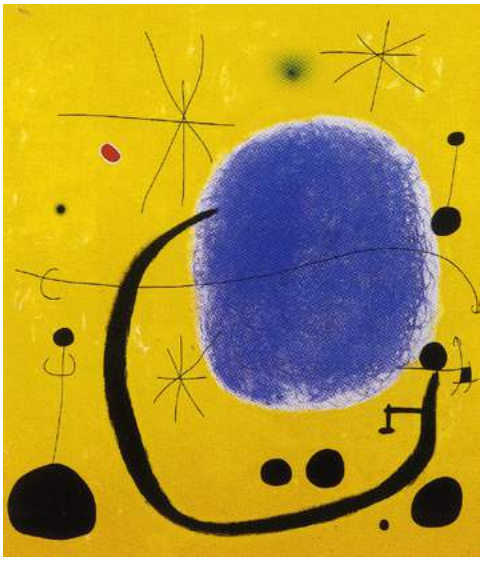


그림 6) 호안 미로, 황금빛 창공(The Gold of Azure), 1967

60세에 접어들 때까지 호안 미로는 파리와 뉴욕을 오가면서 그림을 그려왔을 뿐, 이렇다 할 아틀리에가 없었다. 파리에 머물 때도 작업실이 아닌 몽파르나스의 작은 호텔에 머물렀고, 인근 라그라드 쇼미에르 미술학교의 시설을 간간히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 아무런 장애 없이 작업에만 골몰할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이 그리웠다. 이따금 대형 벽화 작품을 제작할 때면 그러한 욕구가 강박관념으로 다가왔다. 1953년 미로는 마침내 어머니의 고향이자 아내의 고향인 마요르카 섬에 아틀리에를 마련해 정주하기로 결정한다.

바르셀로나처럼 큰 도시에 아틀리에를 마련할 수도 있었겠지만, 1937년 프랑코 정권을 비판하는 벽화 '민병'(The Reaper)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한 이후, 귀국하지 못하고 늘 피해 다니는 입장이었다. 피카소가 '게르니카'(Guernica)를 그려 프랑코 정권의 참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듯이, 미로 역시 손에 낫을 들고 두 팔을 쳐들고서 항거하는 카탈로니아 농부를 그려 프랑코 정권에 눈 밖에 난 상태였다. 스페인으로 돌아 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위험성이 농후했다. 미로는 프랑코 정부가 자신의 존재를 잊을 때까지 주민이 얼마 되지 않는 마요르카 섬의 팔마에 작업실을 짓고 운둔하며 지낼 요량이었다. 마요르카 섬은 크고 작은 열여섯 개의 섬으로 구성된 발레아레스 제도 중 가장 큰 섬으로 풍경이 아름다워 그림 그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미로는 아틀리에 설계를 호세 루이스 세르트에게 맡겼다.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건축사와 화가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모두 카탈로니아의 주도 바르셀로나 출신으로 이 지방 특유의 낭만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작곡가 에드가 바레즈(Edgard Varese), 시인 트리스탄 차라(Tristan Tzara), 조각가 알렉산더 칼더 등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과 친분을 유지했지만 미로는 카탈로니아 친구들과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해방을 느꼈다. 세르트는 미로의 아틀리에 설계를 위해 헌신을 다한다. 미국에서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담당해왔기에 화가의 작업실은 보잘 것 없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었으나, 세르트는 친구 미로를 위해 자신의 갖고 있던 건축개념을 쏟아 부었다. 1956년 모습을 드러냈다. 만곡을 이룬 백색 콘크리트의 지붕선이 화제를 모았다. 르 꼬르뷔지에의 롱샹교회당처럼 낭만성이 충만했다. 그의 건축 속에는 르 꼬르뷔지에의 조형언어가 농밀하게 충진되어 있었다.

호세 루이스 세르트와 르 꼬르뷔지에

20세기에 활동한 건축사를 그룹별로 분류할 때 1세대, 2세대, 3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 르 꼬르뷔지에((1887~1965), 미스 반 데 로에(1886~1969), 월터 그로피우스(1880~1960). 속칭 근대건축의 거장들로 불리는 이들은 모두 20세기 이전에 태어나 1960년을 전후한 시기에 사망하는데 이들을 1세대로 부른다. 이들은 근대건축의 여명기를 거쳐 전성기를 살며 근대건축의 논리를 정립했다. 이들보다 한세대 아래인 마르셀 브로이어(1902~1981), 호세 루이 세르트(1902~1983), 에로 사아리넨(1910~1961)은 2세대로 불린다. 20세기 벽두에 태어난 이들은 앞서 언급한 거장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그중 세르트는 누구보다도 르 꼬르뷔지에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1902년 바르셀로나에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세르트는 유년시절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숙부 호세 마리아 세르트(Jose Marie Sert)는 국제적으로 평판이 있는 벽화를 그리던 화가였다. 그도 숙부처럼 장래에 화가가 되길 원했으나 부친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미술대신 건축을 택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바르셀로나 에스쿠엘라 고등건축학교, 유럽 곳곳에서 모더니즘의 열기가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건축교육은 전통적인 보자르 교육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스물다섯 나이에 접어든 1926년, 모더니즘의 수도로 불리는 파리를 방문한 그는 서점에서 르 꼬르뷔지에의 저서에 시선이 꽂힌다. 르 꼬르뷔지에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청년은 호기심에 '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 '오늘날의 장식예술'('L'art decoratif d'aujourd'hui), '도시계획'(Urbanisme) 세 권 모두를 빼들었다. 르 꼬르뷔지에가 화가 오장팡과 함께 창간한 잡지 '에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에 실렸던 글들을 모아 발간한 것들로 그가 파리를 방문하기 직전에 출간된 책들이었다. 르 꼬르뷔지에는 '오늘날의 장식예술'에서는 장식의 부활로 몰락해가는 유럽 건축계를 비판했고, '도시계획'에서는 새로운 이론으로 현대 도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세르트는 바르셀로나에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그 책을 탐독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르 꼬르뷔지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전통적인 보자르 교육에 싫증을 내고 있던 그들에게 이 책은 단비와도 같았다. 새로운 건축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던 학생들의 입에서 르 꼬르뷔지에를 바르셀로나로 초대해서 그의 건축 이론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1927년 꼬르뷔지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동그란 안경을 쓴 파리에서 온 지적 용모의 젊은 건

축사가 들려주는 건축이론에 학생들은 감동의 시선을 던졌다. 학생들과의 만남은 며칠 동안 계속되어,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건물을 방문하기도 하고 바르셀로나 상공을 비행하면서 도시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새 르 꼬르뷔지에는 세르트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르 꼬르뷔지에는 학업을 마친 후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는 언질을 주고 바르셀로나를 떠났다.

그림 7) 르 꼬르뷔지에와 호세 루이스 세르트, 1950년 사진

졸업을 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세르트는 파리로 갔다. 세브르가 35번지에 있는 꼬르뷔지에의 사무실에는 같은 해 일본에서 건너온 마에가와 구니오(前川國男)도 있었다. 그때가 1929년이니 사보아 주택(Villa Savoye) 설계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을 게다. 세르트는 이곳에서 도면을 그리며 1년을 보낸다. 당시 드래프트맨들 중 보수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거장 밑에서의 경험은 소중한 것이었다. 1930년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세르트는 사무실을 개설한다. 아파트와 주말주택들을 설계하고 바르셀로나 도시기본계획에도 참여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은 파리 만국박람회 스페인관 설계를 의뢰받는 1937년이었다.

호앙 미로와 호세 루이스 세르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내전은 전쟁이 아니라 병이며, 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했듯이 1936년 7월 17일,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스페인 내전은 같은 민족끼리라도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조지 오웰의 '카탈루냐 찬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피카소의 '게르니카', 로버트 카파의 '어느 병사의 죽음' 등 수많은 걸작의 배경이 된 스페인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산될 무렵, 파리에서는 만국박람회가 열렸고 이 때 스페인관에 전시된 예술가들의 작품은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된다.
스페인관을 설계한 세르트는 이때 출품된 가로 7.7미터 세로 3.5미터 크기의 게르니카를 전시하기 위해 피카소와 논의했고, 전시장 계단실 부분에 호안 미로의 작품 '민병'(The Raeper)을 설치하기 위해 그와 얼굴을 맞대었다. 분수대에 설치될 조형물 '머큐리'(Mercury)를 위해 미국의 조각가 칼더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화가와 건축사 사이의 밀월의 관계가 구축되는 순간이었다. 1939년 내전이 파시스트인 프랑코 장군의 승리로 끝나자 공화주의자 집안 출신인 세르트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바우하우스 교장을 역임했던 월터 그로피우스가 미국행을 제안하자 세르트는 그저 6개월 정도 머물 예정으로 아내와 함께 뉴욕 행을 택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유럽이 장기간 전쟁의 늪에 빠지자 뉴욕에 더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미국생활은 장기화되었고, 1951년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다.

1953년 월터 그로피우스의 도움으로 하버드대학 디자인대학원 학장으로 임명된 그는 스페인 친구 미로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마요르카 섬에 스튜디오를 설계해 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팔마근처 칼라마요르 산허리에 위치한 인적이 뜸한 해안이 내려다보이는 멋진 조망을 가진 곳으로, 올리브 나무 사이의 집과 계단식 대지 사이에 작업실을 지어달라는 부탁이었다. 미로는 대형작품을 그릴 수 있는 공간과 빛을 고려해 설계해 달라는 조건만을 내걸었다. 미로의 요구와 세르트의 이해가 일치되면서 탁월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미로의 작업실은 1956년 완공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생폴 드 방스의 에매 매그로부터 연락이 왔다.

"당신이 마요르카 설계한 미로의 스튜디오의 아름다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생폴 드 방스 오래된 마을에 미술관을 설계해 주실 수 있는지요. 연락바랍니다."

매그 미술관과 총체예술적 구성

1971년 퐁피두 미술관 현상설계에서 1등으로 당선돼 30대 초반의 나이에 스타 반열에 오른 렌조 피아노. 그는 좋은 건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훌륭한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을 꼽는다. 매그 미술관 신축 과정은 그러한 만남의 전형을 보여준다. 설계가 시작되자 세르트와 매그는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최고의 미술관을 만드는데 의기투합한다. 화가들과의 소통 또한 범상치가 않다. 미로와 자코메티, 브라크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도면을 분석하고 모형을 봐가며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 어느 곳에 자코메티의 조각을 놓을 것인지 미로의 조각 작품을 환경과 어떻게 조응시킬 것인지 숙고한다. 칼더와 자코메티가 연못과 테라스를 설계했고, 미로는 세라믹과 모자이크로 미술관 외부를 독특하게 치장했다. 일찍이 바그너가 부르짖었던 게잠트쿤스트베르크(Gesamtkunstwerk), 즉 총체예술적 접근과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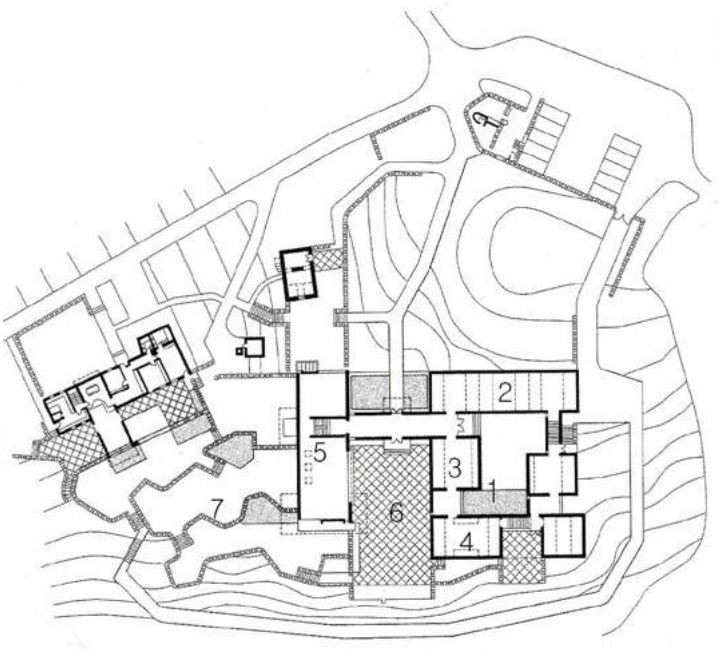
그림 8) 계획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는 호세 루이스 세르트와 에메 매그

그림 9) 자코메티와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 호세 루이스 세르트, 1961

바그너는 개개 장르로 고립된 예술형태로는 완전한 예술적 위업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가 한데 뭉쳐 종합된 예술작품을 창조해야한다고 보았다. 음악과 미술, 문학, 연극 분야의 예술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작품을 창출해 내는 '악극'((Musik Drama)처럼 건축행위도 총체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장르의 융합을 통해 예술적 통일체를 이루는 총체예술의 개념은 화가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와 툴루즈 로트렉

(Toulouse Lautrec), 폴 세루지에(Paul Serusier) 등이 문필가 알프레드 자리(Alfred Jarry)의 작품 '위뷔왕'(Ubu Roi)을 위한 퍼포먼스의 시각적 작업에 공동 참여했던 것처럼 20세기 초반 미술계나 문학계, 디자인계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매그 미술관의 총체예술적 접근은 건축사 자신이 미술계와의 폭넓은 교감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르 꼬르뷔지에의 파리 사무실에서 1년간 머무는 동안 자코메티, 레제와 교우했고, 파리 만국박람회에서는 미로와 칼더와 작업하면서 서슴없이 친구가 되었다. 건축사 자신이 어려서부터 미술을 좋아하다보니 그들과 쉽게 동화되고 서슴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여기에 에매 매그 특유의 예술 후원 시스템이 결합되었다. 매그와의 친분으로 브라크는 겨울을 따뜻한 생폴 드 방스에서 지냈고, 호안 미로는 여름철을 보냈다. 건축사와 화가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게다가 실존주의 철학가 사르트르,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시인 폴 엘뤼아르((Paul Éluard), 고엽을 작곡한 시인 자크 프레베르((Jacques Prévert) 등 많은 예술가들이 생폴 드 방스에 머물면서 이곳에 세워질 미술관에 대해 간접적으로 조언한다. 매그 미술관의 골격은 이런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1. 브라크 전시실
2. 미로전시실
3. 칸딘스키전시실
4. 샤갈 전시실
5. 기획전시실
6. 자코메티 광장
7. 미로의 조각정원

그림 10) 매그 파운데이션 평면도

그림 11) 매그 파운데이션 모형

자연과 건축의 하모니

장자는 무위자연에 의해 발현되는 자유정신을 강조했다. 인간을 자연 내 존재로 생각하고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키거나 대상화하지 않는 경우 인위적 가치판단에서 벗어나 정신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자극이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생폴 드 방스에 자리 잡은 매그 미술관에 들어서면 그러한 자유정신 속에 빠져든다. 그것은 세르트와 매그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건물을 자연의 설치미술로 삼을 것, 예술 작품과 공간과의 관계를 면밀히 탐색할 것, 빛의 해석에 충실할 것. 중세 성곽마을의 지형학적(topological) 맥락을 손상시키지 않고, 생폴 드 방스의 찬란한 빛을 존중해 미술관을 건립하자는 취지였다.

완공된 미술관 모습은 작은 마을을 연상시켰고 몸집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마을처럼 채와 채가 만나는 곳곳에 광장들이 만들어졌다. 세르트가 설계한 건물에는 스페인식 중정 패티오(patio)가 곧잘 나타난다. 에매 매그의 컬렉션이 모여 있는 전시실 역시 패티오를 중앙에 두고 브라크의 방, 미로의 방, 샤갈의 방, 칸딘스키의 방이 에워싸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칸딘스키 전시실로 가보자. 그 속에는 에피소드가 담겨있다. 누구보다도 열렬한 칸딘스키의 숭배자였던 에매 매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칸딘스키의 작품을 구입하고 싶었던 탓에 멋을 부리기로 소문난 칸딘스키의 미망인 니나를 꼬드긴다. 파리의 최고급 양장점을 소개

하고는 옷을 해 입는 취미를 조장시켜 결국 남편의 그림을 팔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작품들이 칸딘스키의 방에 전시되어 있다. 세르트는 외부 전시공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사이의 마당공간에는 실존적 느낌을 강하게 표출하는 자코메티의 조각을 배치시켜 '자코메티 광장(Giacometti Courtyard)'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라비린스(Labyrinth)'라는 이름의 미로 같은 정원을 만들어 낭만적 조형의 미로의 조각과 마주치게 했다.

이곳에 서서 미로의 조각과 건물의 지붕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미술관을 미로가 설계했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둘은 닮았다. 세르트가 지붕을 디자인하면서 미로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언어를 참조한 것으로 일견 보이나, 건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의 멘토였던 르 꼬르뷔지에의 후기작품에 나타난 낭만적 경향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 미로의 조각전시장 라비린스에서 바라본 지붕선

그림 13) 호안 미로의 조각

세르트가 설계한 매그 재단 미술관은 콘크리트의 가소성을 이용한 르 꼬르뷔지에의 후기 작품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50년대 들어 르 꼬르뷔지에는 롱샹 교회당과 인도 찬디가르 국회의사당을 설계하면서 처마선이 하늘로 들려진 낭만적 조형을 선보인다. 브라질의 오스카 니마이어, 스페인 출신의 호세 루이 세르트, 일본의 마에가와 구니오, 한국의 김중업 등

그림 14) 자코메티 광장에서 올려다 본 지붕선

그림 15) 매그 재단 미술관의 지붕과 캐노피

그림 16) 호안 미로 스튜디오의 지붕선, 스페인 마요르카 섬

많은 건축사들이 르 꼬르뷔지에의 조형 어휘를 자신의 건축으로 받아들였다. 1962년 완공된 주한 프랑스 대사관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사무실에서 4년간 머물다 귀국한 김중업은 몸체에서 독립된 낭만적 조형의 지붕선을 내놓아 일약 한국 건축계의 기둥이 된다. 세르트의 매그 미술관은 그보다 2년 후인 1964년 완공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완공된 두 건물은 동질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늘로 향해 원호를 그린 지붕선이 닮았고, 몸체에서 분리된 독립지붕의 형식도 비슷했다. 르 꼬르뷔지에는 1920년대 튀니지의 카르타고 주택을 설계하면서 '독립지붕' 개념을 처음 제안한 바 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기 위해 지붕을 몸체에서 분리시켜 공중에 띄웠던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은 그가 설계한 찬디가르 주지사 관저의 곡면의 지붕으로 나타나며, 그를 추종하는 건축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생폴 드 방스 구릉 위에서 르 꼬르뷔지에의 유산과 조우할 수 있는 것이다.

호안 미로와 에매 매그 위대한 유산

매그 미술관의 3대 직계인 요요 매그(Yoyo Maeght) 이사장이 2009년 방한했다.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세계명화대전 '호안 미로-최후의 열정(Joan Miro-The Last Passion)'> 개막식 참석차 한국을 찾은 것이다. 매그 미술관이 소장해 온 호안 미로의 판화 103점이 공개된 전시는 미로가 후기 작업으로 옮아갈수록 회화 작업 대신 판화나 세라믹 작업에 천착했음을 보여주었다. 호안 미로는 1948년 파리의 '갤러리 매그'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그 재단 전속작가로 활동했다. 판화를 전공했던 에매 매그는 미로의 판화작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미로는 생폴 드 방스 매그 재단 건물에서 판화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 1930년대부터 석판화를 제작해왔지만 매그 재단의 작업장에서 가장 뛰어난 미로의 판화 작품이 탄생된다. 미로와 매그 재단은 단순히 화랑과 작가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었으며 매그 미술관은 그의 작업장이었던 것이다. 에매 매그의 손녀이자 매그 재단 이사장인 요요 매그는 미로와 함께 성장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언니들과 함께 공상에 젖어 매그 미술관 이곳저곳을 거닐었다. 미로가 제작한 '달의 새' 아래서의 만남, <칼퀴> 아래서의 피크닉, <태양의 새>는 상상의 뱃머리를 해주었고, 안 바닥 벽위를 오르는 <도마뱀>은 신앙에 의하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외젠 이오네스크가 "미로의 모든 작품은 춤추는 정원이며 합창이며 막 피어나는 생명체 같은 색의 오페라"라고 했듯이 요요 매그는 꿈과 유머가 담긴 미로 작품에 둘러싸여 어린

그림 17) 요요 매그의 어린 시절과 호안 미로(1966년 7월, 매그 미술관에서)

시절을 보냈다. 때로는 미로의 손을 잡고 놀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만든 조각에 올라서기도 하고, 그의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키가 작았던 미로는 정 많은 할아버지

로서 매그 가족에게 진한 기억을 남긴다. 1980년대 초반, 끈끈했던 매그 재단의 설립 멤버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난다. 매그가 먼저 세상을 등지자, 미로와 세르트는 2년 후 사망한다. 건축사와 화가로 만나 친구가 됐던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죽음의 시기를 같이 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화려했던 예술 공동체가 막을 내리자 아들 아드리앙 매그와 손녀 요요 매그가 유업을 이어받는다.

1977년 에매 매그 아내 마르게리트 사망
1981년 에매 매그 75세로 생폴 드 방스에서 사망
1983년 호안 미로 마요르카 팔마에서 90세로 사망,
호세 루이 세르트 바르셀로나에서 81세로 사망
1984년 아드리앙 매그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뇌종 드 뇌르 문화예술훈장 수상
2004년 매그 파운데이션 40주년 기념

에매 매그는 생전에 미술관 업무 이외에 출판사업과 영화제작 지원 등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스스로를 예술 편집자라고 생각했던 그는 편집을 텍스트와 이미지와의 결합, 시와 회화와의 융합으로 보고, 문학과 예술이 결합된 형태의 문학잡지 '화석'(Pierre a Feu)과 '거울 저편'(Derriere le Miroir), '무상'(Ephemere) 등을 출판하기도 했다. 영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매그는 1969년부터 1975년까지 매그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예술가들의 생애와 작업과정을 영화화로 만들었다. 유업을 이어받은 요요 매그는 2005년 미로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매그 재단 미술관을 나서며

1972년 퐁피두 대통령이 매그 미술관을 방문했다. 프랑스 대통령이 생폴 드 방스를 방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남프랑스의 산골 마을에 주옥같은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음에 깊은 감명을 받은 대통령은 파리에 진행 중인 현대미술관 건립에 대해 에매 매그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매그 미술관의 예술 후원체제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에매 매그는 매그 재단 미술관이 '문화센터'(Culture Center)가 아니라 '창조의 센터'(Creative Center)가 되길 원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예술가들을 초청해 작업실을 빌려주고 창작에 몰두하게 했다. 이 같은 후원 시스템은 후손들에 의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 매그 재단은 한국의 오수환 화백을 초청하여 브라크, 자코메티 등이 썼던 작

그림 18) 자연과 건축과 조각이 공존하는 생폴 드 방스, 매그 파운데이션 조각공원의 호안 미로 조각

업실에 머물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후원하였으며, 그를 유럽 무대에 널리 소개하기 위해 전시회를 열어주기까지 하였다. 매그 미술관은 단순히 미술작품을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닌 창조적인 행위의 장소로 존재한다. 자코메티 광장에서 이브 몽땅이 노래하기도 하고 모던 댄스 공연이 어우러지기도 한다. 생폴 드 방스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매그 재단 미술관을 찾아 에매 매그와 호세 루이스 세르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작업했던 후앙 미로와 자코메티의 흔적을 더듬는 것은 이곳을 찾은 자만의 즐거움일 것이다.

매그 재단 미술관 가기

매그 재단 미술관을 가기 위해서는 니스 북쪽에 위치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생폴 드 방스로 가는 400번 버스를 이용, 종점까지 가면 된다.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나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편수가 줄어든다. 니스 역에서 출발할 경우는 17번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한 후 생폴 드 방스로 향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때 방스로 가는 410번 버스와 혼동하지 말 것. 입장료는 14 유로, 미술관 내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추가로 5유로를 더 내야 한다, 니스에서 이틀 일정으로 머물 경우 샤갈미술관과 앙리 마티스가 직접 설계한 방스의 로사리오 성당을 함께 둘러보는 것도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제18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참가보고서

Report : The 18th Korea China Japan Registered Architects Organization Meeting

글. 오동희_ Oh, Dong-Hee ·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1. 제18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요

1-1. 배경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1997년 1월 8일 북경에서 대한건축사협회(KIRA),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 그리고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가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제18차 회의를 후쿠오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건축분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한중일 건축사단체의 협의회로서, 건축시장 개방에 대비한 건축사자격 상호 인정방안과 각국의 건축계 주요 현안 및 건축을 통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협의를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다.

1-2. 행사개요

2015년 11월 30일부터 3박 4일 동안 개최된 제18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공식참가단 9인과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7인 그리고 일본건축사회연합회 14인 등이 참가하였고, 회장단회의를 비롯하여 환영회, 워크숍 등 여러 행사에 일본의 후쿠오카현 지사, 후쿠오카 시장, 국토교통성 주택국 건축지도과 기획전문관, 그리고 후쿠오카현 건축사회 회장, 사가현 건축사회 회장, 야메시 마을디자인연구회이사장, 큐슈대학 인간환경학과 교수와 학생그룹 등 많은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회장단회의와 환영회, 둘째 날에는 전통적 건축물보전지구(야메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이 하루 종일 진행되었으며, 셋째 날은 친환경 지역관광개발 포럼, 차기개최지 발표, 친환경 지역관광개발지역로서 하우스텐보스 방문과 환송만찬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전통적 건축물보전지구의 하나인 아리타 지역 탐방이 진행되었다.

1-3. 주제

금번 한중일건축사협의회의 주제 및 회의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던 이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회의와 워크숍을 병행하여 더욱 실증적인 회의가 되었다. 이것은 3년마다 돌아오는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을 일본건축사회가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회원국들로 하여금 일본건축사회연합회의 주요 관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개최지인 후쿠오카시의 지역적 특성과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공가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미 이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직접 마을에 들어가 조사하고 또 토론을 하여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생산적 회의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주제인 친환경적인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는 각국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에서는 한국, 중국의 대표단이 3명씩, 그리고 일본의 대표단이 6명, 그 외 국토교통성, 후쿠오카 지회 등 3명, 총 15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건축제도 개선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법률, 규정 등의 사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짧은 회의시간에 효과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주최국은 각국의 발표자료를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유인물로 배포하였으며, 각 나라의 대표는 자기의 언어로 발표를 하고 이것을 통역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예민한 주제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전달이 되도록 하였다.

第18回 日·韓·中建築士(師)協議会 福岡会議
2015年11月30日～12月3日

일본에서는 "건축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개요(2014년 법률 제54호)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목조건축 관련기준"의 재검토, 정기조사, 검사보고제도를 강화하고 건축물 사고 등에 대한 조사체계의 강화를 통한 실효성 높은 건축기준제도를 구축하며,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제도의 재검토, 지정확인검사기관 등에 의한 임시사용 인증사무 창설,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구조, 용적률 제한의 합리화 등을 통한 합리적인 건축기준제도의 구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3층 또는 연면적 3,000m² 이상의 대규모

목조건축물에 있어서 차양 또는 발코니의 설치와 천정재 불연화 등의 연소방지조치를 강구함으로써 1시간 준내화구조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3,000m² 이내마다 내화성이 높은 벽으로 구획을 하는 경우 내화구조 등 이외의 건축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개요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였는데, 건축설계관계 3단체(일본건축사회연합회,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 일본건축가협회)에 의한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업무의 적정화 및 건축주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충실에 관한 공동제안"을 근거로 서면계약의 의무화(300m² 이상), 관리건축사 책무의 명확화, 건축사면허증 제시의 의무화 등에 대해 의원입법에 의해 건축사법이 개정되었다.

한국에서는 "노후건축물 정비촉진 등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의 진행상황", "한옥 건축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2015. 7. 9 발표된 노후건축물 정비촉진 및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이를 통해 연간 2.2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 효과가 예상되고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건축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첫째, 결합건축제도의 도입, 건축협정 활성화 등 소규모 정비방식의 다양화, 둘째,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지원, 셋째,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넷째, 노후건축물 안전강화 및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다섯째,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및 복수용도 허용 등의 건축 관련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4년 이후 발생한 몇 건의 사고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후 7개월간 4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부실설계와 시공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되며,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초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소규모건축물에 있어서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QR코드 시행 및 공정에 대한 촬영기록 제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는 국가건축센터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요약, 발표하였는데 한옥건축 활성화의 배경, 한옥에 대한 정의 및 그 범위의 확장, 정부에서 추진 중인 5대 과제로서 첫째, 전통한옥의 보전· 관리 및 활용, 둘째,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셋째, 한옥건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넷째,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다섯째, 한옥의 관광자원화 등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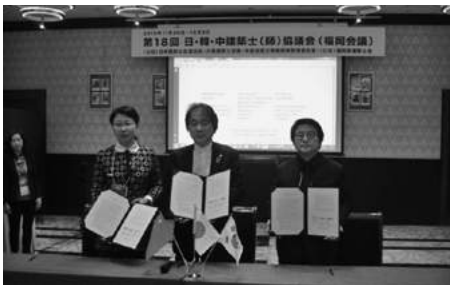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개정"에 대한 요점을 발표하였다.
건축법은 중국 건설 공사영역의 주요법률 중 하나이며, 1997년 공포, 실시하고 난 뒤 18년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라 건축시장이 변화되었고 이미 일부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 국무원은 이에 대해 입법계획으로 법률제정과 개정을 다음의 4종류로 분류했는데, 첫째, 전면적 개혁을 요하는 입법계획 및 법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사항, 둘째, 연내에 완료해야 할 사항, 셋째, 예비적 사항, 넷째, 연구적 사항으로 분류하였다. 금년의 건축법 개정은 그 중 넷째인 연구적 사항에 포함된다.
건축법의 개정작업은 시작단계로 다음의 몇 가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비국유자금의 투자항목의 도급방법을 조정하고 프로젝트의 도급방법 제한을 완화한다. 비국유자금의 투자항목에 대해서 건축주는 입찰공고 방법을 채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주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더 많은 자주권을 갖게 된다.
둘째, 건축주는 프로젝트 조직과 관리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축주는 더욱 엄격하게 공사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또한 공사관리를 강화하고, 계약대로 공사비를 지불하고, 합리적으로 공사기간을 확정하며, 건설공사 전 과정을 책임진다.
셋째, 건설공사 담보와 보험제도를 추진하고, 도급자는 적절한 담보와 필요에 따른 보험 종류를 제공해야 한다.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시장화 수단에 의해 건설공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건설공사 영역에서의 신용제도를 더욱 개선한다. 중국은 각 영역에서 성실하고 신용 있는 건설을 추진하고, 또한 성실하고 신용 있는 정무, 비즈니스, 사회와 사법의 수립도 추진하고 있다. 성실과 신용의 건축시장 수립은 사회전체의 신용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보아, 건축법 개정 시 이 부분의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3. 환경을 배려한 지역관광개발 주제발표 및 차기 개최지 소개

12월 2일 오전 8시 개최된 협의회는 “환경을 배려한 지역관광개발”을 주제로 이에 대한 각국의 사례발표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환경도시 하우스텐보스의 개발 및 환경적 특징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수자원 관리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관리에 대하여 개발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던 사례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외도 보타니아의 자연 중심적 관광자원개발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지역관광개발이 대규모자본과 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것과 달리, 실제 성공한 사례로서 외도 보타니아는 긴 시간을 가지고 한 이름 없던 섬을 아름다운 낙원으로 가꿔진 자연적 개발의 성공사례라 할 것이다. 중국은 중국 고대 후쪼우 지구의 개황과 직시박물관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현재 활동 중인 건축사들의 설계에 중국문화의 전통적 관점이 꾸준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한국의 경우 전통건축이 다분히 건축의 역사로 이해되는 것과 비교할 때 그들은 전통의 주제가 현대건축의 설계에 깊은 연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도 제19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지는 중국 남동쪽의 후쪼우(Fuzhou)로 확정되었다. 후쪼우는 타이완 해협과 면하고 있으며 후지안(Fujian)성의 성도로서 국가기념물과 문화중심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이다. 2200년 역사도시로서 작은 도시로 출발해 지금은 대도시로 성장하였음에도 많은 역사유적이 잘 보전되고 있다. 중국대표단은 차기 개최지에 대한 세밀한 설명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대표단에게 뜻 깊은 회의를 준비할 것을 약속하였다.

4. 회의결과

회의록은 3국의 단체장과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이번 제18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서명하였다. 한국대표단은 조충기 회장의 위임을 받아 오동희 국제위원장이 서명하였으며, 그 회의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대한건축사협회(KIRA)가 1997년 중국 북경에서 맺은 교류협정에 의거하여, 제18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회의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다. 회장단 회의에서 3단체는 법 개정 및 건축 관련 이슈의 규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일본은 2014년 6월 4일자로 공포되고 2015년 6월 25일자로 시행된 건축물기본법 개정 개요를 발표하였다. 중국은 건설법의 현 수정 개요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노후건축물 재건과 건축투자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또한 건축물 안전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세 국가에서 온 위원들과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야메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첫 번째로 대표단은 가이드로서 지역 전문가와 함께 야메시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모두 제안을 하고 그에 대해 서로 토론하였다. 야메시 워크숍에서는 전통 보전을 통한 구시가의 재건에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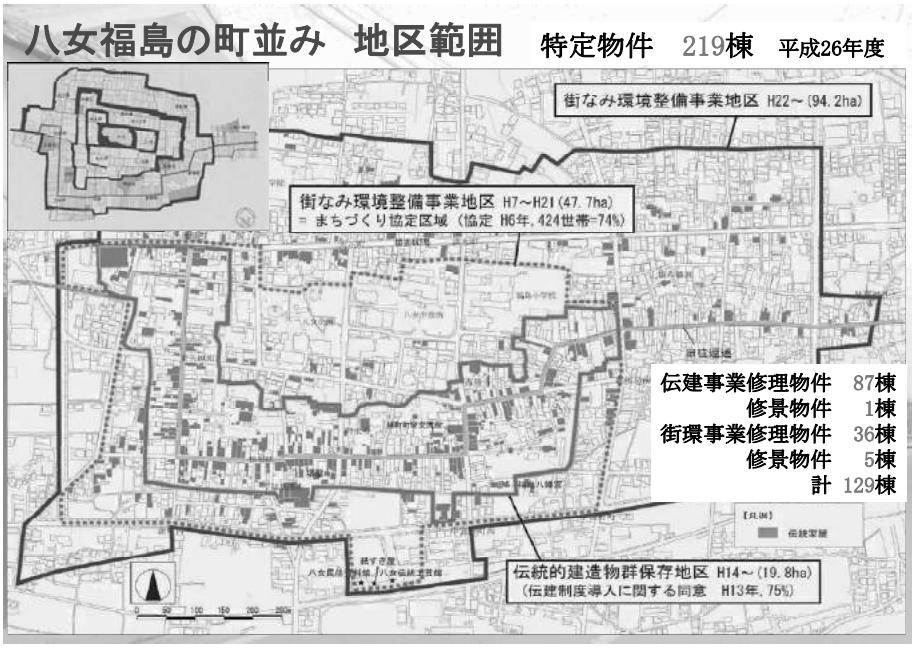
회의에서는 한중일 세 국가가 “환경친화적 지역관광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대표단은 일본에서 실제로 개발이 시행된 모습을 보기 위해 하우스 텐보스를 방문하였다.

한중일 세 국가는 후쿠오카 회의가 성공적이었음에 동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1. 한중일 세 국가는 세 단체 간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동의한다.
2. 일본은 추후 회의를 위해 다음의 목표를 제안하였다.
   A. 중기 목표
      1)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세 국가 간 건축사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
      2)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회의 간 관계와 회의 개최 도시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3)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금번 회의 이후 꾸준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B. 장기 목표
      1)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한중일 간 공동 작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현지, 지역과 세계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2)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건축실무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한중일 세 국가는 커뮤니케이션과 APEC 건축사 프로젝트 테두리 안에서 건축사 간 협력 강화에 동의한다.
      3)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과 건축 기술과 관리에 대한 건축사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토론을 심화한다.
      한중일은 추후 토론과 다음 회의에서 상기 목표들에 대해 마무리 짓기로 동의하고, 회의 개최 6개월 전에 차기 회의 주제, 장소와 일정을 알리기로 하였다.
3. 제19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2016년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될 것이다.

5. 워크숍

워크숍은 이번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프로그램이어서 매우 기대가 되었다. 주최국인 일본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내용이었고 이것을 차후 협의회의 프로그램 모델의 하나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판단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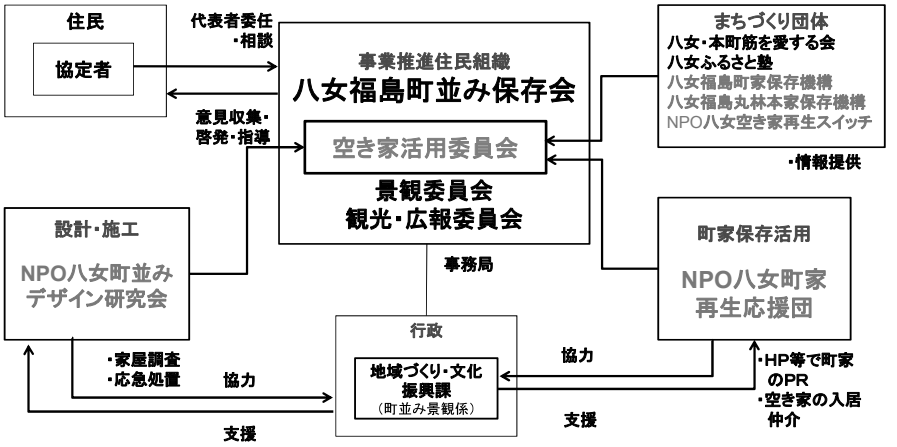
다. 하루 종일 진행되었던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긴장감과 흥미를 주고 또 팀워크가 필요한 유쾌한 시간이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관계기관 및 NPO단체가 함께 참가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그들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마루아루키'(마을걷기)를 통해 거리와 보존건축물을 돌아보며 각국의 실무건축사 및 마을과 건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식견을 넓히고 함께 새로운 발견과 일체감을 형성해 국제적인 교류를 통한 참신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나누었다. 이 프로그램은 3개국의 대표단, 또 학생그룹이 참여하되 경쟁하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아이디어 발굴과 발표를 통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국 대표는 특정그룹에 속하지 않고 전체의 활동과 발표에 대해 패널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워크숍의 결과를 통해 각 그룹의 접근방식과 결과에 대한 차이를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성과로 하였다.

워크숍에는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대한건축사협회, 중국전국주책건축사협의회, 후쿠오카현건축사회, 후쿠오카현 학생 및 유학생, 건축사회 야메지역회 및 지역주민(보존회, NPO)이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무척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자로서 어떤 관점을

八女福島の空き町家の保存活用推進体制



가지고 짧은 하루 일정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으나 주최 측에서 준비한 자료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그 관점을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마을 걷기는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진행이 되었는데 한국그룹은 나카지마 고우고 NPO회장의 안내를 따라 1그룹으로 교류관(八女市 横町町家 交流館)을 출발하여 사가라활공방(相良矢工房), 하치만궁(福島八幡宮), 다카하시주택(高橋家), 코노미엔, 키노시타주택(舊木下家住宅), 마루하야시주택(丸林家) 순서로 견학을 하였다. 현지의 일기가 너무 좋은 날이어서 호기심 반 연구자로서의 마음 반을 가지고 견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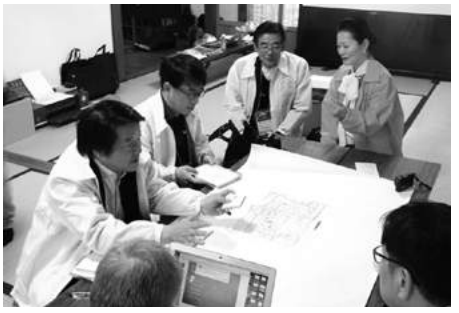
야메시는 에도시대에 조성된 마을로서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전통적 건축물 보전지구로서의 그 역사적 자산의 관리, 주요산업 등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의 감소 및 노인인구 또한 감소함에 따라 공가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마을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유입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주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참고하면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화살을 만드는 공방, 또 불사에서 사용되는 등 위에 그림을 그리는 공방을 방문하였는데 원래 도쿄에서 창호지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점점 대도시에서의 일이 줄어들어 고향으로 돌아와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국에서 주문이 꾸준하다고 한다. 이 마을을 걸으면서 느낀 것은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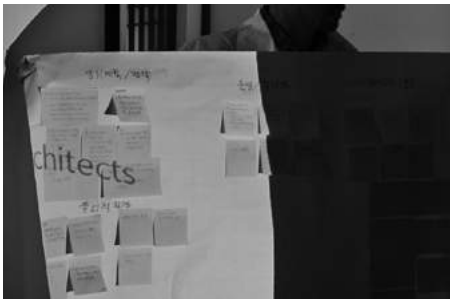
의 전체적인 경관상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외부의 벽이 나무를 그을려 탄화시킨 목재 사이딩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처마의 선이 가로를 따라 일관되게 맞추어져 있으며 바닥의 레벨 또한 최대한 도로와의 경계상에 차이가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전반적인 가로 경관이 하나의 마을로서의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 하치만궁에서는 매년 인형극 축제가 열리는데 6~7만 명이 방문하는 야메시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한다. 또한 인구유입을 위해 야메시에서는 새로운 주민이 신축을 하는 경우 600만엔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견학 도중 다쿠치상이라는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는 현재 다카하시 주택에서 마찌야 체험생활을 하고 있다. 야메시에서는 여러 곳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선발된 경우로서 불과 월 500엔을 지불하고 거주하고 있다. 한달 가량의 체험 결과 살기에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래 이러한 일에 종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고노미엔이라는 오차야는 야메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곳인데 아주 작은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방문객들이 들러 보는 장소가 되었다. 견학을 하면서 빈집에 대한 관리가 궁금해졌는데 이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새로 입주를 하는 경우 그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대해 시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요코마찌조 마을 전문가그룹에게 설계 및 감리를 요청하고 보존지구 내의 상

세계획을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 빈집은 매년 1회(4월) 조사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요코마찌조 마을은 매우 잘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한적하여 도무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마을이라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 마을 관계자들은 이 마을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도 현재의 모습 또한 잘 보존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견학을 마친 뒤 다시 교류관으로 모여 각각의 그룹끼리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자료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주제설정은 사전에 준비했거나 현지에서 생각한 것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패널화에는 포스트잇 및 사진을 부착하여 전시하였다. 한,중,일 3개국 그룹과 학생그룹 등 모두 4개의 그룹이 각각 준비된 내용을 15분씩 발표하고 발표가 완료된 후 패널토론을 통해 각국 대표자가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치게 되었다.

특기할 것은 각 그룹마다 관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일본그룹의 경우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이슈에 집중을 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유추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였다면, 중국 그룹의 경우는 상위적이고 도시적인 관점, 또 정책적인 관점 등을 바탕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체계를 다루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한국 그룹의 경우 그 중간적인 관점이었는데 정책적 이슈로부터 콘텐츠, 운영, 건축, 장치물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각 그룹의 가감 없는 솔직한 의견 제시에 대하여 야메시 담당자 및 NPO그룹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였으며 향후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6. 전통적 건축물보전지구 건축탐방-2 : 아리타 지역

6-1. 사가현립 아리타 요업대학교

사가현립 아리타 요업대학교는 아리타에 설립된 전문대학으로서 아리타 도자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대표적 교육기관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2년제와 4년제의 도자기과 전문과정과 일반과정(1년) 및 단기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설은 대지면적 13,546.87㎡에 연면적 6,015.90㎡의 철근콘크리트조의 단층 건물(일부 2층)로서 입구에 도자기를 전시할 수 있는 약간의 전시공간과 중앙의 중정을 감싸고 배치된 양 날개의 강의실 및 실습실이 있고 중정의 후면에 가마실, 녹로실 등이 배치되어 도자기 교육의 전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건축물의 형태는 일본 전통건축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도자기 문화가 일본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도자기 종사자 중에 장애인이 상당수 되므로 입구 로비 내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중정에 각종 식물을 키워서 학생들이 실제로 보고 도형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은 매우 세심하게 보인다.

6-2. 사가 현립 규슈 도자문화관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미쇼기요노리 회장이 설계한 문화관으로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되며 일반전시실(제1전시실), 현대의 규슈도예(제2전시실), 규슈의 고도자기(제3전시실), 규슈도자의 역사(제4전시실) 및 시바타부처 컬렉션(제5전시실)이 클러스터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정을 중심으로 각 전시실이 연결되며 전시실 사이 공간에 외부로 향한 조망을 끌어들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되도록 하였다. 전시의 내용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규슈도자기, 일본 도자기의 역사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과 중국 도자기와의 차이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진입 광장으로부터 건축물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넓게 비워진 광장을 가로질러 아주 낮은 현관을 들어서면 높게 상승되는 전시관 로비와 함께 중정이 시야에 들어온다. 실내외에 사용된 주요 재료인 타일은 현지의 도공들의 손에 의해 일일이 제작된 타일을 이용하여 도자문화관이라는 느낌을 그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본건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절제와 긴장감을 반복시키면서 과장이 없는 공간을 표현하였다. 특히 도자기 종사자 및 관람객 중에 장애인이 상당수 되는 것을 고려해 입구 로비 내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중정에 일본식 정원을 꾸며 실내와 외부공간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배려하였다.

6-3. 아리타 마을 건축탐방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 마을 중의 하나인 아리타는 약 1610년경에 임진왜란으로 조선으로부터 잡혀온 도자기 장인인 이삼평이 이 마을 근처에서 도자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채석장을 발견하고 도자기 생산에 성공하면서 생긴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는 일본의 도자기 산업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리타는 원래 아주 작은 산촌 마을이었으나 도자기 생산이 활발해지고 산업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많은 도자기 장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아리타마을의 주 도로를 따라 약 2km에 걸쳐 도예가, 도공, 상인 등이 사는 주택과 상가 등이 지어졌고 산등성이를 따라 많은 가마가 세워졌으며 아리타의 도자기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로 양단에 초소가 설치되었고 이 계곡을 아리타 우치야마라고 한다. 특히 이 당시로부터 이미 도자기 산업에 있어서 분업화가 이루어져 마을 배치와 도자기 제작단계에 관여하게 되는 도공들의 집 위치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지금도 아리타의 도예가 및 시민들은 이삼평을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있으며 아리타의 도자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마을의 안내를 위해 지역의 건축사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 이미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수십 년 간 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의 건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
바쁜 일정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준비된 도시락을 버스에서 먹으며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도시락은 바로 지난해 일본 도시락대회에서 일등을 한 도시락이고 한다. 깔끔한 포장 속에 도자기로 된 용기를 보니 음식도 맛있지만 그 도시락에 스며있는 지역의 문화를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아리타 도공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쉬지 않는 연구정신을 바탕으로 도시락조차 마을의 관광상품으로 연계하도록 한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다.

7. 결언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금번 회의에서는 3국의 건축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워크숍을 통한 3국간의 지식 교류는 매우 생산적인 것으로서 향후 한중일건축사협의회의 새로운 모델로 이해될 만하였다. 아울러 주제와 연관된 각 지역에 대한 탐방과 현지에서의 교류는 3국의 관심사와 이에 대한 관점을 들여다 보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회의가 의미 있는 것은 각국의 대표단 만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이루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할 만 하다. 이를 위해 치밀하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일본 건축사회의 관계자들, 그리고 후쿠오카현 건축사회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대한건축사협회 2016년도 시무식 개최

대한건축사협회가 1월 5일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은 대한건축사협회 본회와 건축사공제조합,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협 합동 시무식으로 "건축사의 자부심은 협회의 목표"라는 의지를 다졌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진태 의원 감사패 전달

대한건축사협회는 1월 28일 강원도건축사회 사무실에서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왼쪽에서 세 번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건축법 개정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법 의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2015년 건축사합격자 자격증 수여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904명에게 건축사자격증이 전달됐다.

1월 12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오전 오후로 2차례에 걸쳐 건축사자격증 수여식이 개최된 것. 이날 건축사자격증 수여식에선 최종합격자 외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및 임원, 시도건축사회 회장들과 합격자 축하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수여식은 건축분야 최고의 자격증을 취득한 신규 건축사들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간 건축사자격증 수여식은 대표자 수여로 약식 수여식 후 교양, 윤리 위주의 장시간 교육이 주를 이뤘다. 실제 주인공이 돼야할 합격자들의 배려가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올해 수여식은 실제 건축사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재로 제작·배부하여 교육시간은 대폭 줄이고, 자격증 수여에 초점을 맞춰 합격자 전원에게 단상에서 직접 자격증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각계각층에서 신규 건축사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등 정당 대표들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904명의 건축사들에게 축하와 기대의 말을 전했다.

각계각층의 축하의 말 이후, 이어진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특별강연에서는 건축사의 의미와 현황에 대해 되짚어보고 대한건축사협회의 비전에 대한내용과 향후 건축사 업무 시 자부심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이날 자격증을 수여받은 904명의 건축사자격시험합격자들은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자격등록 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건축사로 본격적인 건축사업을 하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감사선거 후보 확정

기호 1번 심상봉 건축사

기호 2번 김강수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선거 후보자가 발표됐다. 기호 1번에 심상봉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광주), 기호 2번에 김강수 건축사(주.연우 건축사사무소 / 전남)이다.

2016년도 감사선거는 2월 26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대한건축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2월 1일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후 향후 일정으로는 ▷2월 2일 선거공보 검수 및 선거인명부 확인 ▷2월 15일 선거공보 제출 ▷선거 7일전(2/18) 선거공보 발송, 선거인명부 확정 ▷2월 23일 후보자 투·개표 참관인 신고(후보자별 각 3인 이내) ▷2월 26일 선거실시이다. 선거효력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3/4)이다.

심상봉 건축사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과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김강수 건축사는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과 본협 이사를 역임했다. 감사선거는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충기)는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821호, 2012.5.30> 제7조에 따른 201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오는 2월 24일(수)~3월 2일(수)까지 1주일간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고 5월 22일(일)에 시행한다. 시험시간과 장소는 5월 4일(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건축사예비시험 과목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이며,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구조로 각각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2016년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국토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에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 외 김경환, 최정호 국토부 차관 등 직원들과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장 등 산하 단체장 및 기관장 120명이 참석했다.

안충환 신임 건축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에 안충환<사진> 前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1월 7일 임명됐다.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와 동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버밍엄대 도시지역학 박사를 취득했고 주요경력으로는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장, 토지정책과장, 대통령실 행정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다. 직전 건축정책관이었던 김진숙 국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 건축정책관은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에 맞춰 신설됐으며 건축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한국건축가협회 임원선출, 수석부회장에 강철희 건축사

한국건축가협회가 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수석부회장, 연구부회장, 사업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

선거결과 수석부회장에 강철희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사진), 연구부회장에 이관직 건축사(주.비에스디 건축사사무소), 사업부회장에 박제유 건축사(주.제이유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이강호 건축사(주.에시트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됐다. 당선된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한국건축가협회는 회장선출이 없으며 수석부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회장으로 추대된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13대 회장 취임

박영순 건축사(ANU 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사진)가 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 13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정광량 신임회장 선출

정광량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사진)가 1월 20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제해성 아주대 교수 위촉

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016년 2월 1일 출범한다. 위원장으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가 지명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해 관계 전문분야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위원장 포함)과 기재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당연직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8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제해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 석사,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으로도 역할을 했다.

이번 4기 위원회는 언론·법조계,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위촉돼 눈길을 끈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되어,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한다.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 심의를 국건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건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가나다순

직위	성명	현 소속 / 직위
위원장	제해성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위원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정곤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남해경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박은실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인근	LH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이형석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전병준	매일경제신문사 이사/논설실장
	정규상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진양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최원미	(주)도도디자인건축사사무소
	최창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하미경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한동영	(주)한양 대표이사
	홍원화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당연직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서울건축산업연구원
'건축사 경쟁력 강화 및 건축사의 역할 세미나' 개최

서울건축산업연구원(ARIS)이 1월 28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사 경쟁력 강화 및 건축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건축산업연구원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부설 연구원으로 건축 및 건축사업무와 관련되는 제반분야의 산업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건축시장 환경변화와 건축관련정책 및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설립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주제발표 이외에도 서울건축산업연구원 원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2기 원장서울건축산업연구원 원장 이취임식 후 이종정 1기 원장의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강화 방안과 건축사회의 역할, 차상욱 건축사(주.이프 건축사사무소)의 ▷통일에 다가서는 건축사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종정 1기 원장은 "사무소 간 매출액 양극화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무소 업무가 건축설계와 설계감리 이 두가지 영역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형건축사사무소는 설계, 감리 이외에 유지관리, 건축구조, 도시계획, 인테리어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며 건축사사무소의 영역확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제 건축시장의 성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은 건축사 먹거리 찾기와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업역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차상욱 건축사의 주제 발표에서는 통일 시대의 건축사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차상욱 건축사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통일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은 앞으로 통일비용과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또한 통일을 향한 과정이다. 설계의 본질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예측으로 통일과정에서 미래예측에 건축사가 나서야하는 이유"라고 통일 준비에 있어 건축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또한 "통일과 관련한 위원회를 출범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수집·공유, 북한과의 교류를 물밑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며 "각 개인의 힘은 제한적이지만 전문가 단체 참여의 활로는 많이 있다"고 협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50년사 발간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부산광역시건축사회 50년사'를 편찬했다. 2014년 7월 관련 위원회 발족 후 총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원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도서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대학 내 건축학과에 배부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이웃사랑 나눔성금 500만원 전달

울산광역시건축사회가 지난 1월 13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만 회장에게 이웃사랑 나눔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진락 회장을 비롯한 김영호 부회장과 유병옥 사무처장이 참여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동절기 이웃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전라북도건축사회 2016 신년하례회 개최

전라북도건축사회가 1월 6일 전라북도건축사회관에서 2016년도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전북건축사회 역대회장과 지역회장,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 회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강조했다.

안양지역건축사회 의왕시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안양지역건축사회(의왕·안양·군포·과천)가 의왕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안양지역건축사회 조철호 회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소액이나마 꾸준히 성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천안지역건축사회 천안시복지재단에 1000만원 기탁

천안지역건축사회가 1월 1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천안시복지재단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천안지역건축사회는 희망의 집수리 봉사활동 및 사랑의 연탄과 쌀나눔 봉사를 하는 등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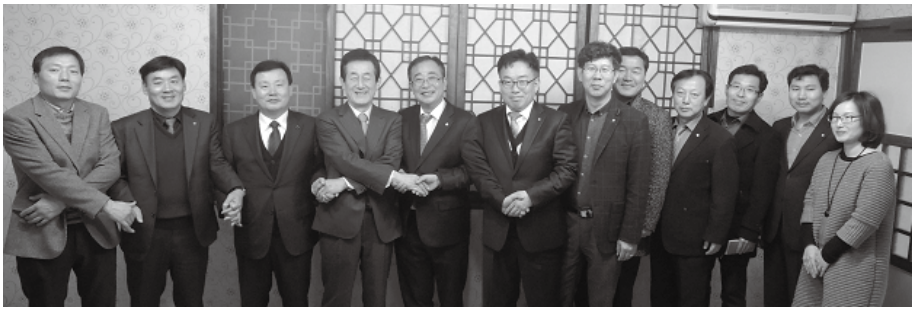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감정단 감정인 발대식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1월 27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감정단 감정인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건축감정단 감정인'이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건축물의 조사·감정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 선정한 감리인을 말한다. 구조 부문 34명, 설계 및 공사 부문 133명 등 총 167명의 규모로 구성됐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지역 고교학생 장학금 전달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1월 26일 대전건축사회관에서 지역 고교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후원하고 진로상담을 진행했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학생을 발굴해 후원하자는 취지로 3개월 만에 1,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진로상담을 진행했다.

경상북도건축사회 경상북도 교육감 간담회



경상북도건축사회 제도개선발전위원회는 1월 27일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을 면담하고 경상북도 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하고, 영덕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건축인 어울림한마당체육대회에 교육청의 참여를 요청했다.

문경지역건축사회 문경시장학회 기부금 기탁

문경지역건축사회가 (재)문경시장학회에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문경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도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3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등 지역 사회에 도움을 꾸준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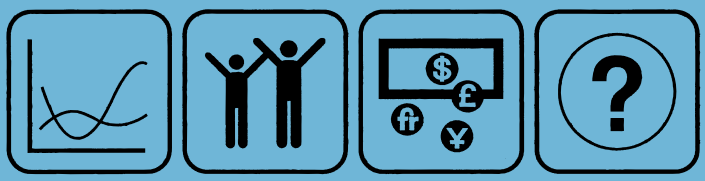
포항지역건축사회 희망2016 나눔캠페인 성금

포항지역건축사회가 포항시청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포항시에 기탁했다, '나눔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희망 2016 나눔캠페인'에 지역 건축사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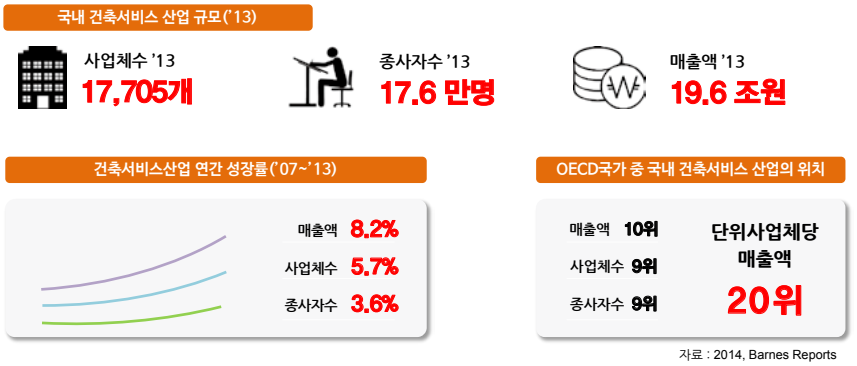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및 실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저작권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있으며, 자료는 www.aurum.re.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SNAPSHOT



자료 : 2014, Barnes Reports

건축서비스산업의 개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진흥을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산업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총 7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 제8조에 의해 관련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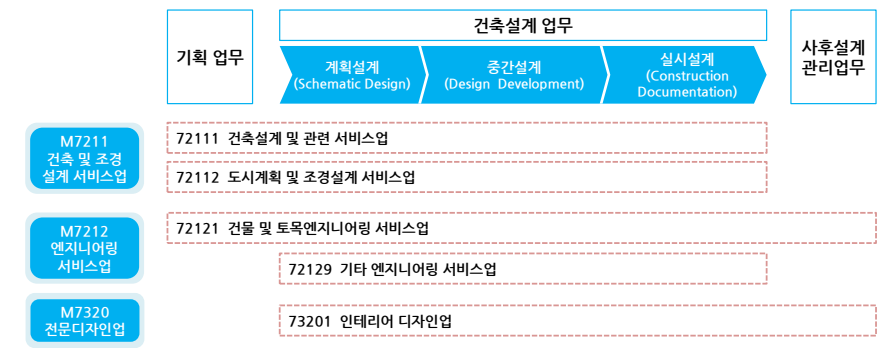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대상 범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분류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본 프로세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상에서 시공, 관리업무를 제외한 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까지를 건축서비스산업에 정보체계 구축 대상의 범위로 정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분야에 대부분 포함되며,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M721)' 중 하위 소분류인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M7211)'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 이 건축서비스산업에 해당하며, '전문디자인업(M732)'의 하위 소분류인 '전문디자인업(M7320)' 중 '인테리어 디자인업(M73201)'이 건축서비스산업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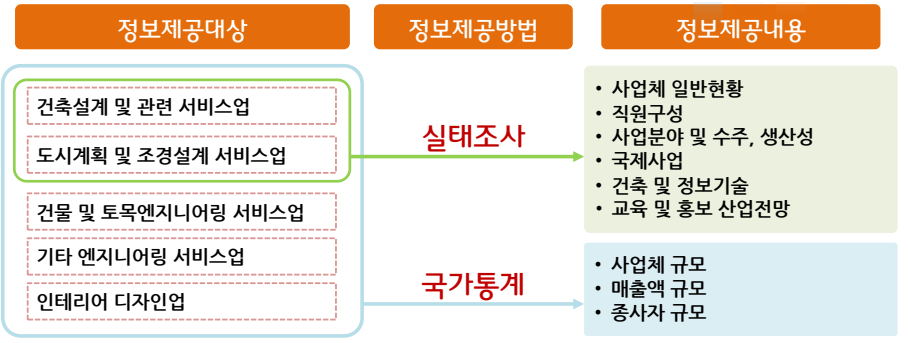
■ 건축서비스산업 기본프로세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해당 분야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정보 제공범위

국가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제공 서비스

국가통계자료는 행정구역 ·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사업비용 등 기본적인 산업 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확인이 어려운 사업체 일반현황, 직원구성, 사업분야 및 수주·생산성, 국제사업, 건축 및 정보기술, 교육 및 홍보·산업전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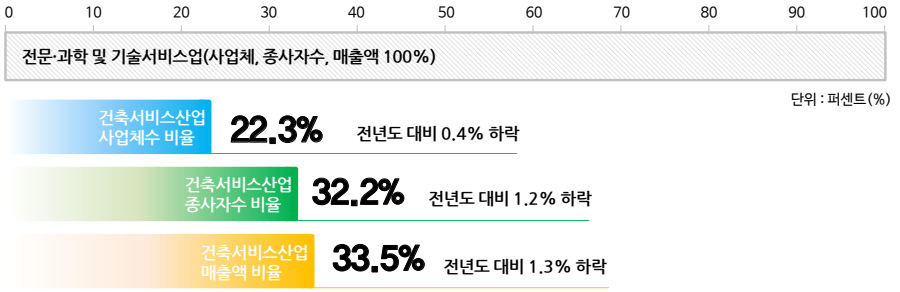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한눈에 보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내 건축서비스산업의 규모

2013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규모는 사업체수 79,495개, 종사자수 약 55만 명, 매출액 58.5조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건축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체 부문은 22.3%, 종사자수는 32.2%, 매출액은 33.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문·과학 및 기술 내 건축서비스산업의 규모



〈2012, 2013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서비스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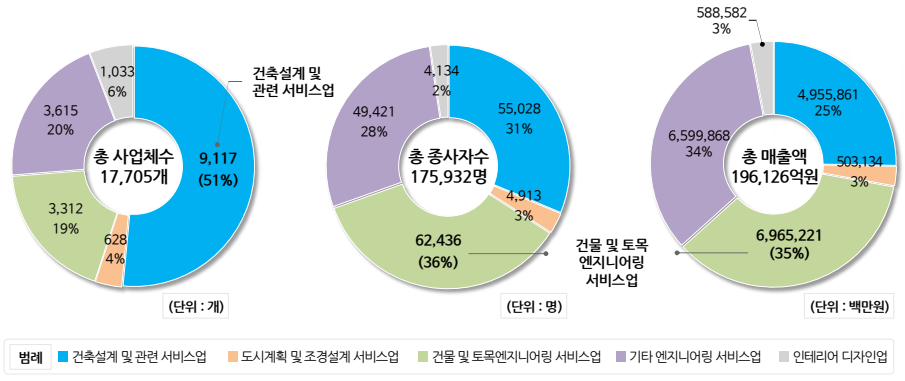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매출액(억원)	
년도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6,035	79,495	527,425	545,834	56,935,490	58,498,203
건축서비스산업	17,249	**17,705**	176,095	**175,932**	198,346	**196,127**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규모

2013년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규모는 사업체수 17,705개, 총 종사자수는 175,932명 이며, 총 매출액은 196,12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사업체수는 456개 증가, 종사자수는 163명, 매출액은 1,832억 원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종사자수와 매출액 부문의 경우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부문별 전문분야 비율은 사업체에서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911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및 매출액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각각 62,436명, 약7조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 대비 종사자수와 매출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반대 양상을 띄었다. 특히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의 점유율은 51.5%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매출액은 약 ¼ 수준으로 나타나 타 분야 대비 영세한 사업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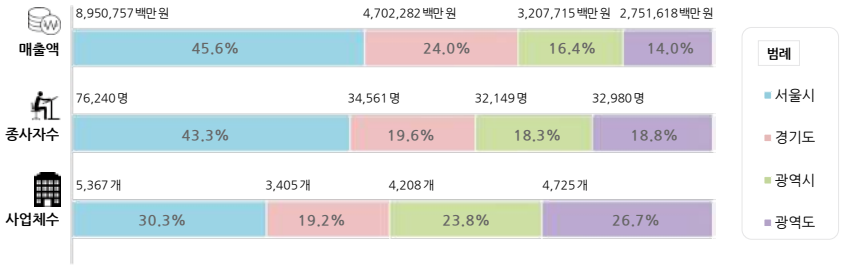
■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의 규모



2013년 지역별 건축서비스산업 규모

지역별 건축서비스산업은 수도권(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 편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등 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울, 경기도에 집중된 사업체는 전체의 50%, 종사자수는 63%, 매출액은 약 70%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구성비를 보면 종사자수의 경우 경기도와 나머지 광역시·도의 전체대비 종사자수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매출액 부문은 최소 약 8%, 최대 10%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영세한 사업체가 많이 분포함을 예측할 수 있다.

■ 2013년 지역별 건축서비스산업 규모



※ 광역시 :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세종시
※ 광역도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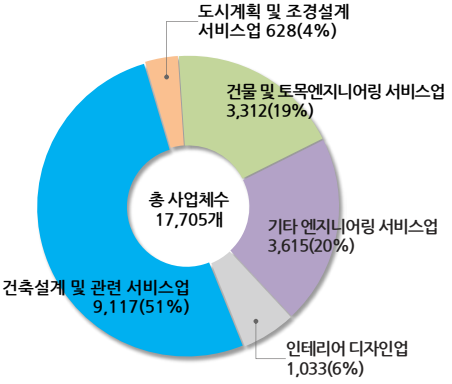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현황

전문분야별 사업체 규모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규모는 2012년보다 456개 증가한 17,705개 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수가 가장 많고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증감은 매출액과 종사자 부문과 달리 건축서비스산업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274개(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장 적게 증가한 분야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이었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약 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규모



단위 : 명

산업구분	2012	2013	증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9,060	9,117	57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586	628	42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038	3,312	274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556	3,615	59
인테리어 디자인업	1,009	1,033	24
합계	17,249	17,705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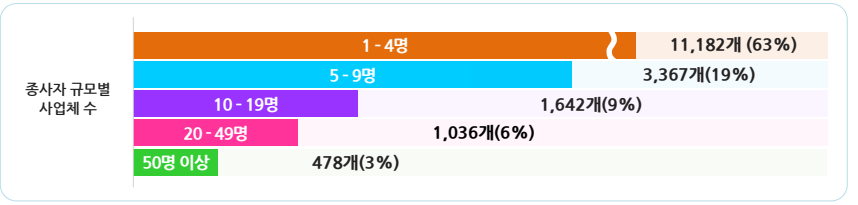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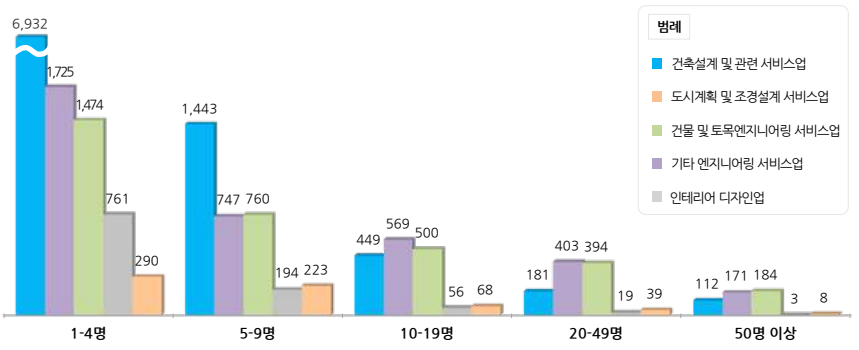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약 9.9명으로 전년도 대비 0.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를 종사자수에 따라 5개 범주로 구분했을 때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전체 사업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4명 소규모 사업체가 약 11,182개(6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9명 규모의 사업체는 3,367개(19%), 10~19명 사업체는 1,642개(9%), 20~49명 사업체는 1,036개(6%), 50명 이상 사업체는 478개로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전문분야 사업체는 1~4명, 5~9명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4명 규모의 사업체에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동 규모의 사업체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9명, 20~49명 사업체에서는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5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1~4명 규모의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가장 사업체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분야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비율에서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경우 1~4명 규모의 사업체가 각각 76%, 74%이며, 20명 이상 사업체의 비중은 각 3.2%, 1.2%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체 비율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분야 역시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4명 사업체 비중이 전체의 44%~48% 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인테리어 디자인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50명 이상의 사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규모별 전문분야 사업체 수〉

〈전문분야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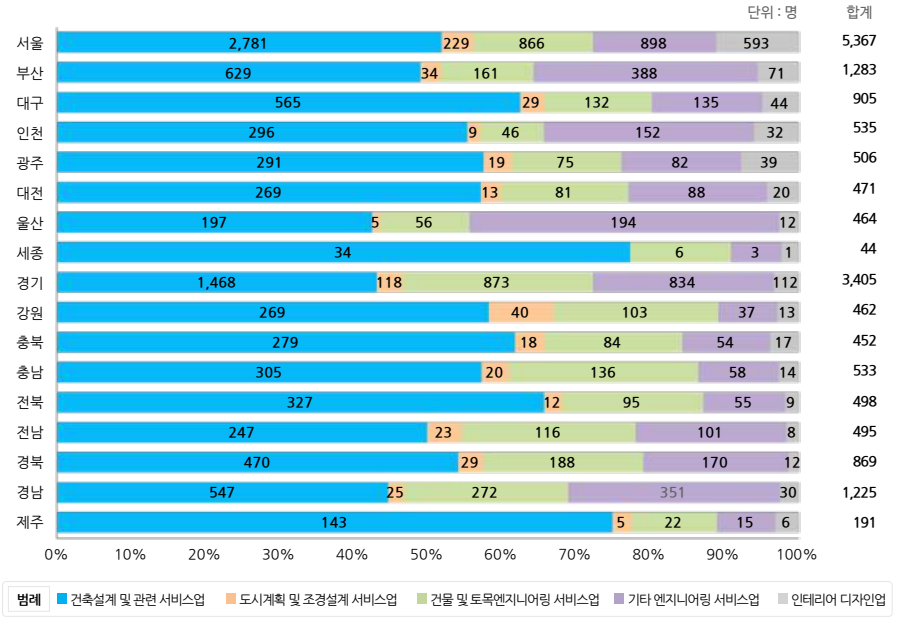
단위 : 퍼센트(%)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1-4명	76.0	46.2	44.5	47.7	73.7
5-9명	15.8	35.5	22.9	20.7	18.8
10-19명	4.9	10.8	15.1	15.7	5.4
20-49명	2.0	6.2	11.9	11.1	1.8
50명 이상	1.2	1.3	5.6	4.7	0.3

지역 및 전문분야별 사업체 현황

지역별 사업체수는 서울이 5,367개로 전체 사업체의 약 3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3,405개(19.2%), 부산 1,283개(7.2%), 경남 1,225개(6.9%)로 나타났다. 이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000개 미만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제주도가 191개(1.1%)로 사업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전문분야별 사업체 분포현황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시·도에 따라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 2013년 각 지역의 전문분야별 사업체 분포 현황



〈지역별 전문분야에 따른 사업체 비율〉

단위 : 퍼센트(%)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51.8	49.0	62.4	55.3	57.5	57.1	42.5	77.3	43.1	58.2	61.7	57.2	65.7	49.9	54.1	44.7	74.9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4.3	2.7	3.2	1.7	3.8	2.8	1.1	0.0	3.5	8.7	4.0	3.8	2.4	4.6	3.3	2.0	2.6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6.1	12.5	14.6	8.6	14.8	17.2	12.1	13.6	25.6	22.3	18.6	25.5	19.1	23.4	21.6	22.2	11.5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6.7	30.2	14.9	28.4	16.2	18.7	41.8	6.8	24.5	8.0	11.9	10.9	11.0	20.4	19.6	28.7	7.9
인테리어 디자인업	11.0	5.5	4.9	6.0	7.7	4.2	2.6	2.3	3.3	2.8	3.8	2.6	1.8	1.6	1.4	2.4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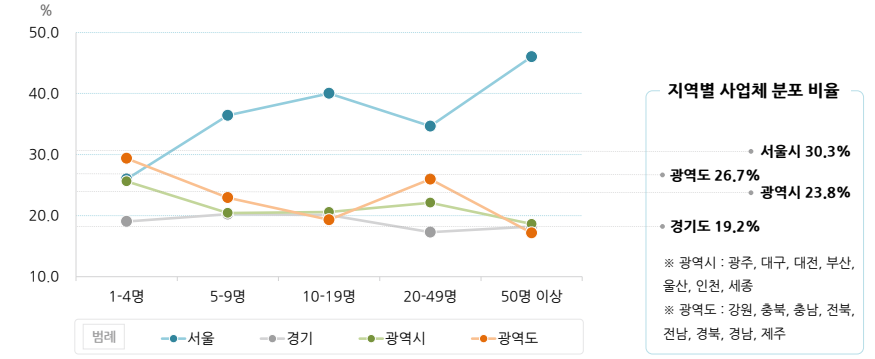
※ 검은색 굵게 표기된 숫자는 사업체 비율이 1순위인 산업, 파란색으로 굵게 표기된 숫자는 사업체 비율이 2순위인 산업을 나타냄

종사자 규모에 따른 지역별 사업체 현황

각 지역별 규모에 따른 사업체수는 영세한 사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부산,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세종시는 10인 미만 사업체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의 경우 2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중 서울에 약 46%(220개), 경기도 18.2%(87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명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서울 약 26%(2,905개), 경기도 19.0%(2,128개) 분포하여 규모가 작은 사업체보다 큰 사업체에 대한 수도권 분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전국에서 차지하는 사업체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시, 도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체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2013년 지역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비율



〈종사자 규모에 따른 지역별 사업체 분포비율〉

단위 : 퍼센트(%)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명	100	26.0	7.2	6.1	3.2	3.3	3.0	2.6	0.3	19.0	2.9	2.9	3.3	3.4	2.9	5.6	7.3	1.1
5-9명	100	36.4	6.1	3.9	3.0	2.5	2.3	2.4	0.2	20.2	2.0	2.0	3.1	1.9	2.6	4.0	6.1	1.2
10-19명	100	40.0	9.1	2.9	1.7	1.9	2.3	2.6	0.2	20.1	1.8	2.1	1.8	1.6	2.3	3.8	5.2	0.6
20-49명	100	34.7	8.6	3.2	3.2	2.1	1.5	3.5	0.0	17.3	3.5	2.0	2.4	2.7	2.8	3.8	7.7	1.1
50명 이상	100	46.0	7.5	1.9	2.9	1.0	1.7	3.6	0.0	18.2	1.3	1.5	1.0	0.8	2.9	1.5	7.3	0.8

〈지역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현황〉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합계 (100%)
	사업체수 (개)	구성비(%)	사업체수 (개)	구성비(%)	사업체수 (개)	구성비(%)	사업체수 (개)	구성비(%)	사업체수 (개)	구성비(%)	
서울	2,905	54.1	1,226	22.8	657	12.2	359	6.7	220	4.1	5,367
부산	804	62.7	205	16.0	149	11.6	89	6.9	36	2.8	1,283
대구	684	75.6	131	14.5	48	5.3	33	3.6	9	1.0	905
인천	358	66.9	102	19.1	28	5.2	33	6.2	14	2.6	535
광주	364	71.9	84	16.6	31	6.1	22	4.3	5	1.0	506
대전	331	70.3	79	16.8	37	7.9	16	3.4	8	1.7	471
울산	289	62.3	80	17.2	42	9.1	36	7.8	17	3.7	464
세종	34	77.3	7	15.9	3	6.8	0	0.0	0	0.0	44
경기	2,128	62.5	681	20.0	330	9.7	179	5.3	87	2.6	3,405
강원	324	70.1	66	14.3	30	6.5	36	7.8	6	1.3	462
충북	320	70.8	69	15.3	35	7.7	21	4.6	7	1.5	452
충남	369	69.2	105	19.7	29	5.4	25	4.7	5	0.9	533
전북	375	75.3	64	12.9	27	5.4	28	5.6	4	0.8	498
전남	326	65.9	88	17.8	38	7.7	29	5.9	14	2.8	495
경북	628	72.3	133	15.3	62	7.1	39	4.5	7	0.8	869
경남	819	66.9	205	16.7	86	7.0	80	6.5	35	2.9	1,225
제주	124	64.9	42	22.0	10	5.2	11	5.8	4	2.1	191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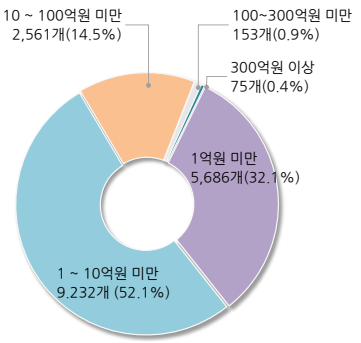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중 10억원 미만 사업체는 총 14,918개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10억원 미만 사업체는 9,232개로 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억 이상부터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사업체 개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사업체는 75개로 전체 사업체의 0.4%로 조사되었다.

각 전문분야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사업체수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경우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체가 각각 92%, 87%로 타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매출액 10억 이상의 사업체 비율이 각각 26.4%, 23.9%, 28.7%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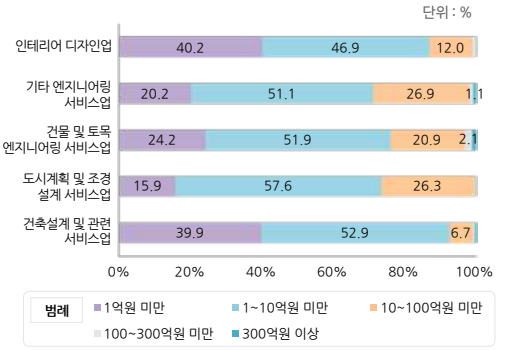
매출액 규모별 전문분야 사업체 비율에서는 10억원 미만 사업체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10~100억원 미만은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00억원 이상 사업체에서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

어링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1억원 미만 63.9%(3,635개), 1~10억원 미만 52.2%(4,820개)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10~100억원 미만 사업체 38%(974개),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100~300억원 미만 45.1%(69개), 300억원 이상 사업체가 41.3%(31개)로 집계되었다.

■ 2013년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비율〉



〈전문분야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사업체 비율〉

〈매출액 규모별 전문분야 사업체 비율〉

구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사업체수(개)	구성비(%)	사업체수(개)	구성비(%)	사업체수(개)	구성비(%)	사업체수(개)	구성비(%)	사업체수(개)	구성비(%)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3635	63.9	100	1.8	803	14.1	732	12.9	416	7.3
	1~10 억원 미만	4820	52.2	362	3.9	1719	18.6	1846	20.0	485	5.3
	10~100 억원 미만	607	23.7	165	6.4	691	27.0	974	38.0	124	4.8
	100~300 억원 미만	34	22.2	1	0.7	69	45.1	40	26.1	9	5.9
	300억원 이상	20	26.7	0	0.0	31	41.3	24	32.0	0	0.0

※ '전문분야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사업체 비율' 그래프에서 1.0% 미만 표기는 생략하였으며 생략된 수치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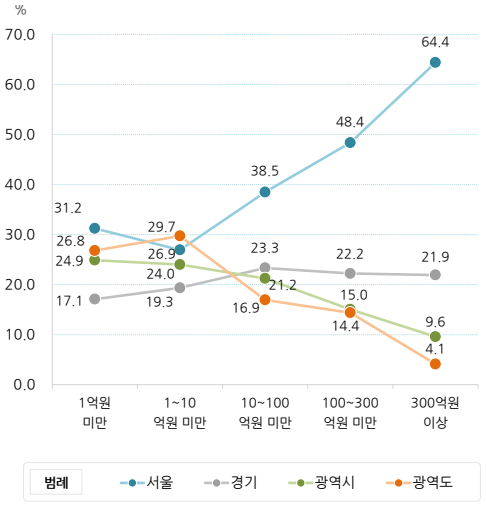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100~300억원 미만 0.4%, 300억원 이상 0.2%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00~300억원 미만 0.2%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00억원 이상 0.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00억원 이상 0.7%
▶ '인테리어 디자인업' 100~300억원 미만 0.9%

매출액 규모에 따른 지역별 사업체 현황

매출액 규모에 따른 지역별 사업체 분포 비율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분포율을 보였으며. 서울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전체 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규모의 사업체는 서울에 48.4%, 경기도 22.2% 였으며, 300억원 이상의 사업체는 서울 64.4%, 경기도 21.9%로 매출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경기지역과 반대로 나머지 광역시·도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사업체 비율이 낮아졌으며,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체의 경우 도 지역의 분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역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사업체 분포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1~10억 규모의 사업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원 미만, 10~100억원, 100~300억원, 300억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10억 이상 사업체부터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매출액 100억 이상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세종시와 전북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체부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제주도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사업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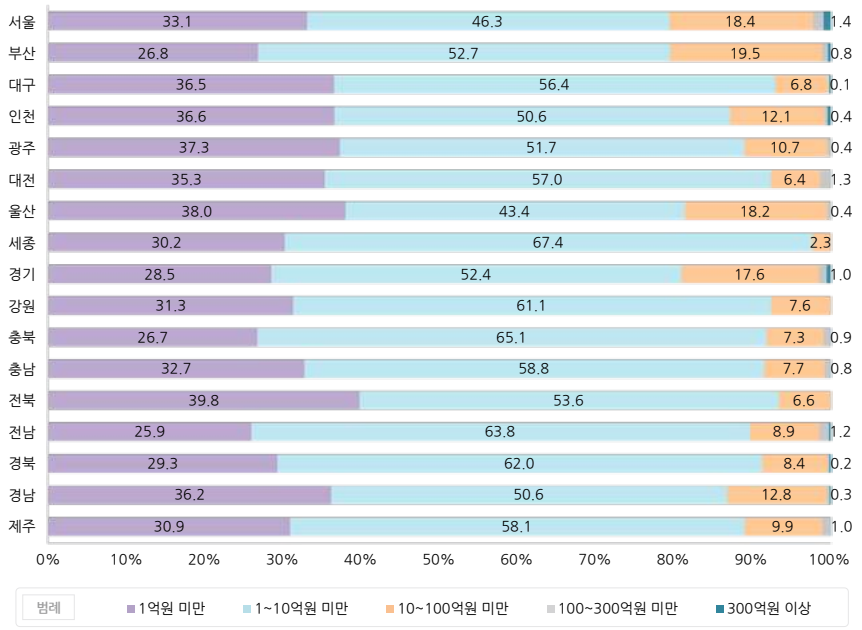
■ 2013년 매출액 규모 및 지역별 사업체 현황



단위 : 퍼센트(%)

	1억원 미만	1~10 억원 미만	10~100 억원 미만	100~300 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서울	31.2	26.9	38.5	48.4	64.4
부산	6.0	7.3	9.7	6.5	5.5
대구	5.8	5.5	2.4	0.7	1.4
인천	3.5	2.9	2.5	1.3	2.7
광주	3.3	2.8	2.1	1.3	0.0
대전	2.9	2.9	1.2	3.9	0.0
울산	3.1	2.2	3.3	1.3	0.0
세종	0.2	0.3	0.0	0.0	0.0
경기	17.1	19.3	23.3	22.2	21.9
강원	2.5	3.0	1.4	0.0	0.0
충북	2.1	3.2	1.3	2.6	0.0
충남	3.1	3.4	1.6	2.6	0.0
전북	3.5	2.9	1.3	0.0	0.0
전남	2.3	3.4	1.7	3.9	1.4
경북	4.5	5.9	2.8	1.3	1.4
경남	7.8	6.7	6.1	2.6	1.4
제주	1.0	1.2	0.7	1.3	0.0

〈매출액 규모에 따른 지역별 사업체 분포 비율〉



<각 지역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비율>

※ '각 지역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비율' 그래프에서 300억원 이상은 사업체 비율은 1.0% 미만으로 표기를 생략하였으며 생략된 수치는 아래와 같음

▶ 서울 0.9%, 부산 0.3%, 인천 0.4%, 경기 0.5%, 전남 0.2%, 대구, 경북, 경남은 각 0.1%이며, 나머지 지역은 0%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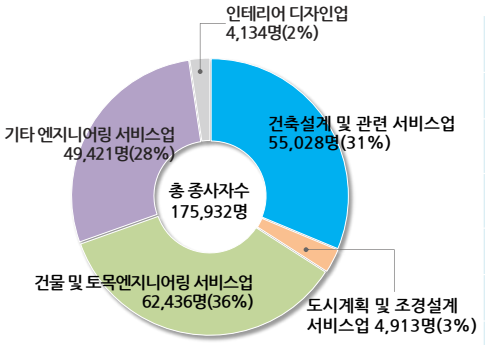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현황

전문분야별 종사자 규모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규모는 2012년보다 163명 줄어든 176,095 명이다. 전문분야별 종사자수의 변동 추이를 보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가 가장 많고, '인테리어 디자인업' 종사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도 대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191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50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45명,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43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만 2,753명 증가하였다.

■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규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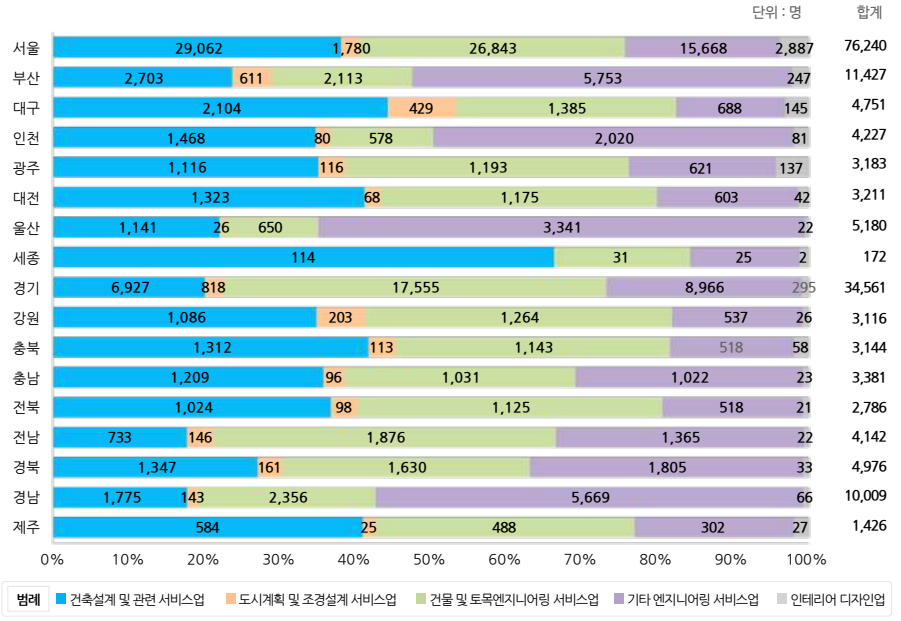
산업구분	2012	2013	증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57,219	55,028	-2,19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5,063	4,913	-150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2,581	62,436	-145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6,668	49,421	2,753
인테리어 디자인업	4,564	4,134	-430
합계	176,095	175,932	-163

지역 및 전문분야별 종사자 규모

전문분야별 종사자수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종사자 분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 지역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부산, 인천, 울산, 경북, 경남은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최대 4.3%(광주), 최소 0.4%(울산)으로 타 서비스업보다 현저히 낮아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각 지역의 전문분야별 종사자 분포 현황



단위 : 퍼센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8.1**	23.7	**44.3**	34.7	35.1	**41.2**	22.0	**66.3**	20.0	34.9	**41.7**	**35.8**	36.8	17.7	27.1	17.7	**41.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3	5.3	9.0	1.9	3.6	2.1	0.5	0.0	2.4	6.5	3.6	2.8	3.5	3.5	3.2	1.4	1.8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5.2	18.5	29.2	13.7	**37.5**	36.6	12.5	18.0	**50.8**	**40.6**	36.4	30.5	**40.4**	**45.3**	32.8	23.5	34.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6	**50.3**	14.5	**47.8**	19.5	18.8	**64.5**	14.5	25.9	17.2	16.5	30.2	18.6	33.0	**36.3**	**56.6**	21.2
인테리어 디자인업	3.8	2.2	3.1	1.9	4.3	1.3	0.4	1.2	0.9	0.8	1.8	0.7	0.8	0.5	0.7	0.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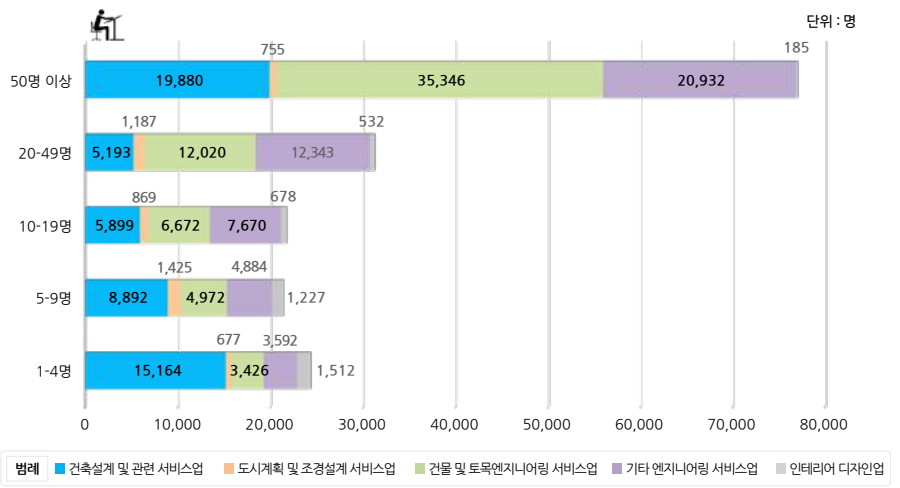
<2013년 지역별 전문분야 종사자수(위) 및 분포비율(아래)>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현황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는 50명 이상 사업체에 가장 많은 종사자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9명 규모의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은 전체의 약 43.8%(77,098명)로 나타났으며, 20~49인(17.8%), 1~4인(13.9%), 10~19인(12.4%), 5~9인(12.2%)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별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 현황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50명 이상>1~4인>5~9인>20~49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5~9인>20~49인>10~19인>50인 이상>1~4인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경우 1~4인 규모 사업체에 종사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규모가 커질수록 종사자가 분포비율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 현황



구분	사업체 규모				
	1 ~ 4인	5 ~ 9인	10 ~ 19인	20 ~ 49인	50명 이상
건축서비스산업(명)	24,371 명	21,400 명	21,788 명	31,275 명	77,098 명
종사자 분포비율(%)	13.9 %	12.2 %	12.4 %	17.8 %	4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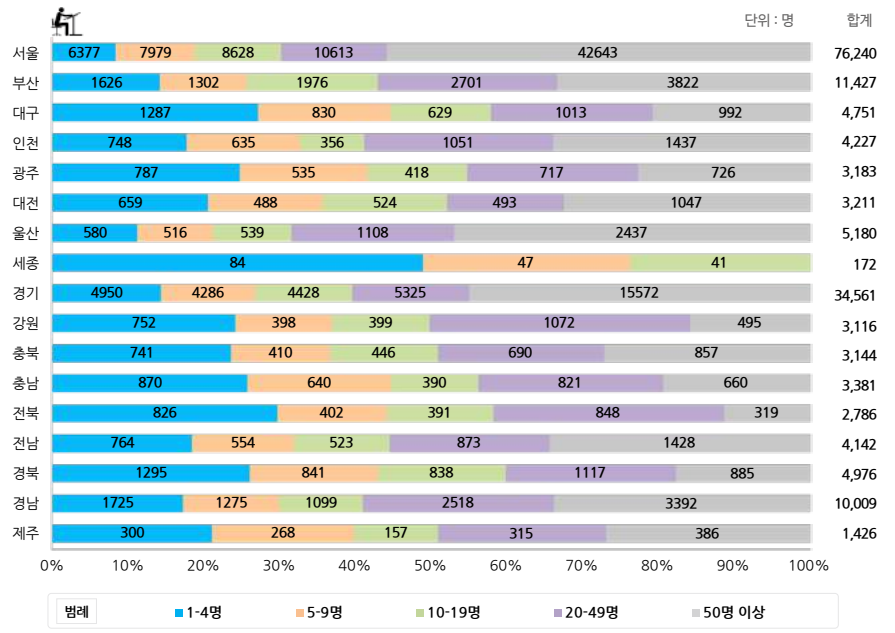
〈2013년 사업체 규모별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분포 현황〉

지역 및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분포현황

2013년 지역에 따른 종사자 분포 현황은 서울이 76,240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3.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에 34,561명(19.6%)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부산, 경상남도에 1만 명 이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역에 약 3,000명~5,000명 정도의 인원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172명으로 전국에서 종사자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그리고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 분포는 일반적으로 1~4명, 20~49명, 5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타 규모 사업체에 비해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각 지역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 현황



단위 : 퍼센트(%)

구분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1-4명	21.0	17.2	**26.0**	18.4	29.6	**25.7**	23.6	24.1	14.3	**48.8**	11.2	20.5	**24.7**	17.7	**27.1**	14.2	8.4
5-9명	18.8	12.7	16.9	13.4	14.4	18.9	13.0	12.8	12.4	27.3	10.0	15.2	16.8	15.0	17.5	11.4	10.5
10-19명	11.0	11.0	16.8	12.6	14.0	11.5	14.2	12.8	12.8	23.8	10.4	16.3	13.1	8.4	13.2	17.3	11.3
20-49명	22.1	25.2	22.4	21.1	**30.4**	24.3	21.9	**34.4**	15.4	0.0	21.4	15.4	22.5	24.9	21.3	23.6	13.9
50명 이상	**27.1**	**33.9**	17.8	**34.5**	11.5	19.5	**27.3**	15.9	**45.1**	0.0	**47.0**	**32.6**	22.8	**34.0**	20.9	**33.4**	**55.9**

〈2013년 지역별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 분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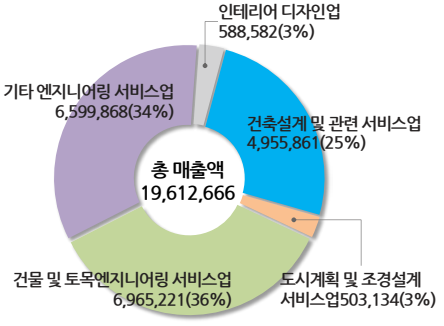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현황

전문분야별 매출액 규모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의 총 매출액 규모는 2012년보다 221,891백만 원 감소한 19,612,666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매출액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빠르게는 2009년부터 감소해 왔으며, 2012~2013년에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매출액 감소가 이루어 졌다. 특히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서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매출액 감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액 규모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가 전체 36%로 가장 높고,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분야의 매출액이 전체의 3%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는 매출액이 가장 높으나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는 반면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은 2007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최대매출액 분야가 변동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전문분야별 매출액 규모



단위 : 백만 원

산업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5,070,651	4,955,861	-114,79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598,278	503,134	-95,144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972,003	6,965,221	-6,78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548,079	6,599,868	51,789
인테리어 디자인업	645,546	588,582	-56,964
합계	19,834,557	19,612,666	-221,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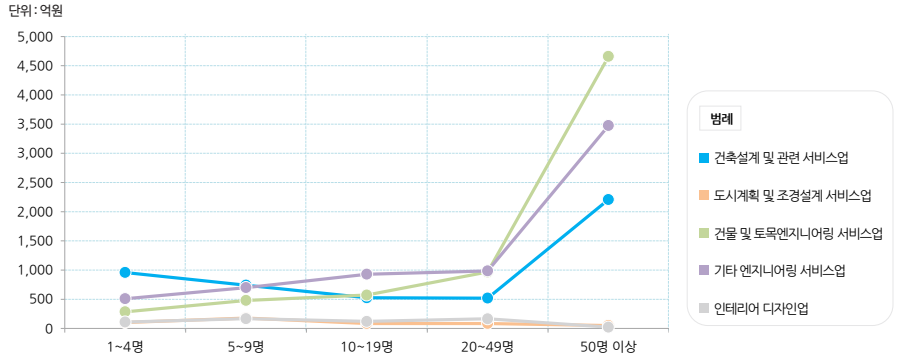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규모에 따른 매출액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전체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50명 이상 대형 사업체의 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50명 이상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인테리어 디자인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50명 이상 사업체에서의 매출액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는 '50명 이상>1~4명>5~9명>10~19명>20~4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5~9명>1~4명>20~49명>10~19명>50명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과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부문은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 규모도 높게 나타났으며,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5~9명>20~49명>10~19명>1~4명>50명 이상' 의 매출 순서를 보였다.

■ 2013년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축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계	19,612,668	4,955,862	503,133	6,965,222	6,599,869	588,582
1-4명	1,967,300	959,488	102,026	285,401	509,589	110,796
5-9명	2,269,004	742,206	**178,059**	480,643	699,776	**168,320**
10-19명	2,235,015	526,068	85,694	572,795	928,774	121,684
20-49명	2,725,130	520,120	85,990	967,379	986,184	165,457
50명 이상	**10,416,219**	**2,207,980**	51,364	**4,659,004**	**3,475,546**	22,325

〈2013년 전문분야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자료 : 2015,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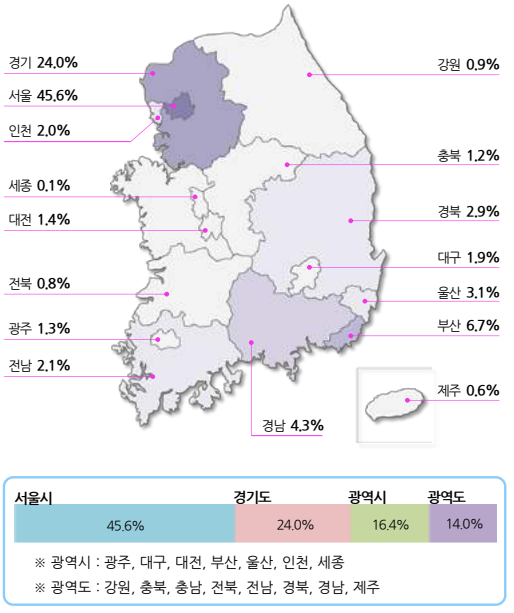
2013년 지역별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규모

지역별 매출액 규모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약 19,6조원 중 45.6%(약 9.0조원)가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의 매출액이 24.0%(약 4.7조원), 부산광역시가 6.7%(약 1.3조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 상위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 매출액은 약 3,300억 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세종시의 경우 2,000억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매출액 합계 비율은 30.4%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광역시는 16.4%, 광역도는 14%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광역도의 종사자 규모 합계는 각각 32,161명, 32,980명으로 경기도(34,561명)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매출액 부문에서는 최고 10%까지 격차가 있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 2013년 지역별 매출액 비율



〈2013년 지역별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비율(위), 지역별 합계(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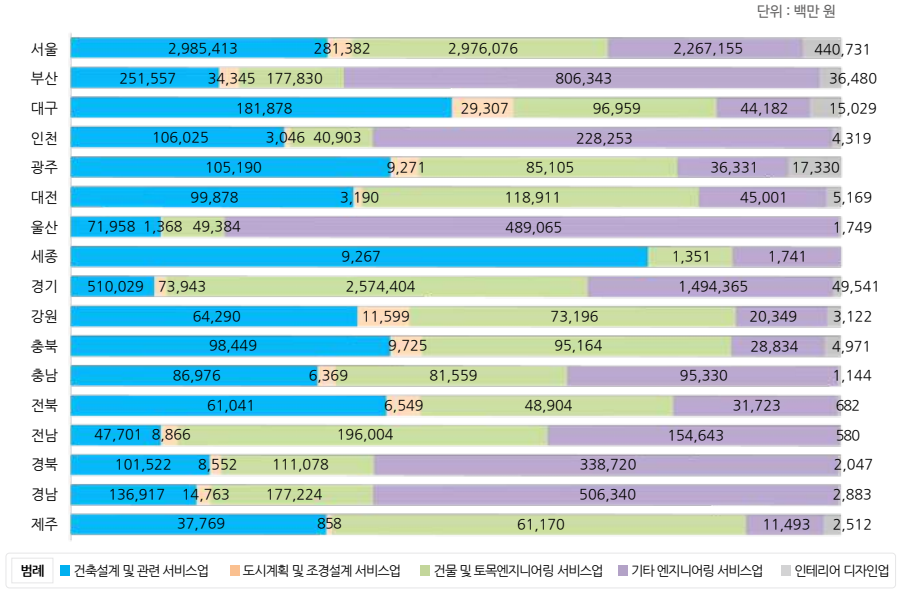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시·도별	연도별 매출액	
	2012년	2013년
전국	19,834,557	19,612,666
전년도 대비 증감률	+2.8%	-1.1%
서울특별시	9,315,620	8,950,757
부산광역시	1,275,791	1,306,555
대구광역시	375,904	367,355
인천광역시	290,423	382,546
광주광역시	267,079	253,227
대전광역시	236,416	272,149
울산광역시	873,432	613,524
세종특별자치시	16,601	12,359
경기도	4,901,144	4,702,282
강원도	139,822	172,556
충청북도	220,074	237,143
충청남도	184,193	271,378
전라북도	146,374	148,899
전라남도	303,540	407,794
경상북도	524,005	561,919
경상남도	662,003	838,127
제주특별자치도	100,790	113,802

지역 및 전문분야별 매출액 규모

지역별 전문분야 매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의 매출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 인테리어 디자인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매출액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주요 매출 분야를 살펴보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전북 등 6개 지역이었으며,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액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충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종사자 비율이 36.3%에 불과한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매출액의 60.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비율 대비 매출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에 따른 서비스업분야·종사자규모·매출액 비율 간 격차가 심해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 전문분야에 따른 매출액 현황



단위 : 퍼센트(%)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3.4**	19.3	**49.5**	27.7	**41.5**	36.7	11.7	**75.0**	10.8	37.3	**41.5**	32.0	**41.0**	11.7	18.1	16.3	33.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3.1	2.6	8.0	0.8	3.7	1.2	0.2	-	1.6	6.7	4.1	2.3	4.4	2.2	1.5	1.8	0.8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3.2	13.6	26.4	10.7	33.6	**43.7**	8.0	10.9	**54.7**	**42.4**	40.1	30.1	32.8	**48.1**	19.8	21.1	**53.8**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5.3	**61.7**	12.0	**59.7**	14.3	16.5	**79.7**	14.1	31.8	11.8	12.2	**35.1**	21.3	37.9	**60.3**	**60.4**	10.1
인테리어 디자인업	4.9	2.8	4.1	1.1	6.8	1.9	0.3	-	1.1	1.8	2.1	0.4	0.5	0.1	0.4	0.3	2.2

<지역별 전문분야에 따른 매출액 비율>